영가천도 영험도량 · 지장도량 성거사
단일 · 합동천도 봉행 조상령 천도전문 · 낙태아 수자령 천도
무료책자신청 문의상담전화 041-567-6820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9월 15일(음력8월 2일) 수요일 (주간) 제491호

배움의 열정 실천으로 꽃피운다

< 신행기획 >
상 이 시대의 화두 '실천'
하 '포교열정'은 계속돼야 한다

전국의 불교대학이 연간 쏟아내는 졸업생들은 3천여 명. 이들의 '공부바람'이 이제는 신행 · 봉사 · 포교로 번져가고 있다. 순전히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재가불자신행패턴도 바꿔놓고 있다. 기복과 소극적 행태에서 작복(作福)과 적극적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운 것을 실천하려는 이들의 초발심을 유지시켜 줄 사찰의 관리와 봉사 · 포교 시스템도 정착돼야 한다. 불교대학 재학 · 졸업생들이 주도하는 신행흐름과 방향을 2회에 걸쳐 짚어보기로 한다.

불교대학 졸업생들 봉사 · 포교현장 맹활약
연간 3천여 불자 졸업 … 신행 새기류 형성

매주 일요일 아침, 서울 불광사 불교대학원 졸업생 12명은 연천 999부대를 찾는다. 양손에 든 비닐봉투에 '초코파이'가 한 가득이다. 숟가락 놓고 돌아서면 배꼽시계가 금세 우는 젊은 군장병들. 목이 빠져라 이들을 기다린다.

"내 아들 같아요. 군법당에서 마음 편하게 쉬면서 부처님 말씀 한 마디라도 듣고 가면 그것으로 보람을 느낀 답니다."

큰 배움 즐거운 회향

이 대학 졸업생 권혁위(54 · 청담) 씨. 불교공부하면서 세운 원력을 군포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자신이 늘 자랑스럽다.

불교대학 재가불자들의 '배움의 열정'이 신행 · 봉사 · 포교로 이어지고 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 재학생, 졸업생 가릴 것 없이 스스로들 그렇게 마음을 낸 것이다. 게다가 움직임도 활발하다.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복지시설 정기적 방문, 장의염불, 합창단 공연, 문화재 해설, 다도 보급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다. 여기에 장례문화학과, 설법학과 등 특성화된 학과를 졸업한 불자들이 전공을 살린 활동을 펼치면서 실천분야도 전문화 · 다양화되고 있다.

대구영남불교대학 졸업생 윤중선(60 · 법운화) 씨. 10년째 합창단장을 맡으면서 대구교도소에서 '음성공양'을 하고 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관심 분야에 따라 기도, 목욕봉사, 결식아동 돕기, 상담, 간병 등 세분화된 자원봉사분야 가운데 윤 씨가 선택한 것은 합창단 활동. '노래봉사'를 할 때마다 포교 원력은 더욱 굳건해진다고 말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불교사회복지대학 졸업생들도 마찬가지. 지난 1995년 자원봉사단을 결성, 1년 과정 동안 배운 '복지의 ㄱㄴㄷ'를 직접 실천하고 있다. 발반사, 한방 요법 등 3천여 봉사자들이 복지 현장 곳곳을 누비고 있다. 또 서울 능인선원 불교대학 졸업생모임 '상조회'는 장의염불봉사를, 전북불교대학 출신 '경전독송회'는 호국영령을 위한 독경을, 안양불교대학 졸업생들은 안양교도소 불자 수감자들과 법음을 나누고 있다.

철저한 무보수 원칙

이러한 불교대학 재가불자들의 활동은 사찰이나 모교에 유 · 무형의 도움을 주고 있다. 활동비 등을 지원받지 않고 '알아서' 자급자족하면서 신도조직까지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무보수 자원봉사' 원칙은 사찰과 대학, 지역 사회단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99년 통도사박물관대학 1기 졸업생 박해종(58 · 혜각) 씨는 4년 전부터 500여 명의 이 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출범시킨 '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활동에 자부심이 대단하다. 통도사를 찾는 참배객들이 불교문화의 진수를 맛보고 돌아갈 때면, '불교문화 알림이'로서 긍지를 느낀다고 말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불교문화를 알리는 것이 불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움의 실천'이라고 여기고 있어, 자긍심도 크다. 또 부산불교교육대학 수화반 동문 모임인 '심여회'는 5년 넘게 불자청각장애인 법회에서 수화통역을 맡으며 '소리 없이' 법음을 전파하고 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불교대학 재가불자들의 '신행일치(信行一致)'는 여기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 최근에는 재가불교 신행운동의 주축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신행 패턴을 바꿔놓고 있다.

서울 동산불교대학은 2003년에 대학 동문 108인을 중심으로 재가신행결사체인 '붓다클럽'을 결성, △매일 부처님 전 108배 △매일 이웃에게 포교 △매월 정기적인 사회봉사활동 등의 '5대 실천 덕목'을 공포하는 등 재가불자 신행의 새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안양불교대학장 현호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 재가불자의 신행흐름은 자외선. 소량이라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광증폭기가 개발돼 측정이 가능해졌다.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열린 '국제 생명정보과학 학술대회(ISLIS)'에서 소 교수는 인체의 건강상태에 따라 발산되는 바이오포톤의 양이 다르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바이오포톤이란 바이오(bio · 생명체를 의미)와 포톤(photon · 광자)의 합성어로서, 생명체에서 나오는 광자를 뜻하는 말이다.

이로부터 연구팀은 인체의 건강상태가 발산되는 바이오포톤의 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내놓을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이승호 박사(서울대 한의학물리연구실)는 "수행의 깊이가 바이오포톤 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질병 여부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장치 개발이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삼라만상 2004

2004 광주비엔날레가 9월 10일 개막됐다. 올해로 10회째인 2004 광주비엔날레는 '먼지 한톨 물 한방울'을 주제로 동양적 사유와 정신을 집중 조명하는 각종 전시회와 공연 등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사진은 광주 중외공원내 교육홍보관에 설치된 재미 설치미술가 강익중 씨의 '삼라만상 2004'. 3,349개의 부처님이 형상화된 작은 캔버스가 모여 거대한 작품을 이루고 아크릴릭, 모션 센서, 모터, 365개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캔버스 곳곳에 부착되어 소리를 낸다. 광주=이준엽 기자

부처님 후광의 실체는?

소광섭 교수 '인체의 빛' 연구 주목받아

"부처님의 몸은 청정한 금산(金山) 같아 둥그런 광명이 밝게 타오르며, 그 광명의 둘레는 한 길이나 된다"(대장엄경) 했고,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 금빛이 나는데 그것은 전륜성왕이 갖추고 있는 32상 가운데 하나"(장아함경)라고도 했다.

이런 특징은 부처님 상 조성에 반영돼, 부처님 두상 뒤편에 원형, 혹은 몸 전체 뒤편에 타원형 광채로 표현된다. 이를 광배(光背)라 한다. 흔히 부처님의 신성함과 위대함을 장엄하는 효과로 이해돼 왔다. 하지만 그것이 비단 장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재적 현상임을 입증할 만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소광섭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소 교수는 모든 생명체는 빛을 발산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에 착안, 인체에서 나오는 빛을 연구하고 있다. 빛의 실체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나오

선학원 前 이사장 정일 스님 원적

11일 법주사서 문중葬 엄수



선학원 前 이사장 남산 정일(南山正日) 스님이 9월 7일 새벽 보은 법주사 궁현당에서 원적에 들었다. 세수 73세. 법랍 47년.

1932년 서울 태생인 스님은 57년 조계사에서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 54년 사미계를, 63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58년부터 80년까지 망월사, 범어사, 통도사, 해인사, 불국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했으며, 강진 백련사 주지, 정각사 죽림선원 조실, 법주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특히 92년부터 2003년까지 선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영결 · 다비식은 11일 법주사에서 문중장으로 봉행됐다. 행장 4면

남동우 기자



그림 · 조태호

천룡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www.dosunsa.or.kr
호국참회 관음기도 도량 삼각산 도선사
7관세음 33일 기도
33인 고승 대덕 초청 대법회
수도 서울의 최고 기도 도량 삼각산 도선사가
감로의 법문을 듣는 고승 대덕 초청 대법회를
9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거행합니다.
14분의 고승 대덕 법문 및 7관세음 33일 기도를
함께 봉행하는 법회에 사부대중을 모십니다.
· 법문 및 기도 : 12시
· 문의 : 993-3161~3

법장 스님 9월8일
인환 스님 9월11일
현성 스님 9월15일
무진장 스님 9월18일
지관 스님 9월20일
고산 스님 9월22일
혜성 스님 9월23일
월운 스님 9월26일
혜정 스님 9월30일
암도 스님 10월3일
보성 스님 10월5일
종범 스님 10월6일
성수 스님 10월9일
월주 스님 10월11일



占에 의지하면 불자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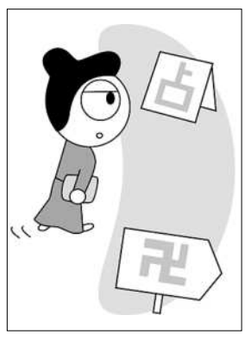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당신의 운세를 알고 싶습니까?' 요즘 일간지나 공중파 방송 광고에서 자주 보는 말들이다. 요즘 불안한 사회를 반영이라도 하듯 사주 · 점보기 등이 확산되고 있다.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과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법. 하지만 불교를 믿는 사람들조차 사주나 점(占)을 보러 가기도 하고 심지어 사찰의 스님들에게까지 그러한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원시사회에서 저급무속종교 기능의 한 방법으로 등장한 점문화가 첨단정보화 사회인 지금까지도 그 힘을 떨치고 있을까?

현재 한국사회가 중증 사회병리화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문화의 병폐가 사회 곳곳에 파고들고 있다는 셈이다. 그럼, 이런 점문화가 극성을 떨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간 축적한 경험을 통해서 그 근본 뿌리를 뽑고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점보기 심리의 원인은 첫째, 대부분 한국인의 DNA에 토템적 샤머니즘이 원시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구조에 대한 반권위, 반문화 · 문명적 인격장애증과 상호불신 풍조가 사회 불안심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불교에 대한 믿음이 깊지 못하고, 교리의 자기적 해석 및 체험적 수행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신앙 의지와 신념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셋째, 일부 종단 스님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으며, 일관성 없는 미비한 교육 등도 한 몫을 한다.

한편 점보기의 문제점은 대부분 사람들의 정신상태에서 비롯된다. 불안한 마음, 통찰력 결여, 약한 자의식 등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좀먹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점보기에 이용당할 위험성과 함정에 빠지지 쉽고, 급기야 사회적응능력까지 저하되는 부작용과 '미신 중독증'을 낳게 된다. 정작 점보기가 무속인들이 주장하는 신들의 장난에 놀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불안 해결 핑계 '미신 중독' 일쑤
교리·수행으로 마음 다스려야

결론적으로 불교계의 점보기 문제점과 사회병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지식으로 훈련된 선심리상담사들을 많이 양성해 심리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 환상적이고 욕구충족에만 사로잡힌 불자들에게 보다 합리적, 과학적인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을 인지시켜줘야 할 것이다. 둘째, 스님 및 불교지도자들은 스스로 새로운 학문에 접근하기를 두려워 말아야 한다. 깊은 학덕과 수행정진력을 갖춘 스님들 친견하고, 삶의 질을 높여 불자들이 강한 자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불자들은 일정기간(약3년) 참선(參禪)과 호흡법으로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 일관성 있는 기본교리를 배워야 한다. 원효 대사의 화쟁사상 등 불교교리의 정수가 새로운 의식계몽운동으로 꽃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때 점에 의존하려는 사회병리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 도각(한국선심리치료명상원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종책생산·종도 참여·시대맞춘 법개정 추진"

조계종 중앙종회 '본분으로 돌아가자' 자성 목소리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 이후 최대 권력기구로 성장한 중앙종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일승회(회장 종광)가 9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성과 진정한 대의기구로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동광 · 선광 · 법안 · 장적 · 법경 · 초격 · 보경 스님 등 7명의 일승회 회원들은 먼저 자기참회 목소리부터 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저희 종책 모임을 포함한 중앙종회의원들은 94년 종단개혁에 안주해서 종도들의 요구를 외면해왔으며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94년 이후 과도한 권한을 가진 중앙종회는 반목과 대립, 정쟁의 진원지였고 오늘 이 자리에 서있는 우리 역시 대립의 한축으로 전락된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중앙종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참회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치적인 몸짓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공개적인 참회'

일승회 소속 스님들 기자회견 통해 공개참회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스님들이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은 △종책생산기능 강화 △종도들의 참여와 평가 △시대상황에 맞는 종헌 · 종법 개정 등.

일승회는 2개월 전부터 매주 한차례씩 세미나를 실시해 온 '종책위원회'를 통해 토론과제를 제시하고 연구된 종책을 총무원과 공개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화시키는 등 종회 근본 기능 중 하나인 종책생산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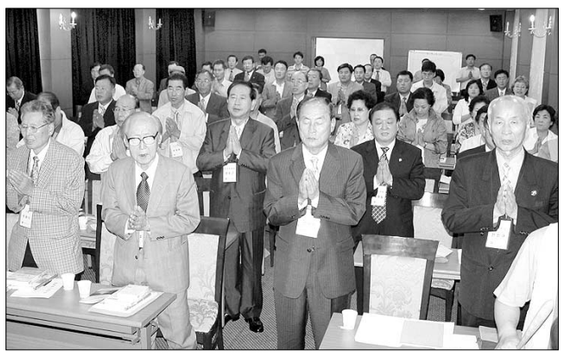
일승회는 이러한 종책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과 평가과정을 통해 종도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일승회는 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표결방식과 과도한 면책특권에 의한 폐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종단 기구인 각종 위원회마저 종회에서 선출함으로써 종도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거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며 시대상황에 맞게 종헌 · 종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 즉 기자회견에 참석한 스님들이나 종책위원회에 참여한 스님들 대부분이 옛 일여회 소속 스님들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승회 내부를 비롯해 다른 종책 모임들 간 치열한 토론을 통해 종단 발전이라는 대의 앞에서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특정한 종책 모임에 속하지 않은 탄우 스님은 "기자회견이 일승회 전체의 뜻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집행부의 우산 역할을 하기 보다는 중앙종회 고유 기능 중 하나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책위원장 법안 스님은 "정쟁이 아닌 종책 개발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종책 모임과의 연대 뿐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종회의원 스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9월 4~5일, 통합이후 처음으로 열린 임원대회에서 고문 및 지도위원 77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임원대회서 새도약 다짐
조계종 중앙신도회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가 임원 추대식 및 임원대회를 9월 4~5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군 쉐르빌 온천호텔에서 개최했다.

회장단 및 지도위원, 소속단체 대표 등 임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고문 및 지도위원 추대식과 김종서 前 서울대 교수의 주제특강 '한국불교와 중앙신도회가 나아갈 길'과 우승택 삼성증권 지점장의 사례발표 '불교의 미래와 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대식에서는 고문으로 박윤흔 前 환경처 장관, 이종구 前 국방부 장관, 조영황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등 24명이, 지도위원으로 김경남 코엑스 상무이사, 심기섭 강릉시장, 홍기삼 동국대 총장 등 53명이 추대됐다.

김은경 기자

"백두대간 보호법에 불교계 입장 반영"
곽결호 환경부장관

백두대간보호법과 관련, 곽결호 환경부장관이 전통사찰에 한해 불교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장관은 9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통사찰에 한해 불교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내용을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알 림 '조계종 근·현대 사상사 세미나'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화랑)는 현대불교신문 후원으로 해방 이전 주요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조계종의 사상적 흐름과 역사적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1회 조계종 근 · 현대사상사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 (02)732-4921, 017-378-6075

■일 시 : 2004년 9월 17일(금) 오전 10~오후 6시
■장 소 : 동국대학교 학술관 덕암세미나실

주제, 발표자 및 논평자

선사	발 표	논 평
경허	고영섭(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동국대 교수)
용성	보광스님(동국대 교수)	진월 스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만공	효탄 스님(동국대 강사)	주경 스님(불교문화사업단
한암	혜거 스님(금강선원 선원장)	윤창화(민족사 대표)
학명	김광식(부천대 교수)	범하 스님(통도사 성보박물관장)
효봉	김방룡(보조사상연구원 기획실장)	김재성(경전연구소 소장)

총림지정 신청키로
동화사, 산중총회서

대구 동화사는 9월 10일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총림 지정을 신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총림은 강원, 율원, 선원, 염불원을 갖춰야 하고 총림의 최고 어른인 방장 스님은 세납 60세 이상, 법랍 45년 이상, 20안거 이상 성만해야 한다. 총림지정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에 상정된 후 종회의원 출석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현재 조계종 총림은 해인총림 해인사, 조계총림 송광사, 영축총림 통도사, 덕숭총림 수덕사, 고불총림 백양사 등 5곳이 있다.

대구=배지선 기자

구족 전법사계 수계산림
태고종, 20~22일

태고종 제5회 구족계 수계산림이 9월 20~21일 서울 봉원사 금강계단에서 열린다. 이어 21~22일에는 전법사계 수계산림이 같은 장소에서 봉행된다.

구족계 수계산림의 삼사(三師)로는 수진 스님(담양 용화사)이 전계아사리를, 보경 스님(총무원 부원장)을 갈마아사리를, 인공 스님(중앙종회 의장)이 교수아사리를 맡았다.

득도 후 3년이 경과된 사미(니)와 다른 종단에서 전종한 스님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전법사계 수계산림은 사찰을 운영하면서 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전법사들이 수행과 교화에 필요한 기본습의를 습득, 제도적으로 전법사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특별히 열리는 행사다. (02)382-7361

박봉영 기자

기획국장에 성전스님
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에 9월 9일자로 성전 스님이 임명됐다.

성전 스님은 1989년 사미계, 92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장 사서, 옥천암 주지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고침 본지 490호 1면 '힘든 세상 안심법문이 최고' 기사 제목 중 '도심사'를 '도선사'로 바로 잡습니다.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특별기도
2005학년도 수능특별기도 :
2004년 8월 8일 -
11월 17일(만101일간)
기도성취도량 우리절에서 마음에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시오.

◆우리절개산대제
오는10월7일 목요일은 이토록 아름다운 태화산에서 우리절이 문을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한지 꼭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전10시부터 법회를 봉행하오니 우리절을 사랑하시는 불자가족 여러분, 부디 오셔서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불자님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곤지암 우리절주지 일원동봉 합장

금주의 발원
모든중생 사랑하사 자식처럼 여기시어
어리석음 몰아내고 슬기롭게 하옵시고
모든질병 물리쳐서 건강하게 하옵시는
비로자나 부모불께 귀명정례 하나이다

모든중생 사랑하사 자식처럼 여기시어
다겁생래 지어온바 열가지업 소멸하고
열가지의 선업닦아 올바른길 가게하는
비로자나 부모불께 귀명정례 하나이다

모든중생 사랑하사 자식처럼 여기시어
시방삼세 어디서나 자비손길 펼치시고
포근하신 가슴으로 중생안아 주옵시는
비로자나 부모불께 귀명정례 하나이다

【우리나라 불교사원에서 독특하게 우리절에만(?)모셔져 있는 [毘盧遮那父母佛(一名歡喜佛)禮佛文]인데 산승이 지은 것입니다. --- 비구一圓東峰】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개신교 민영교도소 인권침해 소지 논란

"출소 후 종교의식 참여 강요" 종교 자유 막을 수도

개신교측에서 설립 추진 중인 민영교도소가 헌법상 보장돼 있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측은 내년 8월을 목표로 경기 여주군 북내면에 500명 수용 규모의 민영교도소를 건립하기 위해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목사)'를 설립했다.<본지 489호 1면 기사 참조>

본지가 아가페측이 법무부에 제출한 '교도소 설치 ·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아가페는 민영교도소 설립 목적으로 "본 법인은 기독교 복음에 입각한 교도소를 설치 · 운영함으로써 수용자, 출소자 나아가 그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화해, 피해자 및 사회와의 화해, 자신의 내면과의 화해를 통하여 진정한 교화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수용자 뿐 아니라 출소자, 가족, 더 나아가 사회 전체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또 제안서에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2년여 간 3단계에 걸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다. 1단계(12개월) 기간에서 모든 수형자는 정해진 시간동안 지지집단 프로그램(성경공부 등)에 참석해야 하며, 2단계(6개월) 기간에서 모든 수형자는 1주일에 저녁 4시간씩의 지지집단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하고, 3단계(6개월) 기간에서 모든 출소자들은 지역 사회에 있는 후원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즉 1, 2단계 기간 중 오전 6시부터 6시 30분 까지 실시되는 새벽기도회와 오후 8시부터 9시 까지 진행되는 성경교육 등의 '정신교육(영적교제 시간)'을 통해 '영적인 교제' '성숙한 인격 형성' '속죄의 봉사'를 하고, 출소 후 6개월 동안 '기독교 공동체 형성'을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3단계 "출소자들은 지역 사회에 있는 후원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부분은 출소 후까지도 강제적인 교화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 2단계에서 정신교육한 뒤 평가를 해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린다는 조항은 잔여 형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받아 모범수로 조기 출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종교 활동을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에 대해 특정의 종교 또는 사상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출소 후 교화나 교육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다.

조계종 법률전문위원 김형남 변호사는 "종교적 교화를 시킨다는 미명하에 수형자 및 출소자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돼 있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민영교도소 관련 한 관계자는 "제안서는 제안서일 뿐 이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영교도소와 달리 민영교도소는 운영 주체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된다"고 말해 제안서대로 운영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중학교 특성화 과목에 템플스테이 첫 개설

대안학교인 경기도 성남의 이우(以友, 벗과 더불어)중학교가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불교문화체험 강좌를 2학기 특성화 교과목으로 개설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초 중앙대학교가 '내 마음 바로보기'라는 3학점짜리 템플스테이 강좌를 개설한 바 있지만, 일반 중 · 고등학교에서 템플스테이를 교과목으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한국불교전통문화체험사업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강좌는 '산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스님에게 듣는 사찰과 불교' 서울 조계사, 봉은사, 화계사 등 인근사찰을 탐방하는 '인근 사찰 순례' 갑사, 마곡사, 부석사 등을 찾는 '전통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 등의 내용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된다.

9월 7일 첫 시간 '사찰과 불교' 강의를 위해 대안학교를 찾은 한국불교전통문화체험사업단 사무국장 주경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안학교의 교육관과 상당부분 부합한다"며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일반 중 · 고등학교 등의 학교교육에 템플스테이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계율 실천은 수행 과정"

현장 – '수행과 계율' 주제 선우논강

선우도량(대표 철오 · 현각)은 9월 3일 남원 실상사에서 '수행과 계율'을 주제로 제10회 선우논강을 열었다. 이번 논강의 핵심은 '오늘날 계율은 왜 안 지켜지나' '멸빈제도의 문제점' '참회 정신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등. 갈수록 흐려지고 있는 계율인식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율장의 실천적 재정립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계율, 왜 안 지켜지나

논강에 앞서 논주로 나선 해인율원장 혜능 스님은 계정혜(戒定慧) 삼학의 정신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계율과 수행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 4시간에 걸친 집중 강의를 펼쳤다. 특히, 승가의 특징, 교단에서 승가의 위치, 출가의 의미, 승가의 존재 근거로써 '계(戒)와 율(律)'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고 있는 계와 율의 의미도 명확히 했다. "계는 자율적인 윤리도덕의 개념으로 타인이 강제하지 못하는 것인데 반해, 율(律)은 국가의 법령과 같아서 지키지 않으면 제제가 가해지는 타율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또 "승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율에 의해서라기보다 개개인 스님들 각자 계의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계율을 경시하는 종단풍토를 경계했다.

이와 관련해 동화사 강주 해월 스님은 "계율이 안 지켜지는 이유는 수행자들의 출가정신 상실 때문이며, 기본교육과정부터 계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출가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흥사 수련원장 법인 스님도 "출가 후 선배스님들의 지도는 선(禪)중심의 이었을 뿐, 계율 잘 지키라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며 '계정혜'의 중요성을 개념적으로만 지도하는 종단 현실을 꼬집었다. 또, 칠곡 송림사 혜선 스님은 "편의주의, 개인주의, 형식주의가 만연한 불교계의 현실이 계율을 지키지 않는 승단 풍토를 만들어 왔다"고 진단했다.

▲수행과 계율 어떻게 조화시키나

어떻게 현실적으로 수행과 계율을 조화시킬 것 인가에 논의도 이어졌다. 혜능 스님은 "엄한 규칙만으로는 수행과 계율을 조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혜능 스님은 "계율에 대한 인식이 옅어지면서 다들 안 들키면 괜찮고, 걸리면 재수 없어서 그랬다는 의식만 키웠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혜능 스님의 이런 지적은 계와 율을 억지로 강요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의지와 종단의 계몽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상사 도법 스님도 "겉으로만 수행의 위의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계와 율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며 계율의 실천을 강조했다. 또, 실상사 화림원의 재연 스님은 "계율의 실천이 깨달음의 실천이기 때문에 계율을 깨달음으로 가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단, 계율자체를 절대시 하지 않아야 한다. 계율의 실천자체는 깨달음으로 가는 진행과정 이다"라고 주장했다.

▲멸빈제 율장정신에 어긋나

이날 논강에서는 현 종헌종법의 멸빈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 됐다. 혜능 스님은 멸빈제도는 스스로 참회하고 수행하게 하는 율장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종단의 멸빈자 문제와 관련해 재심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혜능 스님은 "율장의 정신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비구에 대한 '멸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종헌종법도 지금 시대의 율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했다.

최근 이와 관련, 영산율원장 철우 스님은 본지 인터뷰에서 혜능 스님의 주장과는 달리 "멸빈은 원칙적으로 '바라이죄(波羅夷罪)'를 범한 비구(니)에게 정당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멸빈 구제 대상자가 '바라이죄'가 아닌 종단 내부의 분란에 의한 멸빈이기 때문에 "율장대로만 해석한다면 구제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우 스님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의 종헌종법이 사회법을 모방하면서 부처님의 근본설을 잘못 반영하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는 대목이다.

조용수 기자



아테네 올림픽에 참가했던 불자 선수와 체육인들은 9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환영법회에 참석하고 불자체육인연합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아테네 올림픽 불자선수단 환영법회

2004 아테네 올림픽 불자선수단 환영법회가 9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렸다.

법회에서 한마음불자회 김인섭(레슬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마음불자회 임원 및 선수들은 아테네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오늘 법회를 계기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법회는 불자체육인연합회 창립위원회 발족선언과 축가, 기념품 및 격려금 증정, 발족 축하떡 절단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을 비롯 종단 관계자들과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경모 · 임동현 선수(양궁) 등 20여명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석했다.

한편 불자체육인연합회는 이희경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회장으로 있으며 올 가을 경 정식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해인사-獨 로쉬수도원 협력 착수

세계문화유산 보호 파트너십 합의서 조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합천 해인사(주지 세민)와 독일 로쉬 수도원이 9월 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상호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계문화유산 보호 파트너십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협력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 로쉬 수도원 관리를 맡고 있는 쉐퍼 원장, 한국유네스코 김여수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인식에서, 양측은 △사원 · 대학 · 학교 · 교육기관 사이의 협력 △세계유산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각성 촉진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5일부터 구체적인 협력 방안 협의에 착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상호 정보를 소개하고, 독일 내 고려대장경 순회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인적 · 학술적 교류의 폭을 점차 넓혀가기로 했다.

2005년 교류 계획과 관련 양측은 내년 2월 해인사가 로쉬 수도원을 방문하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에 고려대장경을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박익순 기자

'불교출판문화협회' 출범

불교 출판문화 진흥과 문서포교의 활성화를 위한 '불교출판문화협회'가 9월 20일 오후 5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제정 및 임원선출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에 만들어진 불교출판문화협회는 지난 1990년대 초 결성됐던 '불교출판인협의회'가 확대 재편된 것으로, 불교계 출판사뿐만 아니라 불교 서점과 필자, 디자이너 등 출판과 관계된 종사자들을 포괄하는 단체다. 협회는 앞으로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불교 독서인구 증대와 독서문화의 진흥, 출판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02)732-2404

여수령 기자

故 대원 장경호 거사 29주기 추모법요식



고 장경호 거사의 흉상 제막식.

(사)한국불교대원회(이사장 장세우)는 9월 5일 서울 후암동 대원정사에서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을 비롯 최명준 불교진흥원사무국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故 대원 장경호거사 흉상 제막식을 거행했다. 대원정사 1층 현관에 조성된 장경호 거사 흉상은 세로 185cm 가로 60cm로 제작됐다.

이어 한국불교대원회는 대원정사 3층 큰법당에서 월운 큰스님 초청 故 대원 장경호거사 29주기 추모법요식을 봉행했다.

故 대원 장경호거사는 개인사재를 모두 헌납해 재단법인 대원정사, 사단법인 한국불교대원회,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을 설립했다.

김원우 기자

圓

大韓佛教 曹溪宗 法住寺 門中葬

南山堂 正日 大禪師 永訣式

寂

남산당 정일대선사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세납 73세 법랍 47세로 불기 2548년 음력 7월 23일(양력 9월 7일) 새벽 5시 46분에
법주사 궁현당에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영결일시 : 불기 2548년 9월 11일 오전 11시 ■ 영결식장 : 속리산 법주사 도량 ■ 다 비 장 : 속리산 법주사 다비장

증 명 : 법전 범행 송담 진제
장례위원장 : 혜정
장례부위원장 : 이두 월성 월주 월서 월탄 설조 월룡 천룡 함주 월은 삼덕 월국 도형(선학원 이사장) 각선원장
장 례 위 원 : 성타 혜광 도영 무상 지명 진광 종상 각현 성천 장주 현일 도법 종광 성본 현각 평상 명진 진원 현중 철운 영관 대명 성돈 성덕 성대 성중 정도 도일 현법 함현 지원 현관 용담 도원 청화 각명 각원 수원 혜원 법광 원진 원행 일화 원담 진구 정문 선학원이사
호 상 : 도형
집행위원장 : 도공
부집행위원장 : 무상
집 행 위 원 : 본사칠직 말사주지 산내암주 묵산 성주 제우 진성 관명 덕암 비구니대표
도 감 : 종현 원장
병 법 : 현일
치 산 : 현법
의 전 : 정도 진구 원담 원행 정문 현림 정현 태은
섭외 및 홍보 : 동범 현진
지 객 : 말사 선원 강원대중
재무 · 영선 : 원일
접 수 : 장원
만 장 : 성천
경 호 : 도안
별 좌 : 지정
다 각 : 탈골암대중 수정암대중
상 좌 : 대현 성비 황억 황엄 황매 황운 황명 황백 황노 현명 삼현 황용 황조 황원 황영 황정 황석 황도 황엽 현중 현선 현우 현조 현수 현종 현고 현오 황학 현원 현각 현문 현봉 현공 응허 현용 현구 현암 현호 현안 현웅 현천 현해 대허 성민 현삼 현인 현진 현허 현성 현전 현능 등현 현지 현노 덕우 덕광 덕인 덕송 덕원 법광
유 발 상 좌 : 최익용 박선덕행 강승욱

■문의처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속리산 법주사
☎ 043-543-3615, 8655 / FAX 043-543-3620

남산당 정일 대선사 법주사 문중장 장례위원회

육바라밀 실천 앞장선 선지식

前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 행장

현대 한국의 대표적 선승으로 추앙받았던 정일 스님은 끊임없이 참구하는 수행자였을 뿐 아니라 육바라밀 실천을 강조했던 시대의 스승이었다.

9살 되던 해 도살장에서 죽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소의 눈망울을 보고 생사(生死)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스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어느 날 고서점에서 〈선가귀감〉을 발견하게 된다. 뜻도 잘 모르면서 수십번을 되풀이 해 읽은 스님은 이를 계기로 조계사로 출가해 1958년 금오 선사를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선가귀감' 읽고 출가

이때부터 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이 발하기 시작한다. 망월사에서 천일기도를 할 때 졸음을 쫓기 위해 매일 새벽 두 시에 일어나 냉수욕을 했다. 그렇게 오백일이 지나자 냉기가 뼛속까지 들어와 소화가 안 되고 냉병이 났다. 그 후 지나친 고행을 하거나 몸을 혹사시키는 것은 오히려 수행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절감했다.

천일기도를 회향한 후 당시 동산 스님이 조실로 있던 범어사에서 결제하던 중 장엄염불 중 '육문상방자금광(六門常放紫金光)'이라는 대목과 〈화엄경〉 '약찬게'에 나오는 '육육육사급여삼(六六六四及與三)'의 이치를 깨치게 된다.

스님은 경계가 바뀐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올바른 견처(見處)인지 점검받기 위해 전강 선사를 찾아갔다. 스님이 경계를 이르니 전강 스님은 일원상(一圓相)을 그리고는 '입야타 불야타(入也打 不也打)' 공안을 물었다. 스님이 걸망을 지고 원 안으로 들어가시는 시늉을 하자 전강 선사가 주장자로 어깨를 한 번 쳤다. 이에 스님이 '무엇을 치셨습니까?'라고 하니 전강 선사가 재차 주장자를 쳤다. 스님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답하니 전강 선사가 다시 쳤다.

이렇게 여러 번 오고간 후 전강 선사는 방법을 바꿔 '의리(義理)로 일러보소'라고 했다. '의리'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 잠자코 있었더니 전강 선사가 다시 공부를 지으라고 했다. 그때부터 그 동안 들리지 않았던 화두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바른 선지식의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무치게 깨닫게 된다.

이후 스님은 전강 선사 곁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범어사에서 3년씩 인천 용화사에서 3년, 수원 용주사에서 3년 전강 선사 문하에서만 약 10년 간 수행 정진했다. 그러던 중 홀연히 마음의 눈이 열려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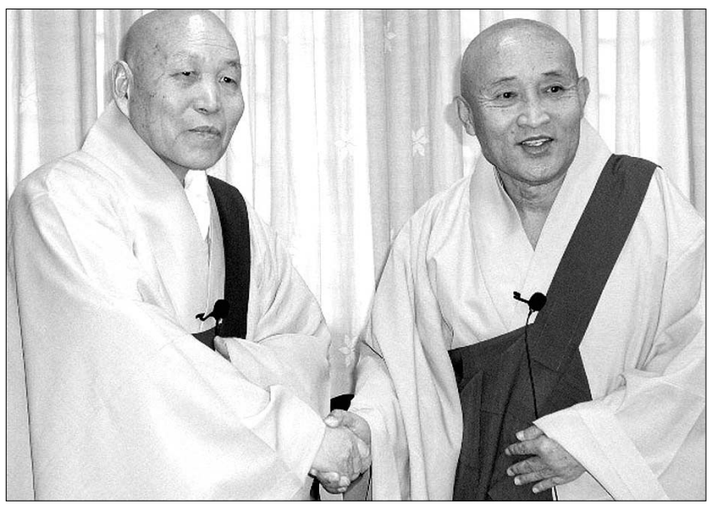
극빈자는 이슬 맺힌 갈대숲이 좋다
홀연 한 가닥 시광이 온 대지를 투과하니
만년 전사 부처님 열반이 드러났네

極貧者喜歡帶露的蘆葦叢
渾然間一縷始光透過整個大地
萬年前事佛已涅槃

안개비가 내리는구나, 안개비가 내리는구나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슬픔과 같이
전인 미답지가 궁금하느냐?
잔물결 이는 개울로 가서 세수나 하거라

霧雨下着霧雨下着
最後如告別時的傷痛
對前人未踏地掛念呼
到靜靜地泛着水波的小溪去洗一把瞼吧


법주사 궁현당에 차려진 정일 스님의 빈소에 출 · 재가자들의 조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주사= 고영배 기자


정일 스님은 조계종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등 선학원의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2001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인 정대 스님(오른쪽)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는 모습.

치열한 정진, 수행자 사표

정일 스님은 포교불사에 남다른 원력을 보이기도 했다. 1979년 서울 우이동 보광사를 설립하는 한편, 금산 선문사, 부산 보광사, 청주 충북불교문화회관 등을 건립했다. 특히 보광사 '신도교육 프로그램'은 경전을 통한 육바라밀 실천을 강조하는 스님의 지론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보광사를 처음 찾은 불자는 우선 광명진언을 하루 1000번씩 21일간 외우고 천도재를 지낸다. 그리고 <지장경> 300독, <금강경> 100독, <관세음보문품경> 50독을 마치면 천도재를 또 올린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불제자로서 몸과 마음의 번뇌를 한 꺼풀 벗었다는 뜻에서 지내는 천도재는 <선가귀감> 50독, <원각경> 300독, <법화경> 30독을 할 때마다 계속돼, 다시 한번 <선가귀감>을 50독 하는 것으로 끝난다.

스님은 생전 "우리들 머리 속에는 번뇌망상과 눈으로 익힌 알음알이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경전 한 두 번 읽어서는 그 오묘한 진리를 체득할 수 없어요. 번뇌망상의 척도로 잰 것인지 모르고 그것이 진짜인줄 알고 우쭐해 하지만 본래 모습을 보기에는 어림없지요. 수백 수천 번 경전을 읽게 하는 것은 인과(因果)를 알고 그 속에서 번뇌망상을 보고 본래 자성을 깨달아서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라며 경전 공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부처님의 법은 중생들의 생각을 가지고는 털끝만치도 건드릴 수 없는 자리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고서는 그 법을 깨달을 수 없어요. 경전을 읽고 육바라밀을 실천해 기초를 다져 화두를 드는 것도 부처님 법을 깨닫고자 하는 것이지요. 신도들에게 경전을 수백번 읽도록 하는 것은, 화두를 들어 본래 마음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 올리는 데 그 목적이 있지요"라며 육바라밀 실천을 강조했다.

즉 경전을 읽고 화두를 참구하는 것 외에도 육바라밀을 함께 실천해 불법을 체득하는 경지에까지 올라서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에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육바라밀 즉, 육화정신은 불제자들의 실천적 생활 윤리다.

선학원 발전의 주역

백련사 주지, 보광사 조실, 선학원 이사, 법주사 주지, 심우회 이사 등을 역임한 스님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선학원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2001년, 25년간 묵은 과제였던 조계종과 선학원간의 갈등을 푸는데 중심 역할을 했다. 또 선학원 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등 선학원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후학들에게는 서릿발 같은 엄격함으로 모범을 보였지만 신도들에게는 한없는 자애로움으로 대했던 정일 스님은 원적에 들기 얼마 전 시자 스님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이제 갈 곳 없는 곳을 가야만 한다."
"어디로 가신단 말씀입니까?"
"창문을 열고 자세히 살펴보거라."

不能去的也要去
您到底要去何方
打開窓戶看一看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깨달음-열반, 같은가 다른가

동화사 담선대법회-근본불교시대의 선사상과 실천


호진 스님은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열반의 성취이지만 그 이전에 깨달음 단계가 있어야 한다며 깨달음은 이해의 영역, 열반은 체험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선불교의 현주소를 조명하는 동화사 담선 대법회가 9월 4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1회 담선대법회는 현응 스님(중앙종회의원)의 사회로 '근본불교시대의 선사상과 실천'이라는 주제를 두고 호진 스님(前 동국대 교수)이 발표를 했으며, 미산(중앙승가대 교수) 재연(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스님, 조준호 박사가 논평을 했다.

호진 스님은 붓다의 수행과 최초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수행법, 붓다의 깨달음에 대한 발표를 통해 간화선과의 연관성을 규명했다.

스님은 싯다르타가 수행과정을 통해 깨달은 내용은 연기법이며, 붓다의 가르침은 모두 연기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응용이론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처님의 첫 교리와 수행법은 4성제와 8정도이며 8정도 가운데 앞의 7지(支)는 정정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순서대로 하나씩 닦아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대 따라 새로운 수행법 만들어야"

호진 스님이 발제문을 통해 주장하는 것은 불교라는 것은 사상으로서의 연기법, 수행법으로서의 선정, 목표로서의 해탈의 3요소를 포함해야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오늘날 수행법인 간화선은 이 3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외 스님은 깨달음과 열반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어떤 하나의 수행법을 최고의 수행법으로 고집할 수 없다고도 했다.

스님은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열반의 성취이지만 그 이전에 "깨달음(각, 정각)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며, 깨달음은 이해의 영역이며, 열반은 체험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교는 시대, 상황, 사람에 따라 변천됐으며, 만약 어떤 하나의 수행방법이나 교리를 고집할 때 그것은 붓다의 최초 가르침인 중도에 위배되며, 토론을 통해 새로운 수행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3명의 논사가 다양한 각도에서 반박에 나섰다.

"8정도는 순서대로 하나씩 닦아 나가야 하며, 앞의 7지는 정정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단계"라는 호진 스님의 차제수행론적 입장에 대해 미산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재연 스님은 "팔정도는 구체적인 수행법이기 보다 원론적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깨달음과 열반이 동일하지 않다는 호진 스님의 주장에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미산 스님은 "4선을 통하지 않은 연기법의 이해는 깨침이 아닌 이해 자체일 뿐"이라고 했으며, 재연 스님은 "화엄의 상즉상입(相卽相入)의 논리를 적용하여 깨달음의 내용이 해탈이며, 해탈의 내용이 깨달음"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준호 박사는 "최고의 수행법을 고집할 수 없다"는 호진 스님의 주장에 대해 "깨달음, 열반이 수행의 차제에 따른 조건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깨달음과 열반 직전의 최고의 수행법을 인정해야하며, 모든 작위 조작이 쉰 상수멸이 깨달음 열반과 직결된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동화사 담선대법회 동영상(www.buddhanews.com)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제9대 회장 취임법회

모시는글

귀의삼보하옵고

대덕스님의 법체청안과 불자님들의 가내 안녕을 합장,축원 드립니다.

1,400여개 사찰, 200만 부산불자를 대표하는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에서는
제9대 회장으로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기에
제방의 대덕큰스님들과 교계 내,외의 지도자들을 모시고 제9대 회장
취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수희 동참하시어 부산발전과 불교중흥의 새날을 함께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48년 좋은날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제9대 회장 취임법회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김도원
준비부위원장 정각, 종학, 혜총, 청봉, 일헌, 정훈, 계전, 장산, 혜륜, 금종, 지모, 월인, 의강, 범산

◆일 시 : 불기 2548년 9월 17일(금) 오후 6시
◆장 소 : 부산 영주동 코모도호텔 "충무홀"
◆문 의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전화 : 051)867-0501~3
전송 : 051)867-0504
코모도호텔 전화 : 051)469-9102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연혁
1980년 5월 13일 창립. 초대회장 범어사 주지 김덕명스님
1982년 6월 10일 2대회장 대각사 주지 김경우스님
1984년 5월 24일 3대회장 금수사 주지 이법홍스님
1986년 10월 16일 4대회장 범어사 주지 이흥교스님
1990년 11월 15일 5대회장 범어사 주지 서벽파스님
1992년 6월 20일 6대회장 범어사 주지 조정관스님
1996년 3월 29일 7대회장 범어사 주지 백성오스님
2000년 9월 17일 8대회장 범어사 주지 백성오스님
2004년 9월 17일 9대회장 범어사 주지 김대성스님 취임

※ 내빈 좌석마련 및 공양 준비를 위해 행사 전 본회 사무국으로 참석여부를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심속 자연에서 새싹불자 키워요"

경주 불국사, 불국유치원 · 성림어린이집 신축



성림어린이집 신축 회향식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 등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경주 불국사가 동천동에 불국어린이집과 성림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하여, 9월 6일 신축 회향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법장, 법주사 회주 혜정, 불국사 회주 성타,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 경주시 김성경 부시장을 비롯해 유치원생과 학부모 등 사부대중 700여명이 참석해 불국유치원과 성림어린이집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법장 스님은 "어린이 교화교육은 우리 종단의 지속적인 숙원사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2개동을 장엄하게 세운 원력보살 종상 스님께 큰 박수를 보낸다"며 치하했다.

불국유치원과 성림어린이집 신축건물은 2,846평의 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96평, 435평 규모로 각각 나란히 건립됐으며, 유치원은 8학급에 정원 240명, 어린이집은 8학급에 정원 165명 수용 가능한 규모다.

컴퓨터 · 다도실 등 최첨단 시설
친환경 프로그램 통한 인성교육

신축 불국유치원과 성림어린이집은 규모도 크지만 시설도 최상급이다. 멀티미디어 교육이 가능한 최첨단 컴퓨터실과 예절 및 인성교육에 필수적인 다도실을 갖추고, 유치원 지하에는 식당이 별도로 마련되어 교실에서 점심을 먹는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그러나 불국유치원이 자랑하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천혜의 자연환경. 불국유치원은 경주 동천도 소금강산 자락에 위치해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면서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최고의 자연생태적 교육환경을 갖추었다.

1984년 불국사 부설 성건유아원으로 시작하여 23회까지 졸업생 1,800여명을 배출시키며 명문 유치원으로 성장한 불국유치원과 97년 3학급으로 시작한 성림어린이집은 그동안 장소가 협소해지고 교육여건이 낙후되자 2003년 4월 공사를 시작해 이날 낙성법회를 가졌다.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은 "도심유치원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연의 소중함도 일깨우고 풍부한 인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불국유치원 박미정 원장도 "이곳은 마당도 넓고, 벌이랑 나비도 많아서 텃밭가꾸기, 곤충관찰하기 등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놀고 배우는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은 어린이들을 위해 학용품 280세트를 선물했다.

경주=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北 · 업체 · 실직자 모두 돕는 길

참여불교운동본부 '北어린이에 신발 보내기' 전개

부산 불자들의 따뜻한 사랑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참여불교운동본부(상임대표 혜총)는 9월부터 1년 동안 매월 1천 켤레씩의 신발을 북한에 보내는 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9월 24일 오후 4시 참여불교운동본부 개소식과 함께 1차로 신발 1천 켤레를 법타 스님에게 전달한다. 이 신발들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를 통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될 예정이다.

식량 지원을 마다하고 신발을 선택한 것은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 신발 산업이라는 것에 착안한 것. 참여불교운동본부는 신발 보내기에 필요한 비용, 2억 4천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 캠페인과 부산 지역 신발업체의 후원을 받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특히 부실한 신발업체를 살리고 노인이나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직접 신발을 만드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자체 생산 라인을 갖추면 북한 어린이들도 돕고, 부실업체도 살리고, 부산의 실직자들에겐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석삼조의 사업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1차 1천 켤레 조불련에 전달

참여불교운동본부는 북한에 신발보내기 운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산 황정사 주지 황정 스님을 단장으로 하는 '통일신발지원단'를 발족시켰다. 200명 정도의 단원들로 구성될 통일신발지원단는 앞으로 북한에 신발보내기 운동 관련 홍보뿐 아니라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나가는 데에도 주력하게 된다. 특히 불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월 2천원 후원 계좌(농협 942-17-006265 예금주:참여불교운동본부) 1만 명 모으기 운동도 전개한다. 2천원은 불자 한사람이 한 켤레의 신발을 북한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비용이다.

참여불교운동본부는 지난 4월에 발생한 용천역 사고 복구지원사업을 위해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을 상임대표로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 폭포사 주지 정민 스님 등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단체이다. 부산지역 불교발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참여, 불교이념 저변화 등의 일에도 힘을 모으고 있는 불교참여운동본부는 8월에는 부산 동명대학과 산학캠퍼스 개념의 불교캠퍼스를 개설하고, 사회복지분야 불교인재 양성에도 전력하고 있다. (051)322-7902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조선초기 왕실 제작 경전 발견

동화사 대웅전 불상이운 과정서
'지장본원경' '법화경' 등 다량

동화사에서 임진왜란 전 조선초기 것으로 보이는 경전과 고서가 다량 발견됐다.

동화사(주지 지성)는 9월 6일 대웅전 개보수를 위해 부처님을 이운하는 과정에서 높이 1m 가량의 아미타불상과 약사여래불상에서 다량의 복장 유물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복장유물은 조선 태종때 제작된 <묘법연화경> 2종류와 <법화경> <지장본원경> <능엄경> <화엄경> <다라니경> 등 불경 80여권, 구리로 된 사각 사리함에 봉안된 사리, 불자들의 발원이 담긴 사경 등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양도 방대했다.

이 가운데 <지장본원경>은 조선초기 왕실에서 세종 · 세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책 표지가 비단으로 만들어져 있어 호화로우며, 보관상태가 양호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토리 물로 물들인 종이에 은가루로 <대보적경>을 쓴 <상지은자사경> 또한 매우 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장유물을 감정한 경상북도 문화재위원인 경북대학교 문경현 명예교수는 "조선초기 고서적들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상당수 불에 타 소실된 상황에서 조선초기 제작된 경전들이 양호한 상태로 발견됐다는 것은 문화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화사는 발견된 유물들을 동화사 성보박물관에 보관하고 문화재 관계자들에게 좀 더 정확한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동화사는 정확한 감정이 이뤄지는 대로 일반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 지정문화재 10호로 지정된 동화사 대웅전은 조선후기 1727년(영조 3)에서 1732년(영조 8)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둥이 침하되면서 한쪽으로 기울어 지난 6일부터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에 들어갔다.

배지선 기자

불교에서 '해법' 찾자

(사)불국토, 노인학대 예방 워크숍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불국토가 마련한 워크숍 현장.

아들이나 딸 혹은 며느리에게 매를 맞거나 폭언, 무시 등 학대받은 노인들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00년,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책 마련과 노인학대 예방센터의 발전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혜총) 주최로 마련됐다.

9월 8일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강당에서 열린 '노인학대 예방센터의 발전방향 및 운영 전략 워크숍'은 보건복지부가 올 9월부터 전국에 16개소의 노인학대 예방센터 설치하겠다고 밝힌 시점에 열려 관심을 모았다. 특히 부산시로부터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쉼터를 운영해온 불국토가 운영 경험을 토대로 노인학대의 실상을 알리고 그 예방과 대책을 모색해나가는 자리여서 의미를 더했다.

원기연 부산여자대학 노인학대 지킴이 봉사단 단장, 박홍재 부산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혜총 스님은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 늙기 때문에 노인학대가 바로 나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노인학대 문제 예방 및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연구발표 및 토론에서는 황인옥 부산여자대학 교수, 윤기혁 부산시 노임쉼터 소장, 박남철 ISO 9001 심사원 등이 '노인학대 예방센터 도입에 따른 발전방안'과 '노인학대 예방 실천 운영 사례' '노인학대 예방센터의 효율적 운영 전략'에 대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천미희 기자

'구포왜성 · 만덕사지 복원하자'
낙동문화원, 천도재 · 학술강연

부산 만덕사(주지 혜명)는 9월 3일 구룡사에서 임진왜란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재와 구포왜성 및 만덕사지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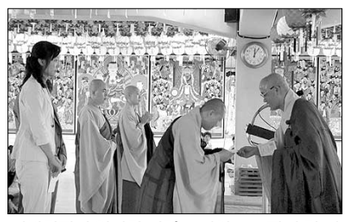
부산북구 낙동문화원(원장 백이성)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문화재 기념물로 향토역사의 상징물인 구포왜성과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만덕사지의 역사적 관련성을 검토하는 학술행사와 천도재 의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날 백이성 부산북구 낙동문화원장은 '구포왜성과 만덕사지의 향토사 재조명'이라는 발표를 통해 "현재 임시법당을 만들고 3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촉구하면서 만덕사지 역사적 뿌리 찾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안타깝다. 앞으로 만덕사지 복원을 위한 불교계와 학계의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스님 · 청소년 21명에 장학금
8일 석암장학회

대한불교 석암장학회(이사장 정련)는 8일 부산 내원정사 만불전에서 제59회 장학금 지급식을 열고 박신효(학성여고), 최웅열(부산고) 등 고등학생 7명, 김지혜(고려대), 도신 스님(중앙승가대) 등 대학생 14명에게 총 1천3백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석암장학회 이사장 정련 스님이 고등학생 및 대학생 2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부산, 도롱뇽 서명운동 본격화

도롱뇽소송 백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부산시민행동이 본격 가동한다.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 반대 비상대책위(천성산 대책위)는 9월 8일 부산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13일 열리는 도롱뇽 소송 심리에 맞춰 최종석 부산녹색연합 대표를 위원장으로 부산시민행동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3일 오후7시에는 천성산 대책위와 부산대학 법학과 경제법학회 공동 주최로 부산교대 참빛관 소극장에서 도롱뇽 소송 모의재판을 갖는다.

천미희 기자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四柱八字)는 빙의(憑依)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전생빙의연구원에서는 강의과정을 대폭 개편하여 금번 13차 전생, 빙의 워크샵을 통해 그 신비스러운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교육내용 본 교육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은 안내자료와 자료 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발송비 5000원)

빙의 치유법	◎ 빙의 진단법 → 확인 → 영가와의 대화 → 영가천도 → 천도확인 → 재접신 방지 치유법 ◎ 악령제압법, 제3자를 통해 빙의된 사람의 영가를 불러 대화를 통한 원격제령 천도법 ◎ 사례 중심의 시청각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
전생요법	◎ 전생과 현생은 천륜보다 질긴 연결고리로서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여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고통의 단서를 찾아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정통 명리학	◎ 사주로 조상 영가, 빙의 보는 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 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 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서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 "군겁쟁재요"..... 전생에 남자를 많이 만난 여자는 이생에서 내 남편 하나 없는 기생, 소실 팔자이니 이런 사주 "관살태왕자요".....
최면학	◎ 최면학 총론, 최면의 원리와 이해,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법, 최면 명상법 등

빙의(憑依)란? 흔히 귀신들림으로 말해지며 영혼이나 강력한 힘, 절대적 신의 힘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삶의 전반이나 특정 증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머리 속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 같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데 세계 보건기구(WHO)국제 질병 분류에는 이를 포제션(Poss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빙의장애현상 빙의된 사람의 경우 제3의 영적 지배 내지 간섭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의 심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 괴벽,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환청이나 환각, 악몽, 가위눌림 등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빙의 영가의 생전시 질병이나 사고 부위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한 원인 모를 불임시에도 낙태 영가를 의심해봐야 한다.

정통 명리학 30여년 동안 많은 역학자를 배출한 고은(高恩) 이화정 선생 직접 강의!!

故 이석영 선생의 사주첩경을 바탕으로 "생극제화"의 원리를 아주 쉽게 지도하여 초보자라도 명쾌하게 상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교육과정 및 일정 각 과정별 교재 및 실습 테잎 제공

과 정 명	교육비	교육시간
빙의치유•명리학 과정	100만원	총 48시간
전생•빙의•명리학 과정	200만원	총 63시간
♣10월 6일 개강 (매주 수요일 오전10시~오후8시까지) 7회 과정		



주최 : 한국 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 최면 아카데미 WWW.HYPNOS114.COM

• 전 화 : (042) 255-0734~5
• 장 소 : 대전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 (2층 본원 강의실)
대전역에서 택시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특 전] 이수증 수여
[수강신청] 전화 접수 및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출장강의 가능)
[기타문의] 초청 강연 및 개인문제 상담 별도 문의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의식개발원)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 지원)

大野 임 재 형 상담학 박사
한국생활최면실천학회 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한국교육최면학회 부회장
SBS백만불 미스터리, Vi세상 속으로, iTV,CMB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공보다 원만한 화합잔치 한마당

천태종, 상월원각 대조사기 배구대회 현장



천태종 중앙청년회 주관으로 제31회 상월원각 대조사기 배구대회가 9월 5일 단양공설 운동장에서 열렸다. 금산 삼덕사와 포항 황해사의 배구경기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하나, 둘, 셋, 와아~"

기쁨과 아쉬움의 탄성이 교차한 충북 단양군 공설운동장, 9월 5일 이 곳에서 숨막히는 승부와 화려한 응원이 펼쳐졌다. 천태종 중앙청년회(회장 남정락) 주관으로 열린 제31회 상월원각대조사기 배구대회가 그 것.

서울 관문사, 부산 삼광사, 대구 대성사, 인천 황룡사, 광주 금광사, 대전 광수사 등 전국 50여 사찰에서 참가한 2만여 명의 불자들이 소속사찰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배구,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400m 이어달리기, 족구 등 5개 종목으로 나누어 운동장 곳곳에서 진행되는 경기에 온 신경을 끌어 모으면서도 잠시도 쉬지 않는 응원으로 운동장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운동장을 누비는 선수들의 땀방울 하나하나에 담긴 천태종 불자들의 소망과 기대는 뜨거운 응원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소속사찰이 경기에서 지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더욱 열렬한 박수로 선수들을 격려하는 성숙한 응원문화를 보여줬다. 해를 거듭할수록 승부를 떠나 화합의 잔치 한마당으로 승화된 것이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쉴 틈 없이 진행된 이날 배구대회에서 자매결연 학교인 서울 문일고 배구팀을 대표로 내세운 강릉 삼개사가 우승했다.

삼개사와의 결승에서 아깝게 패한 마산 삼학사(속초고)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줄다리기는 단양 영춘지회, 단체줄넘기는 창원 원흥사, 400m 이어달리기와 족구는 칠곡 삼명사가 각각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50여 사찰 2만여 불자 참가
강릉 삼개사 우승…응원도 볼거리

운동장 가운데서 펼쳐지는 운동경기와 달리 관람석에서 경쟁을 벌인 응원상 1등에는 카드섹션과 인형극, 마당극 등을 선보인 춘천 삼운사가 선정됐다. 서울 관문사와 부산 삼광사, 대구 대성사에게는 2등상이 주어졌다.

안거기도를 잠시 접어두고 응원을 위해 새벽 3시에 출발했다는 삼운사 신도 고춘희 보살(66)은 "오늘의 진정한 승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도구를 바꿔가며 열심히 땀 흘린 천태종의 모든 불자들"이라며 흥겨워했다.

단양=박봉영 기자

호국영령 기리며 孝心 새겼다

청주성탈환 412주년 추모재
청주불교실업인회, 경로잔치

9월 6일 오전 청주 중앙공원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청주성을 탈환한 날을 기념하는 '청주성 탈환 412주년 추모대재'가 열렸다. 이 추모대재는 의병장 영규대사, 의병장 조헌 장군과 박춘무 장군, 그리고 무명의 의승병과 의병들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 청주불교실업인회(회장 윤기봉)가 매년 치러온 행사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900여 명 가운데 어르신이 700여 명. 원래 중앙공원이 어르신들의 쉼터이기도 하지만 추모재 뒤에 경로잔치가 이어지기 때문에 평상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리했다. 사실 이날 행사의 포인트는 바로 경로잔치.

추모재가 끝나자 이날 점심공양을 책임진 광덕사(주지 일봉) 관음회 회원들의 손길이 바빠졌고, 국수와 떡을 먹기 위해 어르신들의 긴 행렬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경로잔치에서 국수를 먹고있는 어르신들의 모습.

"고맙지 뭐. 이렇게 노인들 대접하느라고 젊은 사람들이 고생이지."

가톨릭 신자라는 김종완 할아버지(70 · 청원군 남이면)는 절에서 점심까지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연신 웃음을 지었다. 그 옆에 있던 기독교 신자라는 김용희 할머니(78 · 청주시 탑동) 역시 "불교신자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 복 받을 거여"라며 국수를 휘휘 저어 맛있게 먹었다.

진천 대흥사 신도라는 임택심화 보살(77 · 청주시 탑동)은 "친구들이랑 오늘 처음 왔어, 절에서 점심도 주고, 노래도 한다고 해서…, 불교신자들이 좋은 일 많이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라며 같이 온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국수와 떡, 과일과 음료. 차린 것은 이것이 전부지만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진수성찬인 모양이다. 아마도 어르신들을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인 듯 했다.

점심공양이 끝나갈 무렵 청주 민속공연단인 '우리가락 좋을씨고' 공연이 이어지자 몇몇 어르신들이 흥에 겨운 듯 무대 앞으로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춘다.

행사를 주관한 청주불교실업인회의 이대성 사무국장은 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싸 드리느라 와이셔츠가 다 젖었다.

"할머니, 너무 욕심내시면 안돼요, 다른 분들도 드셔야죠." 빙그레 웃으며 건네는 한마디에 몇몇 어르신들이 멋쩍어 한다.

하지만 이내 손을 맞잡고 "건강하세요" "고생했지"라며 인사를 나눈다.

간단한 행사였지만 스님과 불자들 그리고 시민과 어르신들은 잠시나마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중앙공원의 하루는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채워졌다.

청주=한명우 기자

"개인·직장 발전을 위하여"
전남경불회, 대흥사서 토론회

전남경찰불교회(회장 이병욱 · 장흥경찰서장) 산하 26개 경찰서 불자회원 120여명은 9월 4~5일 양일간 해남 대흥사에서 합동수련회를 갖고 '경찰불교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경찰불교회 목적을 '신행활동을 통한 개인과 직장발전'에 두고 '포교와 사회봉사 실천'을 바람직한 활동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정기법회, 사찰순례 동참 △불교서적, 불교간행물 구독 △소외된 이웃위한 봉사활동 전개 △직장내 홍보용 책자 비치 △불자회원 확보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이어 경찰불자들은 새벽숲길 걷기, 북미륵암 마애부처님 친견, 참선, 천운스님 초청법회를 갖고 회향했다.

회향식에서 이병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지역 경찰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행을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신심을 높이고 불자경찰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기위해 매년 합동산사수련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안산 보문선원

복지불사가 포교의 코드

전문 지도 스님 초청 어린이법회 열어
지역 소외계층 위한 사회활동 열성

"우리절에서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부처님처럼 생각합니다"

경기도 안산 보문선원 주지 보림 스님은 정말 어린이 포교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10년동안 일선에서 어린이 포교를 위해 지도법사로 활동한 것도 모자라 4년전 천진 불심들을 위해 안산에 둥지를 틀었다.

"요즘 같이 경제가 힘들때는 도심 포교 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적지않게 들어가는 유지비 때문에 몇 년 해보고 모두들 포교당 문을 많이 닫지요. 특히 이곳 안산 지역은 기독교 세가 강한 지역이라 더욱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주 일요일 마다 만나는 새싹 불자의 눈망울을 보면 다시 힘을 얻지요."

보림 스님의 어린이 포교에 대한 원력은 생각에만 그치지 않는다. 비좁은 포교당에 어린이 법당을 따로 만들고 피아노와 4대의 컴퓨터를 갖춰 놓았다. 벽에는 초등학교 교실처럼 법우들의 동정란과 알림게시판 등을 예쁘게 꾸며 놓았다.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와서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어린이 법회의 지도도 포교 전문인 무진 스님(동국대 학인)을 서울에서 초청해 봉행할 정도로 열성적이다.

보림 스님의 도심 포교는 비단 어린이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돋보기 나눠주기 캠페인'이다. 안산시 22개동을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한달에 한 번씩 돌며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3백명의 어르신들에게 돋보기를 나눠 준다. 이 운동은 시작한지 벌써 7년이나 됐다.

"눈이 침침해 신문이나 TV보기도 힘들어 하신 분들이 시력 검안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돋보기를 선물하면 너무 좋아 하세요. 세상이 환하게 보인다고 기뻐하시면서 합장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면 제 눈이 시력을 되찾은 것처럼 환희심을 느낍니다."

이외에도 스님은 요즘 또 하나의 포교 불사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안산지역의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의 자녀들이 마땅히 교육받을 시설이 미비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보림 스님은 '외국인 영어마을'과 '대안학교' 창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적을 초월해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가르침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어린이 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자는 취지다.

"도심 포교당이 포교의 정체성을 찾고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 포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복지 불사 10년에 대한 원력을 세워 안산 지역이 부처님의 자비법음 속에 불국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031)401-2540

김주일 기자



안산 보문선원 주지 보림 스님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돋보기를 나눠주고 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현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한국 불교 통신대학. 대학원

대학장 활안 (한정섭) · 대학원장 호암 (김정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학인모집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4년 8월 31일 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김진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한국불교금강선원
나란다 삼장 불학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찬란한 역사…활발한 포교…생활불교 활짝

복지·문화·봉사에 출·재가 한마음, 범종단 연합체 필요


학성선원 시민선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불자들.


정토사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정토공양'은 지역민들의 휴식처다.

경남 울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울산지역 불교를 돌아보며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말이다. 울산지역의 불교는 사방에 흩어진 구슬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삼국시대 신라의 중심지였던 울산답게 동축사, 문수사, 내원암, 백양사, 석남사 등 신라고찰들이 신라불교의 숨결을 잇고 있고, 도심엔 포교와 수행에서 제 몫을 다하는 사찰들이 산재해있다. 말 그대로 구슬이 서 말인 곳이 울산이다. 인구 100만인 울산시의 4개구 1개 군 안에는 수행과 포교의 두 바퀴를 굴리는 사찰들이 보석처럼 박혀있다.

비구니 스님들의 구도열정과 수행 향기 드높은 언양 석남사는 지역민들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열며 포교에도 소홀하지 않은 도량이다. 2002년에는 울산시립 노인요양원을 위탁받아 노인복지분야에도 뛰어들었다.

가지산 자락에 위치한 석남사처럼 마골산 동축사, 문수산 문수사, 대운산 내원암 등은 '이름난 산에는 이름 난 절이 있다'는 명산명찰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울산 불자들의 기도처로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도심포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보배는 단연 정토사. 불교 음악 인재 양성과 찬불가 보급을 위해 붓다어린이합창단을 설립, 매년 발표회를 열고 있으며 정토불교대학은 울산 불교 교육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토불교대학 동문들과 청년회원들은 각 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으로 자원봉사상을 휩쓸 정도.

1992년 설립돼 울산 불교교육의 선두주자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울산불교교육대학도 빼놓을 수 없다. 24기생을 맞은 불교교리 교육 외에도 시민들을 위한 다도교실, 국악대제, 청소년 여름불교학교 등을 개최하며 울산 불교의 교육과 포교에서 만형 노릇을 해왔다.

수행 도량으로는 학성선원을 꼽는다. 향곡, 석암, 월산 스님 등 여러 스님들이 주석했던 학성선원은 울산 수행의 핵으로 자리 잡았으며 기도와 참선이 24시간 이어지는 도량이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의 수행열기도 눈부시다. 다른 사찰에 비해 거사들의 신행활동 비율이 높고 어린이, 학생회, 청년회 법회 등이 활성화돼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생활 속의 실천 수행이 두드러진다. 한글대장경과 불교, 아동, 일반 대분류로 약 2천 3백 권의 도서를 갖춘 도서관을 운영하며 불자들의 불서 읽기 운동을 선도하고 있기도.

대중 포교로 급부상하는 천태종 정광사도 주목할만하다. 시민화합한마당, 경로잔치,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과 함께 10월에는 예술제를 열며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이밖에도 태고종에서 울산양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남사 무료급식소 수자타의 집과 월봉사 룸비니 유치원, 해남사 동국유치원 등 미래 교육 불사도 한창이다.

또 하나 울산 불교의 영롱한 구슬은 울산시불교신도회. 울산불교는 재가자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76년 창립된 울산시불교신도회는 불교합창제, 소식지 <불향> 발행, 의료봉사 등 상대적으로 미약한 스님들의 대사회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 불교는 92년 광역시로 승격, 한국의 7대 도시 중의 하나로 성장한 울산광역시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까지 올라서진 못했다. 지역민들을 위해 불교계가 펼치고 있는 활동들은 사찰별로, 또 지역별로 국한돼 있을 뿐, 울산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축제나 문화행사를 갖고 있진 못하다. 그나마 매년 열고 있는 봉축 행사도 이렇다할 특색을 갖지 못하고 불교의 힘 결집에서도 미흡한 실정.

저력이 든든한 울산불교가 껑충 뛰어오르지 못하는 원인으로 종단, 종파를 초월한 연합체 부재를 꼽는다. 현재 조계종 사찰 모임인 울산사원연합회가 있긴 하지만 200여개에 이르는 사찰들을 망라할 수 있는 연합체는 없다. 울산불교의 도약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범종단, 종파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흩어진 구슬 꿰기'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심 깊은 불자들과 각 사찰들의 역량을 모아내는 중심축을 갖자는 것이다.

유달리 통도사 말사가 많아 본사인 통도사가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데다 개개의 사찰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은 이미 사찰별 활동들에서 충분히 검증된 상태라 '구슬 꿰기'만 성공하면 울산 불교 발전의 가능성은 증폭될 전망이다. 현재 통도사를 주축으로 울산사원연합회, 울산광역시불교신도회 등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울산불교방송국 개국 추진 사업과 울산 불교회관 건립 등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사찰이 진행 중인 포교와 수행 프로그램을 울산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묶어내는 역량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울산 불교의 산 역사

눌암 스님



법륜사 주지
울산사원연합회장

울산 불교의 살아있는 역사, 공심(公心)으로 불교일을 하는 스님으로 통하는 눌암스님. 스님은 2000년 통도사 동울산 포교당인 법륜사 주지로 부임하기 전 40대 젊은 시절을 울산불교 중흥에 바친 장본인이다. 울산불교교육원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초대 이사장을 지내는 등 울산불교교육의 깃발을 꼽기도 했다.

76년 지역 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종교인 연합모임을 만들어 종교화합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운동에도 적극 참여, 앞선 사고와 실천가로 인정받아 왔다.

신라 고찰 중창 발원

월파 스님



문수사 주지

신라 고찰 문수사가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다. 월파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이래 대웅전 삼존불 조성, 보조법당 신축 등 크고 작은 불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불사는 무료급식을 통한 복지 불사. 2000년부터 도량에 오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있다. 처음엔 일요일만 하던 것을 이제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평균 200여명의 허기를 채워주고 있다. 통도사 주지, 경남불교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월파스님은 문수사 중창 불사를 통해 신라 불교 맥을 울산에 되살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동구 불교발전 이끄는 주역

동구 불교는 동구사원연합회를 중심으로 화합과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있다. 그 중심에 동파스님이 있다. 조계종, 태고종 등 종파를 초월한 연합체인 동구사암연합회를 창립해 이끌고 있는 스님은 산사음악회, 청소년 장학금 전달, 불우이웃돕기 등의 행사를 꾸준히 펼쳐왔다.

동파 스님



대원사 주지
태고종 울산교구 종무원장

현대중공업에 불자회를 새롭게 만들어 동구 불교 발전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것이 스님의 원력. 빠르면 연내에 현대중공업 불자회가 창립 예정.

교육 불사 · 대중포교 역점

도정 스님



정광사 주지

천태종 울산지부 정광사 주지 도정스님은 올 울산 4·8봉축위원회 봉행위원장으로 울산불심을 모아내는 중심에 섰다. 이는 범 종단, 종파적 연합체가 없는 울산에서 정광사의 위상을 대변하는 일. 또한 포교, 교육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님은 연내에 정광불교대학을 개설, 체계적인 신도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7개 반을 운영중인 유치원을 비롯,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 등 미래불교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울산 동구지역 포교 거점 확보를 위해 동구포교당 개원도 추진 중이다.

불교 교육 · 자원봉사 선봉

덕진 스님



정토사 주지

울산 포교 1번지 정토사.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울산에선 최초의 인가를 받은 정토불교대학은 울산지역에서 가장 많은 포교사를 배출하는 요람이다. 특히 울산지역 45명의 포교사 중 대부분이 정토불교대 출신이며 군포교, 봉사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역들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정토불교대학 동문들은 무료급식소인 정토공양원 운영에도 후원과 봉사로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우리말 의식집><우리말 발원문> 등을 펴내 불교 저변확대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영화 제작자로 문화포교 앞장

성본 스님



해남사 주지

직접 기도하고 수행하는 본보기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기본에 충실하려 노력한다. 스스로 비승비속처럼 살아왔다고 털어놓는 스님은 동승 제작자이고, 신촌 뮤직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영화나 음반 제작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온 스님의 사고는 젊고 톡톡 튄다.

불전함을 터는 아이를 발견, 딱해서 도와주기 시작한 이후, 자꾸 불쌍한 인연이 보여 아이들도 여럿 키웠다. 울산 최초의 유치원 동국유치원이 낙후된 시설 탓에 날로 침체되는 것이 안타까워 유치원 부지를 마련,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신라 3층석탑 복원 추진

선혜 스님



동축사 주지

절 앞까지 차가 올라가지 않는 몇 안 되는 산사 중 하나인 동축사. 그러나 한겨울, 한여름 이곳을 오르내려야 하는 신도들에겐 고행의 길이다. 신도들의 고충을 들으며 선혜 스님은 동축사 재정비를 발원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종각, 대웅전 개보수 등 1차 정비에 이어 2차로 신라시대 삼층석탑 복원을 앞두고 발굴팀이 석탑의 위치를 잡기 위해 발굴에 한창이다.

주 5일제를 맞아 가족단위로 자연과 더불어 수행하고 휴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할 생각이다.

"수행이 곧 포교요 조직"

현진 스님



학성선원 주지

학성선원 주지 소임을 맡은 3년 동안 현진스님이 한 것은 신도회 조직을 모두 없앤 것. 포교는 수행에서 저절로 이뤄지며 수행이 조직력을 대신 할 힘이라고 믿는 까닭이다. 일체의 외부활동을 거부하고 오로지 수행과 기도만을 강조하는 스님은 절과 기도를 같이하며 신도들의 공부를 지도한다.

학성선원 앞 부지를 매입해 유치원, 법당, 선방 등을 갖춘 복합 수행도량 건립을 발원하고 있는 현진스님은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불교를 지향하고 있다.

시대 주도하는 불교 지향

종선 스님



내원암 주지
울산 남구노인복지관 관장

종선스님은 신부와 목사 등 종교를 초월한 도반들이 많은 스님이다. 매년 가을 내원암에서 열리는 산사음악회에는 어김없이 이 도반들이 무대에 올라 종교를 초월한 하모니를 들려준다. 월드컵 개최를 기념하며 원불교, 불교, 기독교, 성공회 성직자들이 선수로 뛴 종교인 화합 축구대회를 연 장본인이기도 하다. 복지에 대한 열정도 남다르다. 남구노인복지관 관장으로 노인복지분야에 뛰어든 스님은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장례문화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행풍토 조성 일념

총림 외 단일 비구니 도량으로서는 최고 많은 수행승들이 공부하는 도량, 수행하는 비구니 수좌들로 한국 불교의 정수가 살아있는 도량이 석남사다.

영운 스님



석남사 주지
울산사원연합회 부회장

이른 새벽, 이슬 머금은 마당 쓸기를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영운스님. 선방 수좌로 정진하다 1998년 주지 소임을 맡은 영운 스님은 재가자 한사람이 선방 수좌 한사람을 후원하는 선립회를 결성해 승가와 재가 모두에게 신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량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 휴식공간으로 개방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생활불교 실천에 힘써

혜안 스님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생활 불교, 실천불교를 지향하는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의 수행분위기는 울산에서 활동하는 많은 재가 지도자들의 수행에도 영향을 줬을 정도. 선방이 따로 있어 하안거에는 평균 6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수행열기가 뜨겁다. 특히 도서관은 갈 곳이 마땅찮은 동네 아이들과 주부들의 공부방, 사랑방으로 불연을 맺는 고리가 되고 있다. 개원부터 지원장을 맡고 있는 혜안스님은 사부대중들의 힘을 결집해낸 5년간의 불사를 통해 현대적 시설을 갖춘 수행 중심도량을 세웠다.

재가자의 역량 결집

손창길



울산광역시 신도회장

대창기계기술 대표인 손 회장은 산재를 막기 위해 기도를 하면서 불교에 귀의, 울산 지역 크고 작은 불사에 보이지 않는 보시를 하고 있는 신심 깊은 불자.

청송교도소 교화 활동 재정지원, 울산 의료나눔회 지원, 스님들을 위한 의료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불교회관과 울산불교방송 건립에도 스님들과 발을 맞추며 울산 불교의 양축을 형성하고 있다.

동남아 불자들의 법당 마련 도와주세요

사연 소개된후 성금 답지…아직은 부족

미얀마 한국선원 건립추진본부 구성



지난 5월 의정부 모 사찰에서 열린 미얀마선원 개원식에 참석했던 동남아시아 스님들과 불자 노동자들의 모습.

"동남아시아에서 온 불자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법회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법당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세요"

동남아시아 불자 노동자들의 의지처인 미얀마선원을 운영중인 주지 산디마 스님의 안타까운 사연이 본지 487호(8월 18일자)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소개된 후 1500만원이 모금됐다.

최근 익명을 요구하는 한 비구니 스님이 1,000만원을 쾌척했으며, 십시일반 동참한 불자들의 정성도 500만원이나 된다.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미얀마선원장 산디마 스님은 (가칭) 미얀마 한국선원 건립불사 추진본부를 최근 구성하고, 본격적인 모금운동에 돌입했다.

미얀마 한국선원 건립불사 추진본부 사무총장 도관 스님은 "미얀마 산디마 스님이 한국에 와서 동남아 노동자들에게 불교 신앙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접하고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며 "동남아 불자들이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도록 한국불자들이 적극 도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공간에도 후원움직임이 활발하다. 네티즌들은 불교계 홈페이지 게시판에 미얀마선원 돕기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얀마선원은 현재까지 들어온 1500만원의 성금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공간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직장을 잃고 선원에 몸을 의탁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벌써 10~13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1500만원의 성금으로 법당을 조성하고, 생활용품를 구입한다고 해도 전세보증금 3000만원정도가 부족한 상황.

미얀마선원은 한국의 독지가가 3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2~4년 계약한 뒤, 계약이 끝나면 되찾아가는 방식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미얀마선원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온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스님은 "산디마 스님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위가 불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단속으로 불시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조계종단 명의로 미얀마선원을 개원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미얀마선원 주지 산디마 스님은 "선원은 갈 곳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쉼터기능과 불법을 배우는 법당으로 운영 하겠다"며 "그동안 어렵게 지탱해온 미얀마선원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한국불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디마 스님은 1998년 한국에 입국한 뒤 순천 송광사와 제주 남국선원에서 여러 차례 안거에 드는 등 2년간 한국불교를 공부했다.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지처를 찾지 못해 개종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2000년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에서 40평 규모의 한옥을 임대하여 미얀마선원을 개원했다. 이후 운영상 어려움으로 서울 암사동으로 미얀마 선원을 옮겼다가 올해 5월부터 의정부 모 사찰에서 미얀마선원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간을 빌려준 사찰이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미얀마선원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의 02) 734-6401, 031)821-5302. 후원계좌: 조흥은행 983-01-003852 예금주 산디마

김원우 기자



11년간 무기수 29명과 자매결연한 최태향 보살.

11년째 무기수들의 엄마노릇

대구교도소 교정위원 최태향 보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중인 재소자들, 만나보면 참 순수하고 여린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한순간 불쑥 올라오는 마음을 못 다스려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93년부터 대구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1년째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재소자 29명과 자매결연을 한 뒤 보살펴 온 최태향(64 · 대구 교도소 교정위원회 복지분과 회장)보살은 이렇게 무기수들의 마음을 깊이 있게 하나하나 읽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주봉이는 문맹자였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통과하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답니다. 나도 이제 주봉이 에게 중국어를 가르쳐달라고 할 겁니다."

자식을 대하듯 서슴없이 무기수인 김주봉(54)씨 이름을 부르는 최 보살은 5년 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참고서를 몽땅 사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이끌어준 장본인이다.

최 보살이 자매결연한 재소자와 만날 수 있도록 교도소로부터 할애받은 시간은 한 달에 한번, 2시간이 전부다. 최 보살은 이 날이 되면 떡, 과자, 사탕 등을 가득 싸들고 면회를 간다. 이날 재소자들은 모처럼 자유롭게 속마음을 내어 보이며 온갖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하고 둘러앉아 노래도 부르고 때로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도 한다.

"죽을 때까지 내 몸이 남아 있는 한 방문을 계속할 것"이라는 최 보살은 재소자들이 오직 이 날만을 기다리며 보내는 것을 잘 알기에 교정위원으로 활동한 11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걸러 본 적이 없다.

또 교도소 내 초파일 행사, 체육대회, 명절, 수계법회에도 열심이다. 명절이 되면 재소자들을 위해 내의를 준비하는가 하면 재소자들이 아프면 약도 사다주고, 치료비도 틈틈이 대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담자로서 역할이다. 대부분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사랑 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만큼 의논할 상대도 없다. 최 보살은 이들의 속마음 하나하나를 들어주고 이해해준다. 때로는 어머니처럼 누나처럼, 때로는 엄한 선생님이 되어 따끔하게 나무라기도 한다. 항상 마음을 잘 다스리며 하심하고 자족할 줄 알라고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최 보살과 인연을 맺었다가 출소한 재소자들은 하나같이 사회적응이 빠르다.

최 보살은 교도소 내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불자와 스님들의 수가 너무 적고 미약하다고 안타까워 한다.

대구 교도소의 경우 3,000여명의 재소자 중 약 700여명이 불자다. 그러나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스님 7명에 재가자 20여명이 전부다. 또 자매결연한 사람도 불과 7명뿐이다.

"돌아보면 크게 도와준 것은 없어도 어떻게든 안 빠지고 활동해 온 지난 11년간의 삶이 보람으로 남는다"는 최 보살은 "육바라밀 중 첫 번째가 보시인 만큼 좀더 많은 불자와 스님들이 동참하여 교도소에 복역중인 여리고 착한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부처님의 자비를 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 배지선 기자

> "불행한 환경서 자란 순수한 사람들 불법 전하는 이들 드물어 안타까워"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나눔의 손잡기 성금

호놀룰루 장지원보살– 200달러(21만원)
청주 광덕사 일봉스님– 33만8천890원

총누적금액 22,443470원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헌혈증 기증

대전 용화선원 주지 정일 스님이 헌혈증 5장을 보내왔다.
파주 전차대대 박동재 하사를 비롯 군장병 전호승 조만재 이종환 하명호씨등 5명이 헌혈증 5장을 본사에 보내왔다.

쌀 기증

서울 동대문구 장안사에서 쌀 2박스(1kg들이로 포장된 공양미 20개)를 포장해 본사에 보내왔다. 이 쌀은 경남 양산에서 수행중인 정목 스님에게 전달했다.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 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종정 스님에게 예경하는 사부대중.


불자(拂子) 봉정.

종풍선양의 주장자 세우니…

태고종 제17세 종정 혜초 스님 추대법회 현장

'이 보다 더 좋은 날이 있을까.'

태고종 종도들에게는 9월 6일이 그런 날이었다. 지난 6월 열린 원로회의에서 태고종 제17세 종정으로 추대된 혜초(慧草) 스님이 취임하는 경사로운 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전과 달리 전통불교의식으로 추대식이 치러져 불교계는 물론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법회 장소인 서울 신촌 봉원사는 불보살의 명호가 적힌 번(幡)과 종이꽃, 각계에서 보낸 화환으로 연화세계를 연출했다. 도량 구석구석까지 붉은 가사를 수한 스님들과 불자들이 들어찼다. 어림잡아도 2천여명에 달하는 대중이 이른 아침부터 종정 스님의 취임을 기다렸다. 추대법회를 지켜보기 위해 이른 새벽 집을 나섰다는 김선덕화 보살(54 · 인천시 남구 주안동)은 "태고종의 최고 어른을 모시는 법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며 기대를 표시했다.


태고종 제17세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 태고종 원로 · 중진 스님들이 선 · 조사와 역대 종정 스님들에게 종정 취임을 고(告)하고 있다.


종정 법좌에 오른 혜초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을 내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경축메시지

오전 10시 30분 법회를 알리는 범종소리가 사바세계로 퍼져 나가고 삼천불전에서 선 · 조사와 역대 종정 스님들에게 바치는 헌다(獻茶)의식을 시작으로 종정 추대법회가 시작됐다. 무형문화재 제50호로 봉원사 영산재보존회의 집전으로 진행된 다례의식은 역대 종정 스님들에게 취임을 고하는 특별한 자리. '전통종단'을 자임해 온 태고종에서 전통 그대로 이어온 의식이다.

영산재 전수교육조교 일운 스님은 "종정 추대법회와 같은 특별한 법회나 행사가 있을 때 행하는 다례의식은 영산재의 일부인 종사 영반(宗師 靈飯)으로, 법회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사라져 지금은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며 "전통불교의 맥을 잇고 있는 태고종의 정통성을 엿보게 하는 의미 있는 의식"이라고 소개했다.

혜초 스님은 곱게 차려진 다례상에 정성들여 우린 차를 올린 뒤 선조사 스님과 역대 종정 스님들에게 3배로써 종정 취임을 알렸다. 태고종 원로의장 일우 스님, 총무원장 운산 스님, 중앙종회 의장 인공 스님, 중앙사정원장 법장 스님 등 함께 자리한 2백여 원로 · 중진 스님들도 종정 혜초 스님을 따라 배례했다.

전통불교의식 따라 진행

종사 영반에 이어 큰스님을 법회장까지 모시는 '종사 이운(宗師 移運)'이 진행됐다. 25조 가사를 수한 혜초 스님이 시자의 안내를 받으며 삼천불전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혜초 스님을 선두로 긴 행렬을 이룬 원로 · 중진 스님들이 2열로 줄지어 선 스님들을 지나 상단에 올랐다.

혜초 스님이 법석에 올라 원로의장 일우 스님으로부터 종단의 큰어른을 상징하는 주장자와 불자(拂子)를 건네받았다.

해방이후 조선불교 1세 교정 한영 스님, 한암 스님, 만암 스님, 묵담 스님, 대륜 스님, 보성 스님, 백암 스님, 덕암 스님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종통(宗統)이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사부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반배와 박수로 최고 권위의 상징인 종정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혜초 스님은 좌중을 둘러본 뒤 주장자를 높이 들어 "태고의 맑은 바람이 오탁악세에 드날리니(太古淸風揚濁世), 만고의 부처님 광명이 길이 멸하지 않으리라(萬古佛光永不滅)"는 게송을 읊고 "태고종도와 불자들은 이 시대 중생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새 불교를 구현하는데 가일층 정진하라"고 법문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종정 혜초 스님의 당부를 받들어 "혜초 종정 예하를 정점으로 하여 종도의 화합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대승교화종단으로서 종풍을 선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혜초 스님의 종정 취임법회는 각계인사들의 많은 축하를 받았다. 한국불교는 물론 사회의 큰스승을 모시는 자리이기 때문.

노무현 대통령은 "철저한 자기수행으로 불자들의 귀감이 되어 오신 혜초 종정스님께서 앞으로 종단의 더 큰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을 기대한다"는 경축메시지를 발표했다.

"새불교 구현 위해 정진" 법어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지하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우승 총지종 통리원장, 보문종 총무원장 법종 스님 등 각 종단 지도자는 물론 이부영 열린우리당 상임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의 축하메시지도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 각 종단 대표들은 "태고종 최고어른으로 추대된 혜초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광야의 사자후처럼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추대법회에 참석한 2천여 대중은 "모든 존재들과 이 공덕을 나누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한다"고 서원했다.

종정 혜초 스님은 임기 5년동안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에 주석하면서 율원 설치를 비롯해 총림으로서의 사격을 갖추는데 진력해 나간다. 아울러 태고종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태고종의 종지종풍 확립과 후학들의 수행지도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글=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법회에 앞서 부처님께 배례하는 혜초 스님(가운데).


선 · 조사 및 역대 종정스님들에게 올리는 헌다.


혜초 스님과 태고종 원로 · 중진 스님들이 다례의식을 마치고 종사 이운을 기다리고 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10월 20일 출발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순례)
₩650,000원 (중국비자비, 가이드 기사팁 불포함) 10월 10일 마감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일 자	주 요 일 정
20일	09:35 항공편으로 인천출발 / 북경도착 북경 최대 사찰 담저사 순례 야간 열차로 낙양으로 이동
21일	소림사, 탑림, 백마사, 용문석굴 순례
22일	항공편으로 북경 이동 천안문, 자금성 및 왕부정 거리 관광
23일	만리장성 관광, 옹화궁(라마교사원), 와불사
24일	천진으로 이동 진천페리 승선 / 출발
25일	인천 도착 해산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 (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옹화궁)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20,000원
3. 천진, 북경, 오대산 7일 (운강석굴, 화엄사, 현통사)
₩6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85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85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80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80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17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새벽 출근, 한밤 퇴근.' 직장인들은 피곤하다. 하루 종일 일에 치이고, 몸과 마음은 늘 쫓기며 산다. 잠시 틈이라도 나면 쉬기도 바쁘다. 여유롭게 책장 넘기는 것, 아무래도 힘들다. 직장에서는 주위로부터 꽂히는 '눈총'이 만만치 않고, 집에서는 마음 내기도 어렵다.

일터불자들도 쫓기며 살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틈틈이 시간을 쪼개 불서를 읽는다는 점이다. 출·퇴근과 점심시간, 잠자리 들기 전 등 틈만 나면 불서를 집어 드는 불자들이 적지 않다. 매일 매일 '종이거울'에서 마음을 본다는 일터불자들. 이들의 '불서 읽기' 노하우를 들어보자.

여름특별기획-일터불심 10대 화두

① 일터, 마음 닦는 수행처
② 직장 동료 · 상사 · 후배, 모두를 도반으로
③ 아직도 출퇴근 시간에 졸고 있습니까?
④ 하루 5분 수행, 인생이 달라진다.
⑤ 스트레스, 불교에 치유법 多 있다.
⑥ 술과 담배 그리고 과식은 신행의 적
⑦ 불교 제대로 믿으면 저절로 부자 된다
⑧ 한달에 한번 집중수행 필요
⑨ 틈틈이 읽는 불서, 인생을 풍요롭게
⑩ 인터넷은 신행정보의 보고

손에 든 불서 한권 인생의 보배창고

틈틈이 읽으며 지식 쌓고 지혜 길러
책벌레 되기 의외로 쉬워…"지금 도전을"



틈틈이 읽는 불서는 일터불자들의 신심을 키우는 지혜창고가 된다. 사진은 강원도 춘천시청 도반회 회원들이 퇴근후 함께 불서를 탐독하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날카로운 첫 키스에 눈이 멀다(?)'

한국은행 불교회 간사장 하용이 국장(52 · 자운). 금융계 투신 29년간 <금강경>을 늘 끼고 생활했다. 1968년 고등학생 시절 처음 접한 <금강경>.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는 사구게 처음 구절은, 만해 스님이 남긴 '님의 침묵'의 한 구절처럼 잊지 못할 불교의 첫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하 국장을 '독서광'으로 만들었다. <천수경>, <법화경>, <초발심자경문> 등의 경론은 기본, 일주일에 한번은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서울 종로구)에서 신간 서적을 구입해 족족 다 읽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였다. 부처님의 생생한 원음을 경전에서 듣고, 세상 보는 눈을 넓히고 싶어서다. 또 일터에서 불교식 처세술을 찾기 위해 불서를 탐독했다.

틈틈이 읽은 불서는 하 국장에게 든든한 '지혜창고'가 돼 주었다. 특히 '스님의 설법이 어렵다고 생각(懸崖想)을 내어 물러나는 마음을 내거나, 자주 들었다는 생각(慣聞想)을 지어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초발심자경문> 경구는 직장인으로서 생활하는데 훌륭한 지침이 됐다. '지레 짐작 일을 두려워하거나 하지도 않고 안 된다'는 선입견을 날려버리게 했다. 덕분에 하 국장은 직장 선 · 후배는 물론, 동료간 화합을 이끄는 리더십을 얻게 됐다. 80년부터 4년간 잇따라 3명의 한국은행총재비서를 맡을 때 신임을 받았던 것도, 92년 급여과장 시절 한국은행 강성노조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시킨 것도, 국장이 되면서 부하직원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받게 된 것도 여기서 비롯된다.

"불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순간, 돈을 꺼내어 쓸 수 있는 지혜의 금고입니다. 일이든 수행이든 문제가 생겨도 틈틈이 읽어놓은 불서는 언제나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었으니까요."

성철 스님의 <영원한 자유의 길>을 요즘 읽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 작전계 신종기 경위(41 · 대광)도 불서는 자기반성의 '거울'이라고 말한다. 바쁜 일터불자들에게 불서는 법당도 스승도 된다는 것이다. 신 경위가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해 '불서의 세계'로 빠져드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렇게 불서 읽기를 틈틈이 해온 결과, 신 경위는 최근 1주일간 진행된 민 · 관 · 군 합동 을지훈련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큰 힘을 얻었다. 빡빡한 훈련 일정으로 집에는 못 들어가고 일선 파출소에서는 수십 통씩 문의전화가 걸려올 때면, 짜증과 피곤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그 순간, '웃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라는 <법구경>의 경구가 머리를 번개같이 스쳐갔다. 그리고 반성이 들었다. '오죽 답답했으면, 내게 전화해서 물어보겠냐' 싶었다.

"소중한 경구나 구절을 차근차근 마음에 담아두려고 노력했지요. 그러다보니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갖가지 일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군요."

'읽어서 남 주자'

공무원 생활 36년째인 춘천시청 도반회장 정상현 지적과장(55 · 혜수). 정 과장은 지적과 직원 40명의 생일에는 언제나 불서를 선물로 준다. 이번 달에는 최근 발간된 법정 스님의 책 <홀로 사는 즐거움>을 네 권 사놓았다. 종교가 다른 직원들이 불서 받기를 꺼려할 만도 하지만, 정 과장이 10년 넘게 불서로 선물을 해오다보니 지금은 누구나 기쁘게 선물을 받아 든다. 종교와 상관없이 나누는 따뜻한 마음에 이제는 직원들이 정 과장에 불교에 대해 이것저것 묻는다.

정 과장은 이렇게 직원들에게 불서를 선물하기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한다. 직원들이 원하는 불서를 고르기 위해 불교계 신문에서 정보를 얻는다. 신간 기사를 꼼꼼히 읽고, 어떤 책인지 정보를 메모한다. 그리고 선물할 책과 관련 기사를 함께 직원에게 준다. 좀더 불서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다.

정 과장이 이렇게 법보시를 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알면 알수록 유익한 내용을 혼자만 갖기에는 너무도 아까웠기 때문이다. 또 아끼는 이의 인생에 새로운 취미를 하나 더 보태는 계기도 됐기에 지금껏 불서 선물을 주고 있다.

"'배워서 남 주자'라는 말도 있지요. 저는 '읽어서 남 주자'를 실천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불교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꺼내면 직원들이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책으로 주는 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포교도 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인 셈이지요."

하루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자

정 과장은 불서를 읽는 것은 마치 '밥 먹는 것과 같다'고 강조한다. 하루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다. 손닿는 곳에 읽을 책을 가져다 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화장실이든 침대 위든 사무실 책상이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책 읽을 여건을 만들라는 주문이다.

"'시간 없다, 여유 없다'는 변명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불서 읽는 것을 수행으로 생각해 해요. 수행이 생활화되면 수행력에 탄력이 붙듯이 독서도 매한가지입니다."

신종기 경위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틈만 나면 불서를 읽으라는 것이다. 대신 신 경위는 '얇고 쉬운 불서'부터 읽으라고 말한다. 지루하고 어려운 내용의 불서는 오히려 독서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신 경위는 불서에 흥미를 갖기 위해 불교기본교리 또는 입문 관련 책부터 정독할 것을 주문한다. 불교기초지식이 바탕이 돼야 다양한 불서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난 후, 경전을 읽으면 각자에게 불교의 세계가 스스로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지상중계-제1기 지혜경영아카데미

고정관념 버리는 것이 최고 경영자의 첫걸음

최고의 경영자가 되고 싶은가?

지혜경영연구소(대표 손기원)가 마련한 제1기 지혜경영아카데미(9월 8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 경영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신념을 되새겨 준 자리였다. 강사로 나선 손기원 대표는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면서 3시간에 이르는 강의를 시작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는 계속하여 '많이'와 '빠르게'를 요구한다. 그러나 '많이'가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생각과 '빠르게'가 발전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고정관념이다. 인간의 욕망은 무제한이고 그 크기는 행복과 불행을 똑같이 갖게 마련이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도식화된 삶의 틀을 탈피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행복의 문을 열 수없다. 이것이 바로 지혜경영이 필요한 이유다.

"철저한 주인의식과 긍정적 견해 가져야"

지혜가 적용되어야 할 가장 급한 부분은 자기 경영과 사고 시스템의 혁신이다. 먼저 지혜로운 경영을 위해 우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그 문제를 깊게 넓게 들여다봐야 한다.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인이 규명될 것이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이 타진될 것이다. 해결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을 거쳐 실행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지사.

지혜 경영의 키워드 혹은 화두로는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지금 여기'가 첫 번째.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은 현실을 고통스럽게 한다.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보다는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 다음은 '모두 하나'. 이 우주의 모든 존재는 어떻게든 관계를 갖는다. 나와 떨어진 남은 없다. 전체를 하나로 보는 눈이 지혜의 눈이다. 그런 눈으로 경영을 할 때 기업이든 개인이든 상생의 결과를 낼 수 있다. 어느 조직이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전체중심의 사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증명하는 셈이다. 마지막 화두는 '주인공'이다. 인간은 자주적인 행동을 할 때 발전할 수 있다.

누구나 행복해 지길 원한다. 행복을 위해서는 나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또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대입해 문제를 들여다보고 '다행이다 감사하다'는 긍정적 견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정리=임연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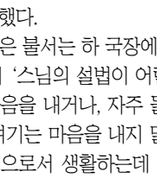


제1기 지혜경영아카데미 수업장면.

※기사 넘쳐 '우리불자회는요' 쉽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들려주는 대행 스님의 지혜의 말씀

삶은 苦가 아니다



쉽고 명쾌한 대행 스님의
'참' 인생 이야기

때로는 야트막한 산허리를 돌아 흐르는 시냇물처럼, 나지막한 목소리였다가 한순간에 폭포수 같은 사자후를 토해 내기도 한다. 대행스님은 안양의 한마음선원에 계신다. 그러나 어디고 계신다. 오로지 만 생명이 자성을 밝혀 대자유의 세계로 들게 하기 위해 포교와 수행으로 정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쇄

■ 대행 스님 법어 | 혜원 스님 엮음 | 254쪽 | 9,000원

왜 스님은 팬티만 입고 공중화장실에 있었을까?

스님이야기

법정·서암·명성·대오 스님 등
85명 수행자들의 일화를 모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최근 발간된 '스님이야기'는 지묵 · 효림 · 현진 스님 등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 85명의 일화를 소개했다. 엄숙함의 베일을 걷고 보아도 수행자로서 고결한 자세와 인간미가 도드라진다.

- 조선일보

합천 해인사 주지이면서도 절 주변을 돌며 관광객이 버린 담배꽁초와 휴지를 주웠던 지월 스님, 코피 나도록 얻어맞아도 상대방에게 주먹질을 하지 않았던 무술 고수 대오 스님 등 다양한 수행승 이야기가 진솔하게 펼쳐진다.

- 동아일보

지묵 · 허주 · 수완 · 정운 · 원옥 스님 등 15명의 스님이 필자로 나서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 전형적인 학자풍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20여 년 가까이 장좌불와, 오후불식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 등 곁에서 지켜본 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묵 스님 외 지음 | 448 쪽 | 12,000원

禪 DISCUSSION ABOUT CHAN(ZEN) BUDDHISM

문밖에 나서다

중국 선불교 다시 읽기!
그리고 되받아 쓰기!

중국 선사들의 선문(禪文)을
패치워크방식으로 새롭게 해석!

「禪, 문밖에 나서다」는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한 군데에 모아 놓고, 내가 그 동안 읽었던 책들, 또는 나의 짧은 생각들과 연계시켜 본 작품이다. 마치 고급 실로 짠 천 조각을 붙여 만든 조각보처럼…….

- 본문 중에서



■ 석해탈 저 | 456쪽 | 14,000원

부처님 말씀의 길잡이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범패의식

천도재	수륙재	산신재	점안식	바라춤	나비춤

행사에 염불해 드립니다
무진 051)468-7374
합장 018-523-7374

암 디스크관절,당뇨,백혈병
합병증,근육병,정신질환등
현대의술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 환자(기도와 기공침술, 한방 치료법)을 통하여 3개월~5개월정도면 80%이상 완치가능
단. 마지막 불심으로 믿고 성불이루십시요
031)671-1878 만복사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문신 제거해 드립니다
▷눈썹, 바디, 얼굴
문의 전화 02)969-8080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 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60만원/카무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명 당
탐지기 관통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제 2기 역학 수강생 모집
▶과 목 : 사주, 관상, 수상
▶장 소 :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장충체육관 방향 경동교회 뒤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월간역학 교육원
(02-2264-0258)

소백산 송이,능이판매
054)634-3334
농협 : 한희욱
751081-51-060579
경북 영주시 봉현면 두산 2동
심우사 한산 합장

잣 가평홍천(국내산)
햇잣 260g : 25000원
공장 : 가평초림임업농산
농협 2040-39-56-036-735
예금주 : 조금희
031)592-2865
010-3005-2865

불자 실버하우스
사찰 경내 신축건물
1人 1실 침식 제공
입주 3,000만원
– 부부 · 형제 자매 환영 –
문의처 : 031)867-1801~2
016)703-6648

개인지도
천수바라 나비춤 사다라니
화청 진령게 다게 等
법고 태징 타법
※ 사주명리학
초급~고급(용신격국)까지
대구 경북 대전 이남
스님은 무료
054)433-6315

자연송이 판매합니다
055)883-2106
016-777-7656

행자모심
40세미만의 비구니
행자를 모십니다
문의 : 총무스님
041)832-1188
011-424-5555

물좋고 공기좋은 자연환경속에서 사육한 사슴 생녹용을 각사찰에서 기도정진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께 보시용으로 생녹용을 저렴한 가격으로 보시하겠습니다.
야간농장 041)943-2756
주간 사무실 041)943-3506
016-466-2470

기도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전남
061)462-1142
011-9400-5254

행자모심
만40세미만으로 고졸이상
대학 대학원 진학 책임지원
(정릉)02)917-3363

수행 비구니 스님 및 행자(여) 모십니다
▷연령 20~40세
▷부산시내 포교원
010-8678-2444
018-801-2588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지리산
50대이상
50대이하는 전화사절
011-483-5639

神典건축
- 사찰, 암자, 사당
- 명상, 요가센타
- 다도방, 황토방
- 한옥 리모델링
- 조경과 조형물
- 디자인 & 미술까지

두레우물
031)771-9321

산중 조용한 암자에 스님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요
(부전도 가능합니다)
010-9415-2961

기도스님 모십니다
▷ 경북 영주
011-9342-9850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사찰운영자신있는분)
▷ 40세미만. 충북지역
011-493-7428

처사님 모십니다
▷ 강원도
010-6384-7557

포교에 관심있는 주지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대처스님
(법납 10년이상 50세미만)
서남해 섬사찰
011-663-489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서초구 포교당
02-3472-1080
010-9980-1080

출가학교 및 행자모집
▶출가학교 2기:
남자 - 9월30일 ~ 10월20일(3주간)
16세 ~ 41세, 삭발, 교육비 : 전액무료
▶행자(예비승) : 언제든지 가능, 남 · 녀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조계종 (053)474-8228 납골당 운영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 경북 칠곡
054)976-8116

참신한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576-273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기 김포
011-686-662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825-6909

비구니 부전스님
서울 마포에 있는 도심포교당입니다.
미얀마 비구니 스님들도 함께 수행하며 포교하는 기도 도량입니다. 위빠사나 명상 수행도 같이 하시며 서로 의지하며 평생 도반이 되어 오래오래 계실 기도스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문의 : 02)338-2158 / 011-229-6061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2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26-1259

수행 비구니 스님 및 행자(여) 모십니다
▷연령 20~40세
▷부산시내 포교원
010-8678-2444
018-801-2588

경기도 여주군 흥편면 기백리 청운사 헌책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스님, 행자모집
▷45세이상
011-259-5989

눈
- 충혈, 눈물, 피로, 눈꼽, 눈이 뻑뻑함
- 침침함, 가려움, 기타 불편증세

눈 전문 특수영양식품
눈에 좋은 물질 특허성분 함유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82714
제조원 : 日本(주)MERCURY-MK
일본성인병예방협회 추천제품
눈밝은 세상 (02)2237-8004



담양 대나무 참숯양말
◆숯의효능 : 간길, 현기증, 빈혈, 탄저병, 및 피부세포의 활성화 작용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만성습진, 무좀 등에 특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남성용 · 여성용 1켤레 : 5000원 ●
선물용 세트 · 사찰 및 단체주문 환영
전화 : 031)864-7361 휴대폰 : 011-705-7382

역학 수강생 여러분
10초내 운세를 맞추면 배우러 오세요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사주전체 대흐름(조상포함)을 알고나면 격국용신 및 신약신강을 신경쓰지 않아도 속시원히 통변할 수 있습니다.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파계사 근교
- 대지 : 306평 ● 건평 : 60평 (법당20평,산신각5평,큰방5개, 화장실3개)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경관이 뛰어나 기도처로 최적지임
- 가액 : 1억8천만원(응자별도) 답사 후 가격절출 可

011-9371-085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주 시흥시 대야동
- 상가 10평
- 방1,부엌1,법당,삼존불, 후불탱화,신중,산신
- 가액 : 500만원에 월 30만원 (조절가능) 시설비 380만원

011-9966-782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대명동
- 총평수 : 40평, 방2개, 주방,샤워실, 법당
- 가액 : 2천 2백만원 월세 23만원 (보증금포함)

※스님이 급히 해외교육차 출국관계로 양도하고자 함
011-9850-2946
053)653-0287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중심지 (포교 최적지)
- 평수 : 50평 (2층)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 2천5백만원(시설 완벽)

052)293-1237
017-856-361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중구 ● 건물 3층 전관 53평 (엘리베이터 有) 순 한옥식으로 잘 꾸며져 있고 바닥은 전체 게르마늄과 맥반석으로 된 온돌방이며 법당은 18평, 방5칸, 욕실 큼, 주방2 보증금 4천만원에 월50만원 (삼존불 삼존탱화 연설대 시설물 냉장고 에어콘 정수기 일체 시설비 포함 3천 5백만원) 합 7천 5백만원.
- 기타 : 버스정류소 바로 옆 지하철 2분

010-9469-2258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 법당 20평, 요사 20평
- 전체 1500여평
- 도로 조경 최상의 조건
- 가액 : 2억 2천

010-2810-0201

사찰터 안내
- 위치 :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 밭 1750평(한필지)
- 정남향. 절터로 적합 산세수려, 도로, 전기완료
- 가액 : 절충가능

011-9879-1867

사찰터 안내
- 위치 :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 부지 : 3000여평
- 가액 : 2억 2천만원

017-693-0709

궁중비법 사주명리 학인모집
(구, 성수철학원)

본 학회는 **궁중비법 사주명리** 연구로 전국 최대의 회원 양성 기관이며 현재 각지 200여곳에서 회원님들이 성황리 활동중이며 특히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육기관으로써 처음 배우실분, 해도해도 안되는 분을 위하여 1개월(주간)/3개월(야간,주2회)수강하시면 완벽한 비법으로 눈치볼 필요없이 100% 책임보장. 개업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학회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시행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수여함

안내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기간 :
  - ◆ 1개월 완성반(주간, 월 ~ 금)
  - ◆ 3개월 완성반(주, 2회)
  - Ⓐ 월 · 화반 Ⓑ 수 · 목반 (시간 : 오후 7~9시)
- 지도교수 · 강사 : 백운 성수(본학회 회장) 대각 스님(금강불심원) 백궁, 봉계, 도영
- 교육장소 : 본 학회 2층 강의실(최고시설완비)
- ※ 무료특강 10월 5일(화) 저녁 6시 30분

※금강불심원(본 학회 직할) 대각스님(053-425-7875)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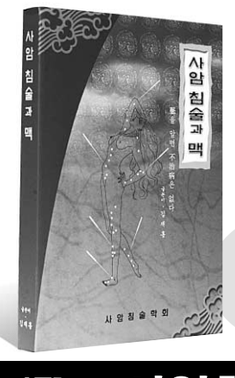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더 이상의 획기적인 침술서적은 없다!!!

사암침술의 맥

침술인의 필독서(必讀書)
1. 정확한 취혈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등분법)
2. 황제 내경 맥진법을 하루에 터득 할 수 있다
3. 복합처방으로 난치병도 두렵지 않다
4. 一鍼에 완치 시키는 즉효 요법이 있다
5. 중풍맥을 건강한 맥으로 즉석에서 교정한다
6. 100가지 질병 치료법을 쉽게 터득한다(고급과정)

※득이 없는 막연한 공부는 이제 그만합시다



김재홍 저
505쪽 신국판
정가 80,000원

구입문의: 사암침술학회
02)2267-9136

당신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맥을 터득해야 사암침술을 자유자재로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초,고급과정)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종합실습
▶ 개강 : 2004. 10. 4. 월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금요일 (수시접수)

사암침술학회
장소 :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24평
- 요사 : 60평
- 부지 : 300평
- 가액 : 3억6천

- 농가주택 -
- 위치 : 경남김천
- 주택 : 30평 (토굴로 적합)
- 부지 : 510평
- 가액 : 5천5백

- 사 찰 터 -
- 위치 : 경남거창 건축가능,차량진입가 1급 약수있음
- 부지 : 20,000평
- 가액 : 1억 1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8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사찰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토굴암자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 임야 전답 3500평
- 가액 : 6천만원

010-9763-1271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돈암동 시내 사찰
- 법당1동, 요사2동
- 전세: 없음, 월2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지하수 있고, 기타시설 완벽
- 비구니 스님께 최적합

055)646-2766
016-377-6397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 부지: 1000평
- 법당: 30평 목조
- 요사: 30평
- 가액: 9억

- 위치: 서울
- 대지: 25평
- 인법당: 23평
- 가액: 8천
- 포교요충지 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평창동
- 대지 : 129평
- 건평 : 98평
- 평당: 8백만원
- ※ 현재사찰 운영중
- ※ 소개업자 일체 사절

011-478-8812
011-9865-1975

사찰안내

- 위치 : 포천시 경기 중마공원 입구
- 부지 1천3백평
- 건물 53평, 25평
- 17평 3개동
- 가액 : 3억5천만원
- 서울강남에서 50분거리
- 산세수려하고 전망좋음

031)533-2420
017-202-274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최요지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
- 평수 : 30평 3층
-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인연되는 스님께는 무상양도

011-202-2205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시장내
- 총 45평(3층 건물중 2층)
- 호불 500불(지장보살)인등 500, 연등 1000개, 원목 달집(단청필)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법당최고시설)
- 포교당운영하실 조계종스님 모십니다

016-444-5758

토굴암자안내

- 충남 홍성(도청후보지) 3700평 <전세 8500만원>
- 동학사 동월계곡 단군성전 400평 <₩ 3억>
- 청주 대청댐 청남대접 310평 <₩ 2억 5천>
- 신원사 옆 연산절터(기초공사완료) 570평 <₩ 1억>
- 전북 남원시 지리산 자락 3200평 <₩ 1억 5천>
- 대구 팔공산 갓바위 암자 513평 <₩ 1억 5천>
- 경남 거제도 해금강 토굴 62평<₩ 7천 5백> (시골집에서 토굴암자 사찰 항시 보유)

스님직접상담 017-409-9599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경기 이천
- 부지 : 650평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30평(목조)
- 산신각 : 5평(목조)
- 양도가 : 5억 5천

- 위치 : 일산
- 평수 : 11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보증금 : 2천 5백 / 백오십
  시설비 : 2천 5백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천 2백평, 법당, 요사 완비
- 납골시설 100기 (분양완료시 2억이상 수익가능)
- 대규모 납골사업 가능한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1억 5천만원(전세가능)
- 기도정진할 스님 특별조건
- 납골탑만 매매가능

011-9415-6831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청 뒤 2분거리 4층건물중 3층, 35평
- 법당, 공양실, 친견실,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영가단, 앰프시설, 사무기기, 포교서적 완비 시설A급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5만원 시설비 1550만원(절충가능)

032)511-4974

<신 행정수도 인접>
사찰부지안내

- 충남 논산시 벌곡면 소재(도립공원 대둔산 인근)
- 수목(참나무) 울창계곡
- 대전에서 25분, 계룡시에서 15분, 신 행정수도에서 40분
- 마을포장도로 인접
- 이용가치 : 종교시설(사찰부지, 기도원), 참나무찜질방, 유실수단지조성 가능,
- 면적 : 7만 3천평 ●가격 : 5억 8천만원

017-405-1554
042-522-2588(야간 10시 이후)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 대지 150평, 전 435평
- 법당 30평
- 신축사찰
- 가액 : 1억 2천만원

033)534-0407
010-9478-1686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가격 절충)

041)753-3766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면적: 임야 대지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 벽돌 110평 1동 창고겸 요사 45평 1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 하남시 덕풍동
- 보증금 : 3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 법당 : 40평, 방4개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11-715-6333

사찰 터 안내

- 위치: 군위군 고로면
- 평수: 4700평 건물한동 있음
- 특징: 650고지, 천하절경
- 약초재배나 고냉지채소 가능함
- 대구에서 50분거리
- 가액: 9천만원

011-810-8402

물좋고 산세좋은 도심속 암자

- 건평 100평
- 법당 : 15평
- 요사채, 주차장완비
- 40년 역사 가건물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303-8550
051)301-8555

토굴,암자터안내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소재
- 하늘과 마주보는 산밑 1257평
- 농가 흙집 리모델링 방 5개(구들방1개, 벽난로)
- 도량-아늑한 세월의 숨결이 묻힌 나무조각불상다수 미니 돌도랑 그위에 미니정자 오붓한 수행의 길을 찾는분
- 가액: 2억(임법당, 집기, 비품 소품일체 양도)

033)342-7931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부여 (산세수려하고 경관 최고)
- 평수 : 대지 200평,건평30평 (방4,부엌,거실,욕실) 건물20평
- 임법당1, 정원, 창고, 텃밭, 지하수2, 신축건물, 벽돌, 기와
- 가액 : 1억5천만원

032)544-6127
041)834-0206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 12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9238-996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인근섬)
- 대지 : 120평, 밭 200평
- 법당 : 30평(삼존불 모셔져 있음)
- 건물 : 요사채 18평(방4개)
- 도량내 관음보살 불상 모셔져 있음
- 특징 : 불심이 돈독한 섬마을 지역임
- 가액 : 1억 7천만원(답사 후 조정가)

011-9576-1648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무암
- 대지 : 500평정도
- 법당 : 50평 정도
- 요사채 : 20평 정도
- 산신각,용왕각,칠성각
- 차진입 가능
- 가액 : 9천만원

051)254-301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기 양주시 백석읍
- 평수 87평(실평수 150평) 2층건물(1층 30평, 2층 30평)
- 가액: 시설비 포함 2억 (아파트 밀집지역)
-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11-398-2773

한마음 납골묘 납골당

사찰 경내에 본사의 비용(무상)으로
납골묘(석재)를 설치해 드립니다
사찰에서는 일체의 부담이 없음

한마음 석재 납골묘 납골당 고원합장

011-348-0668 / 031)318-061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3층 40평
- 삼존불, 신중탱화, 칠성탱화, 엠프 모두 갖춰져 있음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1500만원에서 500만원받겠음

010-4422-5575
041)832-5575

사찰 안내

- 위치: 동작구 상도동 7호선 장승백이역
- 대지 : 66평, 건평 : 56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 5억 3천만원

02)815-0302

사찰 안내

- 대구시 북구
- 부지 : 325평
- 현재 운영중
- 일체 시설완비
- 가액 : 13억

011-817-2889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소래 포구 어시장 상업지구 3층건물 중 3층
- 평수 : 30평, 법당, 방, 주방, 화장실,주차장,베란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3천만원(절충가능)

011-438-7569

사찰부지안내

- 위치: 천안(천안역10km) 2차선 포장도로 근접
- 면적 : 2000평 ●관리지역 : 밭
- 산으로 둘러쌓인 삼태기형
- 가액 : 5억원

041)621-4411
010-3121-3900

암자(급)안내

- 위치 : 전남 (최적지) 시내중심시장에서 걸어서 3분거리
- 대지 : 103평
- 30년된 안정적인 암자
- 가액 : 1억3천만원(절충가능)

011-9667-906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50평
- 법당 목조 12평
- 요사채 벽돌 25평
- 가액 : 8천 5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6-652-754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내 중심지 포교최적지
- 2층 건물 중 2층
- 건물 : 40평, 법당(20평)
- 시설: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 시설비 1천5백만원(별도) 1천만원 보증금 월 45만원

016-640-8133

포교원안내

- 마산시 부림시장상가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절충가능)
- 도심포교 최적지
- 노송과 대나무가 있는 토굴
- 남원 광한루에서 5분거리
- 현대식 20평(방2, 거, 주, 화)
- 가액 : 4000만원

016-424-0500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하남 시내
- 평수 : 30평
- 법당, 방2개, 상담실, 화장실
- 시설 A급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

02)816-2764
016-535-2754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400여평
- 가옥 1동, 석가모니부처님, 후불탱화,신중탱화,산신탱화 스님방,샤워실,주방,창고, 주차장완비
- 가액 : 1750만원. 집기일체

011-379-9860

포교당(임대)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대흥동 보문산 입구
- 평수 : 25평 ● 시설 : 2층에 위치. 법당(삼존불),탱화,거실,부엌, 살림 일체 있음. 즉시 양도 입주가능함
- 보증금 : 500만원, 월세 20만원 시설비 : 1500만원. 절충가능함

042)527-3800
017-403-3800

문화재전통사찰안내

- 위치 : 전북남원시내
- 면적: 약600평(종교부지등)
- 전세 : 1억2천만원/월세가능 (임대는 1억2천 월세가능)
- 개인등기된 문화재 전통사찰로서 산수경관이 수려하고 아담하고 깨끗함 6m넓이 진입로 포장 되있고, 약수터 있음

011-703-3030

토굴암자안내

- 위치: 충남 금산 대전에서 30분거리
- 부지 : 400평
- 건물 : 목조 한옥 21평 임법당(황토방)
- 가액 : 2억(절충가능)

041)753-8137

토굴 겸 팬션안내

- 위치 : 남덕유산자락
- 부지 : 1630평 가옥 - 신축황토기와집
- 가액 : 5억(대출가능)
- 특징 : 맑은개울과 집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016-367-2112

포교원 안내

- 위치 : 중랑구 망우 4거리 2층
- 평수 : 28~30평
- 법당, 방1, 주방, 화장실, 도시가스
- 모든시설일체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1-9064-3337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 부근 미륵사지 뒷편 산쪽 요지
- 1천7백평(전답) 건물 약 60평 미륵부처님 조성
- 법당 25평, 요사 30평
- 사정상 급
- 가액: 2억5천만(조정가능)

019-632-800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인근
- 임야 : 1700평중에 종교용지 425평
- 법당 : 가건물 20평
- 요사 : 40평 1층 스라브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1억 8천(절충가능)

055)222-7346
016-868-5517

고찰터안내

- 경남 함양군 지리산
- 독립된 청정계곡. 야생차밭
- 16필지 총 7527평
- 관리지역 임야 4808평 1만원 전답 2919평 3만원 1억 3천만원

011-9393-496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 대지 : 1700평
- 법당 : 30평, 요사채 40평 (방5,주방1,거실,화장실)
- 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하천댐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쾌적한 공기
- 가액 : 3억 3천만원(답사후절충가능)

016-9771-2736

포교원안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 4층. 평수 35평,
- 방1, 주방1
- 보증금 3천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317-0582

토굴안내

- 경주와 영천 10분거리(교통아주편리)
- 대지 : 120평
- 평수 : 인법당 15평 (스님방, 목욕탕포함) 구옥요사(방2칸,주방1칸)
- 마당까지 차진입(50가구 정도되는 시골윗집)
- 공기가 맑고 조용히 수행하실 스님 (보살님, 처사님 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9211-6385
(오후 5시이전 전화통화가능)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웅양면
- 건물양식 : 일반주택사찰
- 대지 : 159평
- 총건평 : 25평(요사채12평,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져있음)
- 특징 : 거창에서 김천방향 국도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함 모든시설은 사용하기 편리함
- 가액 : 8천만원 (전세가능 1500~2000만원)

019-503-7959
055)942-915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동
- 건물 : 5층건물 3층(56평)
- 법당(20평), 요사채
- 방2개, 큰거실, 공양간, 화장실 별도
- 비로자나불 부처님 모셔져 있음 후불탱화 3점
- 비품: 대형냉장고, 에어컨 시설, 정수기
- 기존 신도로 즉시법회가능
- 가액 : 시설비 5백만원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053)756-7339
011-9599-6996

사찰 (급)안내

- 위치 : 전남 여수(시내근집)
- 대지 : 임야포함 240평 건물 : 법당 30평 1동 요사채 1동
- 부대시설 : 화장실,창고
- 2001년 신축 등기필
-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전망좋은곳
- 가액 : 시설비포함 2억 5천 절충가능

061)654-1812
011-247-7263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주례동
- 평수 : 45평 2층. 큰법당1, 방2개 부엌1, 수세식, 화장실 삼존불 및 후불탱화. 지장불 및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 용왕불 및 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 1500만원(집기 모두포함)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살림가능

051)327-0477
019-556-6047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
- 3층 건물 중 3층 (건물전체양도)
- 대지 78평, 건평 15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융자7천,전세보증금 1억)

011-9108-5484
031)416-5484

사찰안내

- 위치 : 철원 동송 시내
- 부지 : 819평 한옥법당 10평
- 설법 강좌실 21평
- 요사채 15평
- 사찰관리실 7평, 약수터
- 가액 : 3억
- 임야 25,000평 평당 2만원
- 진입로 8m접 계곡물 접

011-9243-0993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343번지 태백산
- 산세경관이 아주 좋으며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연꽃안에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100m앞 유원지 내리강이 흐르고 도로 잘되어있음.
- 부지 1800평, 자연돌로 조경이 잘 되있으며 천탑을 조성하려고 자연돌 수천톤이 확보되있음. 기와건축물 50평 전기수도 유선 잘되었음
- 가액 : 2억 5 천만원

018-223-2101

동국대 · 원광대
불교학전공 박사 4명 탄생

지난 8월 동국대 및 원광대 대학원에서 불교학 전공 철학 박사 네 명이 탄생했다.

동국대 경성 스님과 류효현 씨, 원광대 법진 · 법안 스님이 그 주인공으로 각각 제출한 논문 〈불교 수행의 두타행 연구〉 〈길장의 팔불중도관 연구〉 〈조선 중기의 선사상사 연구〉 〈한국약사정토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2003년 후기)를 받았다.

경성 스님의 〈불교 수행의 두타행 연구〉는 의식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불교 수행법인 두타행의 핵심을 파악함으로써 두타행의 현대적 의의를 재조명한 논문이다. 류효현 씨의 〈길장의 팔불중도관(八不中道觀) 연구〉는 길장 스님의 팔불중도관을 살피고, 그것과 연기 · 중도 · 공 등과의 관계를 규명한 논문이다. 또 법진 스님의 〈조선 중기의 선사상사 연구〉는 서산 스님의 선사상의 내용과 그 영향을 살핀 것이다. 법안 스님의 〈한국약사정토사상에 관한 연구〉는 약사신앙의 역사를 고찰하고, 약사신앙을 정토사상으로 바라본 논문이다.

이미 소개된 법진 스님(본지 489호 13면 기사 참조)을 제외한 경성 · 법안 스님과 류효현 박사의 논문을 요약 · 소개한다.

두타행은 동체대비 실현의 바탕

'불교수행의 두타행 연구' 경성 스님



두타행(頭陀行)은 의식주 전반에서의 소욕(少欲)과 지족(知足)을 이념으로 하는 불교의 수행법으로, 의식주에 대한 탐착을 끊어 실생활에서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를 동시에 구현하는 방편이다.

이와 같은 두타행은 경율론 삼장에서 두루 다뤄지는데, 〈증일아함경〉 〈열반경〉 〈사분율〉 〈십주비바사론〉 〈대지도론〉 등은 12두타를, 〈해탈도론〉 〈청정도론〉은 13두타를, 〈대승의장〉은 16두타를 설한다. 이처럼 경에 따라 두타행 구성은 다소 상이하나 몇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항목들이 있으니, 그것은 아란야(촌락에서 조금 떨어져 수행하기에 적당한 곳)에서 수행하며, 걸식을 하고, 분소의(누더기를 주워 모아 만든 가사)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에 따른 차이점
고승의 행적 등 분석

실제 두타행은 경전을 따르되, 자신의 근기와 교화 대상, 수행의 성향에 따라 약간씩 변형되기 마련이다. 대표적 두타행자인 혜만 스님(중국 ?~642)은 일생동안 한 벌의 분소의와 일종식을 수행했고, 도선(중국 596~667) 스님은 음식을 먹을 때 농부의 피와 땀을 상기했으며, 자장 · 진표 스님은 두타행을 근본으로 정진해 천인과 보살로부터 정계(淨戒)를 수지했다.

이들이 원형적인 두타행에 충실했다면, 혜능(중국 638~713) · 원효(신라 617~686) 스님은 상황에 맞게 변형한 경우다. 특히 원효 스님은 〈발심수행장〉에서 '절하는 무릎이 얼음덩이처럼 차가와도 온기를 그리워하지 않으며, 주린 창자가 끊어질 것 같더라도 밥을 구하지 않는' 두타행을 찬탄한다. 다른 한편 대중 속에서 동사섭으로 화합을 도모할 때는 무애가를 부르며 걸림 없는 행동을 보인다.

이 같은 두타행의 소욕과 지족에 대한 가르침은 계율을 청정하게 하는 터전으로 선정과 지혜를 증득하는 지름길이며, 중생과 자연에 이롭게 하는 동체대비 실현의 바탕이다.

중생과 자연을 나와 다른 상대로 인식하지 않고, 중생을 넘어 자연계 모든 존재까지 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현시대에 맞는 두타행이라 할 수 있다.

인과법 입각한 실천 강조가 핵심

'한국 약사정토사상에…' 법안 스님



일반적으로 정토신앙 사상은 아미타정토로 대표되지만 석가정토를 비롯해 미륵 · 관음 · 지장정토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여기서의 관심사인 약사정토도 그 중 하나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선덕여왕(632~647) 시대에 이미 〈약사경〉이 설해졌으며, 초기에는 불교적 치료방법으로 기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게가 36만6천700근이나 됐던 분황사 약사여래 동상이 조성된 경덕왕대에 통일신라 약사불상의 대부분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이 시대에 약사신앙이 융성했음을 알 수 있다. 경덕왕대 유난히 전염병이 많이 돌았던 것도 약사신앙 확산에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 약사신앙 배경
신주 아닌 정토신앙"

약사신앙은 대개 신주(神呪)신앙으로 분류되는데, 그 원인은 현재 유통되는 〈약사경〉에 약사관정주(藥師灌頂呪)가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국시대에 유통되던 현장 역본이나 범어본 등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 신주신앙으로 볼 근거는 없다.

그보다는 약사정토신앙의 범주에서 보는 편이 옳다. 원효 스님은 "정토란 모두가 여래의 원과 행이 이루는 바이며, 저 정토에 생하는 자의 자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했는데, 약사 신앙은 그 특성을 온전히 갖고 있어 정토신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약사신앙에 대한 한국 최초의 체계적 저술인, 신라시대 태현 스님의 〈본원약사경고적(本願藥師經古迹)〉 또한 밀교경전이 아니라 약사정토사상의 소의경전으로 봐야 한다.

〈본원약사경고적〉은 약사십이대원을 둘씩 묶어 요익정예문(饒益淨穢門) · 세출세간문(世出世間門) · 존계존신문(存戒存身門) · 제내외고문(除內外苦門) · 내외해박문(內外解縛門) · 지식여의문(志食與衣門)의 육대문(六對門)으로 분류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원약사경고적〉에 따르면 약사신앙은 대승의 돈교이면서 정토신앙이며 현세의 이익을 대표하는 신앙으로서, 인과법에 입각한 신앙적 실천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진다.

분별심 떠난 '부정의 도' 밝혀

'길장의 팔불중도관 연구' 류효현 씨



팔불(八不)이란 용수의 〈중론〉 '귀경게'에 나타나는 불멸(不滅) · 불생(不生) · 부단(不斷) · 불상(不常) · 불일(不一) · 불이(不異) · 불래(不來) · 불거(不去)를 일컫는 말이다. 기원상으로는 아함 및 초기 대승경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중론〉에 와서 체계를 이룬 것이다. 〈중론〉에서 팔불은 중도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분별망상을 부정함으로써 중도의 실상을 드러내는 부정의 논리 전개에 활용된다.

용수 · 삼론학파 이론
'중도론소'에 집대성

용수 및 삼론학파의 팔불중도설은 길장 스님에 의해 집대성되며, 그 내용은 〈중관론소〉에 집약돼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길장 스님은 '귀경게'의 팔불에 대해 먼저 생과 멸이 실체적이지 않음을 들어 불생불멸의 세제중도(世諦中道)를 밝힌다.

그러나 이 세제중도는 진제가 거짓되게 드러난 것이므로 불생불멸은 가불생가불멸(假不生假不滅)이다. 여기서 거짓을 진실로 집착하는 견해는 논파되고 비불생비불멸(非不生非不滅)이라는 진제중도(眞諦中道)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세제와 진제는 중도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생멸비불생멸(非生滅非不生滅)로서 이제합명중도(二諦合名中道)임이 밝혀진다. 이들 세 중도가 삼종중도(三種中道)다.

또 '관인연품'의 제1 · 2게에 대해서 길장스님은 불생불멸의 중도, 불상부단(不常不斷)의 중도, 불일불이(不一不異)의 중도, 불래불출(不來不出)의 중도로 나눠 삼종중도 성립을 논증한다.

이처럼 팔불로써 중도를 변증한 길장 스님은 팔불이 팔사(八事)를 초월한 공(空)이며, 인연이며, 실체 아닌 것을 실체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희론(戱論)을 멸하는 부정의 도라고 밝힌다. 그렇기 때문에 팔불이 성립하면 정법이 드러나고, 법의 불생을 깨달으면 제불이 현전한다고 길장 스님은 말한다.

팔불의 공관(空觀)은 인격의 자유 · 평등을 증득하기 위해 분별심으로부터 떠난 것이며, 팔불은 불교의 근본교리를 분명히 하는, 연기 · 중도 · 공이라 말할 수 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풍납토성서 우물시설 발굴

한성 백제시대 나무로 짠 井자형



풍납토성 인근에서 발굴된 우물 목제가구(架構) 측면.

풍납토성(사적 제11호) 남동벽 문화재지정구역에서 약 15m~20m 떨어진 성의 외부지역에서 백제시대 '우물시설'이 발굴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 한성백제학술조사단은 '井'자형의 정방형으로, 네 면을 다듬은 목재의 양 끝을 '凸'자형으로 깎아 결구해 쌓은 우물시설을 발견했다고 9월 7일 밝혔다. 이 우물의 깊이는 240cm며 최대 너비는 390cm.

우물은 전체적으로 중간부분은 볼록하고, 윗부분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형태로 목부재 사이의 틈새나 외벽 전체에 점토를 이용해 방수처리 돼 있었음도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 우물이 전체 17개의 판재를 세워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물의 축조 연대에 대해 조사단은 "목부재 외벽을 채운 흙에서 출토된 백제 토기편으로 미뤄볼 때 5세기대 경으로 추정된다"며 "한성백제시기의 발굴출토 유적 중 최초로 확인된 우물지"라고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우물지는 풍납토성 내외부에 거주했던 당시 주민의 생활상 파악에 유익한 자료로 평가된다.

발굴 지역에서 우물지가 발견됨에 따라 조사단은 구조물 수습 · 보존 및 복원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당 목제시료를 전문 기관에 보내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C14-Dating)을 의뢰하고, 우물 내외부토 토양분석을 실시해 우물의 정확한 성격을 밝힐 예정이다.

백제유적 배치도 전산화 시작

부여문화재연구소, 32개소 대상…2005년 완성

백제시대 사비도성 내 부소산성 등 32개 유적이 전산화된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백제 사비도성내 유적지도 작성을 위해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백제시대 유적배치도 전산화사업을 9월부터 착수한다고 9월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수치지도(1/5,000)를 기본도로 유적의 위치를 측정 △GIS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유적배치도 작성 △다양한 유구정보와 사진자료를 통합 ·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계연구자들에게 CD로 제공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전산화 사업은 유적이 밀집된 사비도성에 한해 구체적인 유구정보까지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유적의 위치와 범위 표시에 그친 기존의 지리정보체계와 구별된다.

사업의 완료 목표 시점은 2005년 5월이며, 공주대학교 군사과학연구원(원장 김만규)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앞으로 추가되는 사비도성 내 유적자료도 주기적으로 보완해 백제 사비시대 도성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고대도시지도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GIS는 미국, 일본 등에서 문화유적의 보존 · 도시개발 ·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으며, 문화유적 지표조사에도 많이 활용되는 추세에 있다.

※기사 넘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쉽니다.

정토불교 체육지도자과정 제2기 교육생 모집

선 카이로프락틱, 운동처방, 선 내공체술

1. 본 교육연수원의 설립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홍보하기 위한 출가수행자 및 법사들의 포교방편과 스님들의 자활력을 갖춤으로써,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구제와 더불어 보시금이나 불전에 의존하지 않고, 주며 베푸는 떳떳한 스님을 양성키 위해 **정형외과 의사와의 대화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유능한 '카이로프락터'**로서의 정통교육을 힘씀에 있다.

2. 교 과 목 : 카이로프락틱 교정 이론 및 실기(해부학, 스포츠맛사지, 근육학, 운동처방 포함)
디스크(목, 흉추, 요추, 선추), 오십견, 두통, 관절통, 편마비 등의 교정 방법을
미국 팔머대학의 교재로 확실히 교육시킴

3. 과 정 : 2급과정 교육기간 2개월(총 108시간) 지도자 자격증 발급
1급과정 2급과정 수료자로서 교육기간 1개월(총 54시간), 카이로프락틱 마니 플레이션

4. 모집방법 : 2급과정 30명(선착순 마감)
● 지원자격 : 출가수행 스님 및 법사, 불자
● 입학금 및 강의료 : 출가수행 스님으로서 **승적증명서 제출자는 무료** (단, 식대 및 교재대 20만원)
● 원서접수 : 2004년 9월 2일 ~ 9월 25일 까지

5. 입학일시 : 2004년 10월 4일 (월요일) 13시

6. 원서교부처 :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교학과 042)635-8186, 818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4 호산빌딩

사단법인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 음악제

일시 : 2004년 9월 17일 오후 4시 ~ 6시
장소 : 옥천군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주최 : 옥천불교사암연합회. 옥천 문화원
출연 : 영화 '서편제'의 오정해. 신명 풍물예술단
문의 : 043)732-5560. 018-453-8453 (총무 혜철스님)



■ 출연자 프로필

▷ 오정해
• 학력 : 국악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졸업, 중앙대 예술대학원 음악대학 석사.
전주 우석대학교 국악과 겸임교수
• 출연작품 : 영화 '서편제, 태백산맥'. 뮤지컬 '쇼코미디'. 악극 '며느리 설움' 악극 '아씨' 등 다수
• 방송활동 : 1998년 EBS어린이 국악교사를 시작으로 다수 출연. 현재 MBC 국악으로 여는 아침 MC.
KBS FM 풍류마을 MC, 광주MBC 다큐세상 우리 MC 진행 중.

▷ 신명 풍물예술단
• 1990년 3월 청주에서 신명 풍물놀이로 창단.
• '제향 군인 학생 총회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세계 잼버리 축하공연', '유럽 7개국 순회공연',
'HI-SEOUL 페스티벌 공연'외 다수
• 풍물의 예술적 가치의 절대적 존속을 목표로 수많은 작품 활동을 펼침.
• 세계공연문화시장에서도 최상의 실력과 예술성을 인정받는 단체로 성장.

일주문



체육훈장 기린장 받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 법타 스님은 8월 29일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체육훈장 기린장을 받았다.



강원불교연합회장에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9월 8일 양양군 낙산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강원불교연합회 임시총회에서 강원불교연합회장에 선출됐다.



황룡사 대웅보전 상량식

인천 황룡사 주지 무원 스님(천태종 사회부장)은 9월 22일 오전 11시 대웅보전 상량식을 봉행한다. (032)567-2533



성북구민 걷기 대회 열어

서울 성북구사암연합회장 정수 스님은 9월 19일 북한산공원관리공단을 경유하는 성북구민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02)927-1232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로

조계종 前 사회부장 미산 스님이 2004학년도 2학기부터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국제포교와 비교종교학 과목을 담당한다.



교구합창단 워크숍 개최

진각종 문화사회부장 회성 정사는 9월 16~17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교구합창단 워크숍을 개최한다. (02)913-0751~4



부평에 다도문화원 개원

인천 안심선원 주지 정암 스님은 9월 16일 오후 1시 부평구 부평동 중앙시장 내에 위치한 다도문화원 '풍경소리' 개원식을 개최한다. (032)515-0109



동북아 평화포럼 및 출판기념회

국제평화지도자연합 상임이사 겸 인천지회장 성민 스님(인천 보명사 주지)은 9월 15일 오후5시 송도비치호텔에서 동북아 평화포럼 및 출판기념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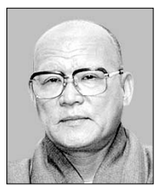
무의탁 노인위안 잔치마련

광주 서부경찰서불교회 김창배 회장은 9월 18일 광주 갤러리아에서 추석맞이 무의탁 노인을 위한 위안잔치를 개최한다.



'김주본 교통문화연구소' 후원법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김주본 前 회장은 9월 17일 오전 11시 대구 보현사 2층 법당에서 '김주본 교통문화연구소 개소를 위한 후원법회'를 거행한다.



도업 스님 동국대 경주 정각원장 취임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대학 교환교수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 교수 도업 스님(사진)이 9월 8일 제8대 정각원장에 취임했다. 초대와 3대 정각원장을 맡았던 도업스님은 이날 개강법회를 겸한 정각원장 취임법회에서 "교수 · 직원 · 조교 불자회를 강화하고 교내 불교도 연합회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종립대학의 설립취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역사적 불사에 사명감 커"

신계사 대웅전 복원 도목수 최현규 씨



"11월 19일이면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대웅전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조계종이 남북 불교교류의 한 획을 긋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을 맡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도목수(都木手, 우두머리 목수) 최현규(48, 문화재 수리기능자 제1521호 · 사진)씨.

9월 6일 찾은 경기도 여주 최씨의 공방(工房)은 신계사로 보내질 각종 목재와 장엄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대들보로 올려질 10m 길이의 3t 짜리 목재 2개와 300개가 넘는 서까래, 코끼리 코 모양을 하고 있는 용인 '상비룡(象鼻龍)' 등 공방에서 가공되고 다듬어진 장엄물들은 9월 16일 금강산으로 옮겨져 현지에서 조립될 예정이다.

11월 19일 복원 완료
목재 가공 막바지 작업

"대웅전 복원은 기둥과 장엄물을 조립한 뒤 지붕과 기와를 올리고 단청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설명하는 최씨는 "그동안 축적해 온 사찰 불사 경험을 바탕으로 복원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최씨는 1984년 여주 신륵사 심검당 중창 공사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총 30여 차례에 걸쳐 사찰 관련 사업을 도맡아 온 베테랑이다.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현지에서 초석 기초공사를 하고 돌아온 최씨는 "신계사 복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는 날 금강산에서 불자들과 함께 통일을 기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시민과 함께 문화 호흡"

예술축제 '팜' 연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



"일반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즉흥음악'이란 장르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불교계도 문화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교문화가 대중화될 수 있습니다."

9월 4~5일 '즉흥 놀이마당' 예술축제 팜(FAM, Folk And Modern)을 개최한 조계사 주지 원담(사진) 스님은 주지 부임 석 달만에 처음 가진 예술축제 팜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불교문화가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살아있는' 문화코드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한국 전통음악, 염불, 서양 고전 음악과 재즈, 교회 성악 등이 만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불교1번지 조계사
문화중심 도량될 것

즉흥음악과 한국 전통의 신명 문화는 맥을 같이 한다는 원담 스님. 스님은 '느낌의 예술'인 이들 문화의 만남을 통해 불교문화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담 스님은 특히 이번 축제를 계기로 조계사를 문화중심 도량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계사 인근 지역을 문화벨트로 묶는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정기적인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상설화할 방침이다.

"조계사는 한국불교의 상징입니다. 또 서울지역 불교의 심장입니다. 불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쉼터입니다. 이 부분에 모든 사업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원담 스님은 이 같은 생각을 오는 10월초에 발표할 '조계사 중창불사 4개년 계획'에 담았다. '조계사문화사업관' 신축, '재가불자 총림'으로서 조계사 수행원 위상정립, 자원봉사단 발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스님은 이와 함께 수행, 교육, 쉼터 공간을 분리하는 도량 정비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북한산 지킴이' 혜주 스님 입적



의정부 회룡사 회주이자 자비장학회 이사장인 혜주(慧珠) 스님(사진)이 9월 4일 새벽 회룡사 선방 치선당에서 입적했다. 세수 80세. 법랍 46년. 스님의 영결식은 6일 회룡사에서 봉행됐다.

1925년 출생한 스님은 62년 도준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 66년 비구니계를 수지했으며 제방선원에서 오랫동안 정진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불타버린 회룡사를 중창했으며, 자비회관, 자비유치원, 자비장학회 등을 설립했다.

스님은 입적하기 2년 전부터 북한산 관통도로를 막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자주해 왔다. 남동우 기자

법상종 종도연수교육



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9월 1~3일 안산 대선사에서 '불기 2548년 종도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교육은 교육원장 무성 스님의 '현대사회와 선불교' 강의를 비롯해 오형근 동국대 명예교수의 '유식학', 중앙종회 의장 도명 스님의 '기신론' 강의 등으로 2박 3일간 진행됐다.

본원종 하반기 종도연수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9월 9일 서울 평창동 연화정사에서 8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종도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원(원장 동광) 주관으로 열린 이번 연수는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보광 스님의 '정토교법' 특강과 종무행정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화순 만연사 범종 불사 천일기도 회향



화순 만연사(주지 정과)는 9월 4일 범종불사 천일기도 회향법회를 갖고 타종식을 봉행했다.범종각에서 열린 타종식에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이영남 화순 군수, 신도 등 3백여명이 동참했다. 정과 스님은 "오랜동안 끊겼던 만연산 범종소리가 다시 울리게 되어 화순이 부처님세상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

충남지방경불회, 소장품 전시회



충남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안중식)는 9월 6~8일 청내 직원휴게실에서 '가을맞이 개인회원 소장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경승실장 장곡 스님(갑사 주지), 송인동 청장, 충남도청 불자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전시회에서는 초의선사의 휘호 등 총 56점이 선보였다.

차문화협, 규방다례 전수관 현판식



(사)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귀례)는 9월 4일 부산지부(지부장 최영숙) 교육장에서 '규방다례 전수관 현판식 및 제7기 차예절 지도사범 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규방다례보존회 최소연 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02)701-0475

"도량이 건립됨은 이 땅을 불국토로 장엄하는 첩경이며,
그 곳에서 무량중생들이
다겁에 쌓은 번뇌와 망상과 업장을 녹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대도(大道)를 얻는 갖가지 수행문(修行門)을 열어
정각(正覺)의 절정에 오를 수 있을 것이며, 무진한 설법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고 법륜이 구르는 계기가 마련 될것이다."

대가람(大伽藍)은
대작불사를 하시는 스님에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종무프로그램 - 대가람(大伽藍)을 개발하였습니다.

●●● 1회 설치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신도수 제한없이 사용하며 업그레이드 비용은 무료입니다.
●●● 법회 및 불사에 필요한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식을 제공합니다.
엽서, 주소라벨, 인등, 편지봉투, 연등표, 사찰엽서….
●●● 설치 후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년 1회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해드립니다.

대작불사를 위한 종/무/프/로/그/램 大伽藍
大伽藍 대가람 DAEGARAM
구입문의 : 1544-0108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기존의 음향 시스템에서 스피커선 하나만 교체 하여도 음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불자 세상보기

최 성 렬
조선대 철학과 교수

驛 이름을 판다?

지자체 실시 이후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각 지자체마다 향토색을 진하게 드러내려는 움직임인 듯하다.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 특산물 등을 최대한 특성화 시켜보겠다는 전략이 그것이다. 이제는 먹거리나 볼거리 중심의 축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된 사례도 더러 있어 때로는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져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사라 P. 화이트의 <세상을 깨우는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책을 소개한 글에서 'H3 리더'라는 신조어를 본 적이 있다.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열정적이고(hot) 진보적이며(hip) 일을 만들어 가는(happening)' 사람들이라는 단어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말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울 때일수록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조직의 설계 및 운영을 창의적으로 해낸다는 것이다. 이는 100명이 넘는 뛰어난 리더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라는 점에서 귀를 기울여 볼 만하다.

그런 신선한 아이디어가 최근 경춘선 춘천 부근의 작은 역인 신남(新南)역에서 제시돼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기존의 역 이름을 김유정(金裕貞)역으로 변경하고자 한 청원이 그것이다. 이 역이 소재한 춘천시 신동면의 실레마을은 소설가 김유정의 고향이라고 한다. 그는 <동백꽃> <소낙비> <봄봄> <산골> 등 한국적 정서가 물씬 풍기는 소설 30여 편을 남기고 29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했다. 그가 남긴 문학사적 족적에 비해 지금 그곳에는 그를 기리는 기념비와 그가 심었다고 전하는 느티나무, 소설 <산골>에 등장하는 연자방아의 밑돌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초라하다고 한다.

사실 그 지역의 지명을 역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사고의 틀을 깨고 과감히 지역 출신의 인명으로 바꿔보겠다는 시골 역무원들의 생각은 대단한 도전이요, 그런 점에서 그들은 'H3 리더들'이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지난 9월 5일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이 발표한 '지하철 역 이름의 판매방안 검토'는 어떤가. 발상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김유정역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다. 하루에도 수백대의 지하철이 지나는 서울의 지하철역이 김유정역과 같은 사인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로 인해 시민이 겪어야할 불편과 부담을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고 싶다.

또한 정부가 내린 시정조치에 따라 2007년까지 전동차 내장재를 불연재로 바꾸고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약 2조8천억원의 시설보완을 위해 나온 고육지책이라면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그 엄청난 금액을 지하철공사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지하철이 서울시민의 전유물은 아닐테니 말이다.

또, 역 이름의 판매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전적으로 지하철의 안전을 위한 보수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역 이름의 판매 또는 임대라는 점에서는 우려되는 바가 한 둘이 아니다. 장기나 영구 쪽으로 갈 경우에도 기존의 이름과 함께 사용할 것인가? 공공시설이 사유화된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어쨌거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다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H3 리더'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그리하여 성공한 지자체의 사업 케이스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의 시장 지배력이 절대화되면서, 책의 문화적 가치는 노골적으로 밀려나고 있다.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의 주고객층인 20~30대의 기호에 맞는 대중적인 책만이 살아남고, 전문서나 종교서적 특히 불교서적은 거의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02년 통계를 보면, 출판사 19,135개 중 1종이라도 발행 실적이 있는 출판사는 1,524에 불과하고, 발행 종수의 70%는 상위 10%의 출판사가 점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 전문 출판사의 입지는 일반 중소규모 출판사보다 더 불리하다.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매상으로부터 홀대받고, 베스트셀러 위주의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대형서점에서는 사각 지대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최근 불교 전문 출판사들이 '불교출판문화협회'의 창립을 준비하는 것도 이에 대한 자구책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불교출판문화협회'에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불교출판문화협회' 창립에 부쳐

우선 '불교출판'이라는 본연만 잃지 않는다면,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기업적 성공에 진력하라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문서 포교 운운하면서 불자들의 감성에 호소하지 말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상당부분 '조합'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야만 물류 일원화 같은 필요에 대응할 수 있다. 비용 절감은 물론, 통합 유통으로 생산자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신생 출판사의 시장 진입을 도와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회원사간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이다. 함께하되, 같지는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공동기획의 정신이어야 한다. 안이하게 '불자'를 하나의 범주로 설정하여 '다들 읽겠지' 하는 허황된 기대를 버리고, 세대별 · 종단별 · 신앙정체성별로 섬세하게 접근하면서 전문성은 강화하고 중복출판은 피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서 상승 작용이 일어날 때, 일반 시장을 겨냥한 기획력이 창출될 것이다.

덕담을 생략하는 결례를 무릅쓰고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현 단계에서 협회의 기능은 회원사의 권익 신장이 아니라 '권익 만들기'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윤제학(아동문학가)

특별기고

불교 용어 표준화에 반대한다

한형조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누가 2000년의 불교 용어에 함부로 칼을 대는가

한국불교학회, 불교학연구회, 인도학회 등 14개 불교학술단체가 그동안의 한문 용어를 '버리고' 새로운 불교 용어를 '창안'하겠다고 선포했다. 그것도 연구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의무적으로', 즉 강제로 쓰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면 교과서 제작이나 논문 작성때 의무적으로 표준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다음뉴스에 인용된 '서울신문' 기사)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한국불교학회는 이 표준화 작업이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총무이사인 김용표 교수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표준화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고,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디 따져보자. 우선, 문제를 이렇게 설정한다. 왜 새삼 불교 용어가 표준화되어야 하는가. 한다면, 어째서 인도식 발음으로의 복고인가. 그것이 몰고 올 이익과 손해는 무엇인가.

'불교 용어 표준화 불사 위원회'가 내세운 표준화의 이유는 불교 용어가 중구난방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Kumalajiva(장음 표기는 생략했다)의 우리말 표기가 '구마라집' '구마라습' '구마라즙' '꾸마라지바' 등, 읊는 사람 각자의 학문 배경이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불교서적을 읽을 때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지나친 바가 있다. 예로든 구마라습은 십(什)자의 발음이 좀 애매한 특수한 경우이지, 대체로 우리말 한문 용어는 거의 통일되어 있다. 표준화는 이미 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가. '반야' '열반' '보리' '시방'에 무슨 제각각이 있고 중구난방이 있는가.

백보를 양보하자. 꼭 표준화해야 겠다면, 당연히, 수천년의 경쟁과 담금질을 견뎌낸 한문 용어여야지, 근본도 모르는 새 용어를 '수입'하겠다는게 가당한가?

위원회는 말한다. 그동안 써 온 한문 용어들은 구마라습 (새 표기법으로 하자면 꾸마라지와) 등 역경사들이 산스크리트와 팔리어를 중국음가로 표현한 것이기에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니, 정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초기 불교의 원음'을 '왜곡했다'고 당당히 말한다. 정말 그런가. 그럼, 어디 물어보자.

누가 부처님의 원 발음을 복원할 수 있을까. 없다.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는 붓다의 열반 이후 수백년이 지난 후에 불교가 기록될 때 비로소 채택된 언어들이다. 고타마 붓다 그분은 '반야'라고 하시지도 않았지만, '쁘라갸'니, '빤냐'니, '쁘라즈냐'니, '한야' '뽀오루어'라고도 하시지 않았다. 그렇다면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벳어, 서장어, 한문, 영어, 우리말 가운데 누구도 종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것은 이제 관습과 유용성의 선택에 달린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위원회가 채택한 표준 시안은 산스크리트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팔리어도 아니다. 이를테면 '쁘라갸'는 산스크리트 '쁘라즈냐'의 벵골 지방 사투리 발음이다. 산스크리트어만 해도 한 다리 건넜는데, 그 한 다리 건넌 말을, 그 근처 동네 사람들이 하는 발음이라고 하여, 그것을 지금 우리더러 강요한단 말인가. 인도어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웃하는 그 이상한 발음을 표준으로 삼자는 말인가.

내가 보기에, 위원회는 불교가 가장 경계하는 상견(常見), 즉 근본주의(fundamentalism)에 빠져있다. 그리고 위험하게도 수입상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기억하라. 한국 불교를 지켜온 것은 유학을 떠난 의상이 아니라,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선 원효였다는 것을. 중국불교를 일으킨 것은 끊임없이 인도의 원전에 조회한 현장이 아니라, 자신의 깨달음으로 당대 대중들의 불성에 직접 호소한 육조 혜능이라는 것을. 인도 유식을 그대로 수입한 법상종은 사라졌지만, 선(禪)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인도 원음으로의 표준화와 그 전면적 강요는 한국불교의 숨통을, 마침내, 끊어놓고 말 것이다. 용어 표기 하나 갖고 너무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다. 그렇지 않다. 용어는 그 안에 박제화된 의미만 통조림처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언어는 깊이와 표정과 울림, 그리고 신통력을 갖고 있다. 염불 소리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만 깊이와 표정, 울림과 신통력을 갖고 있기에, 염불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곳, 극락정토에 가 닿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신성한 '소리'를 함부로 바꾸거나 칼을 대서는 안된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를, "가떼, 가떼, 빠라가떼, 빠라상가떼 보디스와하"로 바꾼다고? 이제 한역 <금강경>은 버리고, 모두들 산스크리트본 금강경을, 그것도 벵갈 사투리로 더듬거리며 독송하자는 말인가.

새 표준안이 마련되면, 당장은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문가들은 어쨌거나 이 '이중장치'에 적응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지만, 불교에 '이미'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지식들과 전국의 신자들, 그리고 문화계와 학계의 지성인들은 이 혁명에 구토를 느끼고, 그 수용을 거부할 것이다. 천년을 이어온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과 한국 불교의 전통은 단절되고, 혁명정국이 오리무중을 헤매는 동안, 불교는 대부분의 청중들을 잃고, 자신의 생명력은 물론, 미래의 가능성까지를 스스로 고갈시킬 것이다. 그때 한국 불교의 등불은 꺼진다. 여기서 무슨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을 것이며, 어떻게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운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들이 바라는 것인가.

한문 용어는 존중되어야 한다. 왜냐.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지금' 그 한문 불교의 기반 위에서 불교를 말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누가 토를 다는가. 지금, 불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를 만드는 것은 '오직 인도 원전 불교'라는 아상(我相)이다.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불교는 구경이 아니라 방편(方便)이라는 것을. 불교는 어디까지나 도구이므로, 궁극적 권위는 없다. 원전도 없다. 궁극적 권위나 원전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나의 불성, 나의 마음일 뿐이다.

그러니 '하나의' 불교란 없다. '표준화된' 불교도 없다. 오직 불교를 말하고 익히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불교가 있을 뿐이다.

'현대' 만평 심 민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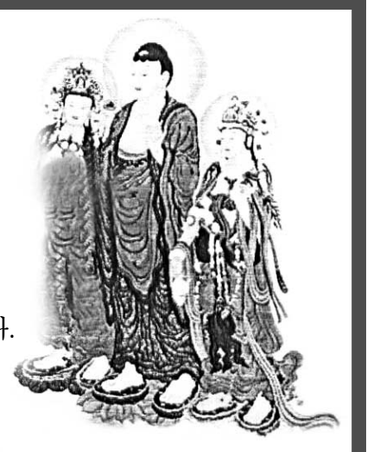


봉 제1회 낙태(유산)아 무보시 행
49일 천도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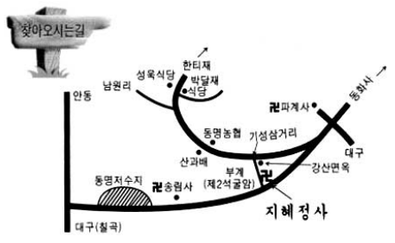
아빠, 엄마 저희에게도 새생명을 주세요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의 만남으로
46개의 인간염색체를 가진 뚜렷한 인간 그것은 바로 태아 입니다.
이것은 홍당무도 토끼도 아닌 오직 인간일 뿐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으로 비롯된 무서운 살생 그것도 바로 나의 자식을 살생한
과보를 그냥 무태반 하시겠습니까.
모두 참회 합시다.
그리고 허공을 떠돌고 있을 나의 어린 생명을 삶의 모습으로 되돌려 줍시다.

주지 지홍 합장



❖ 일시 : • 입재 - 10월 14일(음) 9월 1일 오전 10시
매주 목요일 (10월 21, 28일 11월 4, 11, 18일) 재봉행
• 회양 - 11월 26일(음) 10월 15일(동안결재)
※당일 대중공양 보시를 받습니다.
❖ 기도비 : 무 료
❖ 접 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 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위 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삼거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정법수행 정진도량 팔공산 지 혜 정 사

프로페셔널을 위한 www.drsaju.com
전문가 역학 커뮤니티
프로 사주박사
사주박사

전문 역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아카데미 프로 사주박사가 문을 활짝 열고
역학 고수를 꿈꾸는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프로 사주박사 (www.drsaju.com) 는...
* 프로 사주박사는 일반인들이 사주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 프로 사주박사는 역학에 대해 수준 높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각 분야의 권위있는 선생님들이 체계적인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 입니다.

2. 프로 사주박사가 회원님들께 드리는 파격적인 특전 - '사주박사 6.0' 사용
* 프로 사주박사의 회원(월 회비 36,000원)이 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전문 역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학 전문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 역학 전문가용 최신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은 현재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역학 프로그램 중 오류를 완벽하게 수정, 보완한 최신 프로그램으로 개별 구입 시 가격이 150만원이나 하는 고가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 사주박사 회원은 '사주박사 6.0' 프로그램이 수시 업그레이드 될 때도 제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원님의 개인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 관리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역학에 자신이 붙으면 개인 홈페이지 하나쯤 갖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프로 사주박사 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회원님을 위해 저렴한비용 (초기개설비 6만원)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정성껏 관리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빌딩 3층 선도텔레콤 주식회사
Tel. 02)742-3025~8 Fax. 02)742-3023

Btn 불교TV·무상사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www.btn.co.kr

"직지 사랑

인쇄문화 종주국으로서 당연하죠"



인쇄인 **박충일** 회장

(범국민직지회 회장)



"문화의 원류는 인쇄문화이며, 인쇄문화의 종주국은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 이하 직지>를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직지> 찾기는 인쇄문화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직지>의 계승자를 자임하며, <직지>찾기 운동을 활발히 주도하고 범국민직지회 박충일(신흥인쇄소 · 71) 회장. 40년간 인쇄인으로 살아온 그는 현재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회장으로 우리나라 인쇄산업계를 이끌고 있는 수장(首長)이다.

"1988년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개화기 연활자 도입이 언론에 미친 영향 연구>를 석사논문으로 제출했지요.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납 활자로 인쇄한 독립신문이 주제였는데, 훗날 <직지>의 존재를 알게 되고 제가 일본을 인쇄 종주국인 양 논문을 썼다는 생각에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직지>를 찾아 우리나라가 인쇄 종주국임을 만천하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원(願)을 품은 박 회장은 '청주 직지찾기운동본부',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등과 더불어 프랑스에 있는 '<직지> 반환운동', 국내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직지> 찾기 운동'을 벌였다. 각종 세계인쇄기자재 전시회에서 <직지> 반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고, 유네스코에는 <직지> 반환 요청 및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이었을까. 2001년에는 <직지>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에 이른다.

박 회장이 <직지>에 강한 애착을 갖게 된 것은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물'이라는 사실 말고도 한 가지 더 있다. 선(禪)의 요체를 담은 <직지>는 불서(佛書)라는 것. 신심 돈독한 불자인 그에게 <직지>는 인쇄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박 회장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의 자리는 늘 '불교'와 '인쇄'가 만나는 그곳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동국대 졸업 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곳이 동국대학교 내 인쇄소였으며, 그곳에서 처음 발간한 책이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의 <불교학보 1집>(1963)이었다. 65년부터는 독립해서 차린 신흥인쇄소에서 <불교학보>를 인쇄, 40집까지 도맡아 제작했다. 동국대의 <고려대장경 영인본>, <석보상절 영인본> 등도 모두 박 회장의 손을 거쳤다.

60년대 초반 광덕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기 아까워 스님께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자고 제안"했다. 광덕 스님은 "한 권의 책은 법사와 같다"며 이를 받아들였는데, 이때 탄생한 것이 <불광>지다. 이후로 박 회장은 불광법회 회장을 맡아 8년간 신도회 조직화에 힘쓰는 등, 불법과의 인연을 넓혀갔다. 아내 양문정(71) 씨 또한 20여 년간 '명등보살'로 강남구의 신도조직을 이끌며 박 회장과 보조를 맞췄다.

"광덕 스님께서 법회 때마다 대중들과 함께 다짐한 '전법오서(傳法五誓)'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전하는 것이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서원인데, <불광>지야 말로 저 같은 인쇄인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전법'이었던 셈입니다."

박 회장의 '전법'은 이것뿐이 아니다. 그는 1972년 언론 탄압정책으로부터 당시 유일한 불교계 신문이었던 <대한불교신문>을 지켜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당시 정부는 인쇄시설을 갖추지 않은 신문사는 폐간하도록 해, 인쇄시설이 없던 <대한불교신문>이 폐간 위기에 처한 것. 이때 박 회장은 자신의 인쇄소의 간판을 '대한불교신문사 공무국'으로 바꿔 달았고, <대한불교신문>은 폐간 위기를 넘겼다. 이로 인한 박 회장의 피해는 막심했다. "기독교 신자인 직원들은 새로 단 간판이 보기 싫다고 줄줄이 그

"佛書이기에 더 애착이 갑니다"
'직지'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기여
40년 인쇄업…문서포교 지원

만뒀고, 기독교 계통 거래처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정부관련 인쇄물 입찰 자격도 상실했지요." 그런 어려움을 박 회장은 불심으로 이겨냈고, 신흥인쇄소는 다시 번창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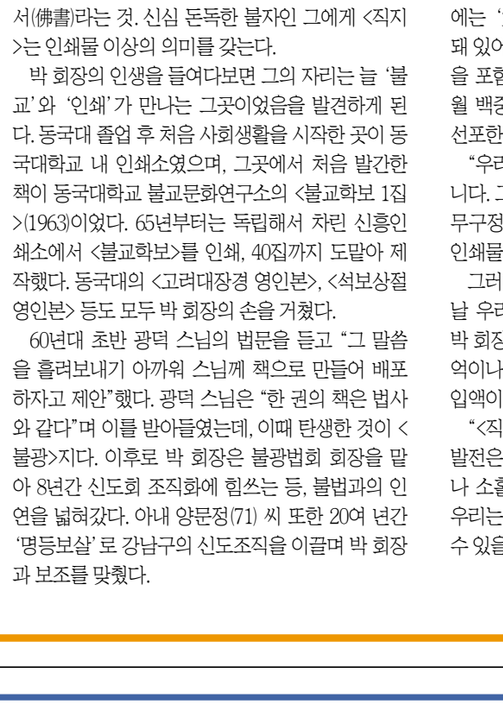
지난 9월 4일. 서울 인쇄정보센터에서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주최로 '직지 탄생일 선포식'이 열렸다. 현재 프랑스에 남아 있는 <직지>의 간기(刊記)에는 '宣光七年丁巳七月 日'로, 날짜가 공란으로 돼 있어 제작일을 알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 박 회장을 포함한 인쇄인들이 학계의 자문을 받아 당시 7월 백중에 해당하는 8월 19일을 <직지> 탄생일로 선포한 것이다.

"우리 인쇄문화의 발전을 주도한 것은 불교였습니다. 그 사실은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물인 <직지> 등이 말해줍니다."

그러나 선조가 빛낸 인쇄 문화와 대비할 때, 오늘날 우리의 인쇄기술의 위상은 초라해 부끄럽다고 박 회장은 고백한다. 윤전기 생산 능력이 없어서 45억이나 하는 윤전기를 수입해야 하고, 인쇄 관련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는 것이 현실이다.

"<직지>는 우리의 뿌리에 관한 문제요, 인쇄기술 발전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므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두 과제를 성취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직지>의 참된 계승자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박익순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성종사는 충북진천군 덕산면 함목리에 부지 6,000평 넓이 530평 높이13m 공장을 완공하여 최대2만관규모의 종을 제작할수 있는 국내 최대의 제종소를 가동중입니다.

世界가 격찬한 소리와 문양, 聖鐘社 梵鐘

본사는 옛날 신라인들이 名鐘을 제작하는 기법인 밀랍(蜜蠟)주조공법을 재현하는데 성공하여 그 예술적 미와 아름다운 소리를 후손에게 다시 보고 들을수 있게 하여, 세계에 우리나라 범종의 우수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사는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신라범종의 섬세한 문양과 아름다운 소리를 재현함으로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폴, 미국, 말레이지아등 세계각국으로 수출, 그 예술적 가치와 명품의 소리를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는 50여년간 범종의 문양과 소리의 연구에 매진하여 범종계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명장과 인간문화재로 지정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인정신으로 더욱정진하여 이시대에 걸작품의 범종을 주종하는데 매진 하겠습니다.

2004. 5.

성종사 대표 원 광 식 합장

성종사 보유 신기술

◎ 밀랍주조공법 범종의 표면에 기포없이 깨끗하고 정교한 문양으로 주조하는 공법
◎ 음향조율기술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로 음향을 분석, 음의 질과 양을 조절하는 기술
◎ 특수 열처리공법 금속 조직을 균일화 시켜 질감있는 소리, 부드럽고 은은하게 하는 공법
◎ 특수 착색 공법 범종의 착색에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아름다운 색상을 재현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목리 406-28 TEL : 043-536-2581 / FAX : 536-2582
● 홈페이지 : www.sungjongsa.co.kr E-MAIL : sungjongsa@hotmail.com





△정통양식의 문양은 정교하면서 깨끗한 표면으로 주조되었다(上)
밀랍주조공법으로 재현한 아름다운 비천상(下)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16>

삼매얻는 사마타 수행법

사마타를 수행할 때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삼매입니다. 삼매는 정(定)또는 정수(正受)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마음이 한 군데로 집중되어 흐름이 멈추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대승경전에서는 삼매를 부처님이 깨달아 누리는 완전한 경지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짙은 반면, 초기경전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과 과정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또 삼매의 종류에 있어서도 대승경전에서는 백천삼매라 하여 해인삼매, 무량의처삼매, 금강삼매, 여환삼매



등 무수한 삼매를 말하는가 하면 초기경전에서는 단계적 측면에서 근접삼매, 본삼매 등 몇 가지의 삼매만 말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대승경전에서는 사마타를 닦아 삼매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초기경전에서 주로 그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경전에 있어 삼매는 그 차원에 따라 초선정에서 8선정까지 여덟 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깊어질 수록 마음속에 존재하는 오개(五蓋) 즉, 감각적 욕망, 분노, 들뜸, 혼침, 나약함 다섯 가지 장애를 비롯한 갖가지 번뇌들이 정화되어 나중에는 완전한 깨달음과 흡사할 만큼의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초기불교의 대표적 논서라 할 수 있는 <청정도론>에 의하면 40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마타를 닦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 가지 주제란 10 가지 까시나, 10 가지 부정관, 10 가지 수념, 4 가지 거룩한 마음, 4 가지 무색의 경지, 음식을 관찰함, 4대 원소의 특성을 관찰함을 말합니다. 수행자는 이 가운데 자신의 기질에 맞는 주제 한 가지를 택해 집중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래 까시나란 '주변에 가득하다'는 의미를 지닌 용어로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 얻는 일종의 도구나 대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열 가지 까시나는 땅, 물, 불, 바람,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흰색, 광명, 한정된 허공을 가리키며 수행자는 이들 가운데 하나의 까시나를 구하여 삼매를 얻습니다.

다음 10 가지 부정관은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10 가

까시나·부정관·수념 등 각양각색 방법 제시

지 더러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상념을 키워 삼매를 얻는 방법이며 10 가지 수념은 불, 법, 승, 계, 보시, 열반, 천상, 32부정관, 수식관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집중하여 삼매를 얻는 방법입니다.

4 가지 거룩한 마음은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킴,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일으킴,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킴, 평등한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삼매를 얻는 방법입니다.

4 가지 무색의 경지는 앞의 까시나 등의 수행에 의해서 얻어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의 경지를 삼매로 삼는 방법입니다. 논서에는 사마타를 닦는 법으로 이와 같은 40 가지 주제만을 말하고 있지만 부처님이 설 하신 경전을 볼 것 같으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마타를 닦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마타 수행은 반드시 더 높은 차원으로 향하는 위빠싸나 수행으로 전환돼야 한다는데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마선원장>

둘 아닌 도리알면 새 인생 열린다

생활선 보급하는 공생선원

"석달 간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성품자리에 의지해 살아오셨다면 천리 밖이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9월 7 일, 서울 쌍문동의 한 상가 7층에 자리잡은 공생선원(주지 무각). 앞이 탁 트인 통유리를 통해 오른쪽으로는 수락산이, 정면으로는 도봉산의 만장봉이 펼쳐진 108평의 선원에서 30분 간의 좌선 시간이 끝난 뒤 곧바로 무각 스님의 법문이 시작됐다.

이 날은 무각 스님이 선원 운영을 신도회에 맡긴 채 백양사에서 석달 간의 하안거를 마치고 돌아온 날인데다, 새로이 '선으로 푼 <금강경> 강좌'를 시작한 날이라 평일인데도 60여 신도가 자리를 함께 했다.

무각 스님은 백양사에서의 공부담을 예로 들며 불이법문(不二法門)에 대해 주로 설했다.

"백양사에서 한 사미승이 목이 쉬고 살이 빠질 정도로 염불하는 모습에 신심을 내었습니다. 그 사미승을 보고 신심이 난 내 모습이 결국 그와 둘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인상을 찡그리면 온 집안에 찬 바람이 돌고, 웃으면 화기가 가득한 것이 둘 아닌 도리입니다. 이것이 최상승 불이법문의 요체입니다."

무각 스님은 절에 가면 일주문-천왕문-불이문을 지나야만 법당의 부처님을 뵙듯이, 불이법문을 알아야 살아있는 부처를 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이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법당 문턱이 닳도록 넘나들어도 참 부처를 볼 수 없지만,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되면 참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매순간 찰나찰나 정성스럽게 쓰는 그 마음이 부처입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작용 속에서 불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처임을 믿어야 합니다. 늘 성품자리에 머물고, 둘 아닌 가운데 분별심을 항복받아야 합니다."



7일 공생선원에서 좌선 중인 불자들을 지도하는 무각 스님.

'마음공부가 생활을 떠나 따로 있다고 한다면 이는 착각'이라고 강조한 무각 스님은 불이법문을 알면 자기 마음이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의 나툼임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스님의 <금강경> 강좌에서도 불이법문의 요지는 벗어나지 않았다.

"< 금강경>을 보되 보는 자와 <금강경>, 보는 작용이 따로 있다면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세존과 수보리, 선남자, 선여인이 따로 있다고 본다면 이 역시 둘 아닌 문에 들지 못한 것입니다."

무각 스님은 <금강경>의 핵심을 '응당 어떻게 머무는가(應云何住)',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오리까(云何降伏其心)'라는 이 두 구절에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 답은 무엇일까.

"우리는 늘 본래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본래 자리, 성품 자리, 주인공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둘 아니게 놓고 가야 분별심과 망상을 항복받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 남녀, 옳고 그름 등 모든 것이 다 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 밝음으로 돌아가야 해요."

이러한 무각 스님의 평소 설법은 신도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고 한다. 2002년 9월 8일 개원했을 때는 50여명에 불과했던 신도가 지금은 50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참선을 통해 불치병이나 심적 고통을 극복한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대부분의 신도들이 자기 위주의 삶에서 타인과 둘이 아닌 공생(共生)의 삶을 살게 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신도회 총무 소임을 맡고 있는 최국원(53 · 자영업) 거사는 "2년 동안 선원에서 공부하면서 화 잘 내고 급한 성격이 너그러워지고 차분해져 주변인들이 놀란다"며 "늘 어떤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자성 자리를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다 보니 극락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공생선원은 매주 화요일(오전 10시30분, 오후 7시30분) 금강경 강의 외에도 가족참선법회(매주 일 오전 10시30분), 청년법회(매월 첫 · 셋째 토 오후 4시), 참선입문반(매주 수 오전 10시39분, 오후 7시30분), 참선반(매주 금 오전 10시30분, 오후 7시30분) 등을 운영하고 있다. (02)900-2448

김재경 기자

영흥 스님, 두번째 선어록 '해탈' 펴내



"다함께 홀로서로 통해 온 법계를 이루고 동서남북에 해와 달을 쌍으로 띄우며, 낮에는 꽃을 심고 꽃을 가리키고 밤에는 마니주 뿌리고 마니주 굴리구나. 하!"

충북 진접 불뢰굴(佛賴窟)에 주석하는 영흥 스님이 <납승가-누더기 중의 노래>(하늘북)에 이어 두번째 선어록 <해탈>(하늘북)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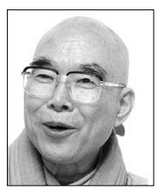
이 책에서 영흥 스님은 "다함께 스스로 온 법계를 이루고 지금 이대로 여여한 세상 열고서 서로 통해 무한한 낙 누리니, 보배 중의 보배이신 삼보님께 지심귀명례하며 이 책 한권 올립니다"라고 발원하고 있다.

'오로지 그대 자신이 부처이기에 지금 이대로가 무한한 자유'임을 설파하는 영흥 스님은 "봄에는 봄을 펼쳐 만백성이 즐기고 가을에는 가을을 거둬 그대가 누리구나"라고 노래한다. 스님은 체험에서 나온 내면의 목소리로 '눈썹털 끝의 법왕궁이요 배꼽 속의 도솔천 내운궁'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20 대 초반, 망월사에서 우연히 친견한 춘성 스님의 벽력같은 고함소리(가! 가! 가!)에 자성(自性)을 깨닫게 되었다는 영흥 스님은 1974년 백양사에서 서옹 스님을 은사로 수계득도한 뒤 청담, 벽초, 회암, 전강, 경봉, 향곡, 서옹, 월산, 구산, 고암, 서암, 성수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을 참문해 거량했다. 현재 인연있는 참선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고우 스님 초청 '선요' 특강



불교TV 대구지사 선불교대학 무상사는 9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14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고우스님(사진) 초청 <선요> 특강법회'를 마련했다. <선요>는 선가에 내려오는 선에 대한 지침서로 재가자들에게 강의하는 일은 드문 일이다.

각화사 고우스님은 1968년부터 69년까지 문경 봉암사 선원을 재건해 종립특별선원의 기틀을 다지고 축서사, 김용사, 용주사, 각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한 이시대 대표적인 선원장 스님이다. 14주간 '내가 부처'라는 화두를 풀어나가게 될 법회가 재가자들에게 올바른 선수행과 삶의 바른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053)754-6633

'수사모' 방장친견 및 좌선

'수덕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cafe.daum.net/snimyd)'은 9월 18일 오후 5시~19일 오전 11시 수덕사에서 정기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모임에서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 친견, 교리공부(부처님 생애), 좌선 및 운력 등으로 진행된다. '수사모'는 인터넷 다음 카페(daum cafe)의 '우리는 스님을 만나요'에서 만난 회원들과 수덕사 여름 선실천수련회 동문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문의 sunnamja70@hanmail.net

명상상담硏 집단상담

명상상담연구원(원장 인경)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목우선원 명상상담연구원에서 제27차 '고집멸도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동참금은 15만원. (02)2236-5306

대구 보현사 사경반 개설

대구 보현사(주지 원일)는 9월 8일부터 사경반을 개설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사경반은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 회장의 지도로 진행된다. 이번 사경반은 철저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053)431-5400

「4박5일 기공 지도사반 강좌」
불가에서 비밀리에 전해져온
신비의 氣치료법 전수!
전신모세공 호흡법으로 사기, 병기를
배출하여 육체를 정화하는 비법!
天一氣功
www.chgg.co.kr
통증치료법의 전수를 밝힌다!
소주천속성법, 상기병을 치료하는 호흡법
※영가천도 많이 하셔서 몸이 탁해 지신 스님들
탁한 기운 스스로 정화하는 법 공개
천일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Tel. 054)638-2224

최면 영치유 특별 개인지도
전생 치유·빙의령 대화 천도법
철저한 개인지도만이 기존의 영적경험과 연결하여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상 핵심노하우를 중심으로 실기훈련을 통해 100% 완성도를 목표로 확실히 전수되었을 때 졸업합니다.
철저한 개인지도 후 기도와 천도재, 구병시식 전.후에 꼭 필요한 "빙의 영가 대화법과 영치유과정"을 통해 빙의영가, 빙의환자 그리고 가족의 모든 원을 풀고 명확하게 치유하여 자비광명을 베푸실 수 있게 됩니다.
● 영가 대화가 필요한 대상
빙의환자, 사고사, 병사, 돌연사, 낙태자, 천도재 후에 빙의증세 재발, 천도재 중에 몸부림과 반항, 기도 중에 이상행동, 원인불명의 질병과 재발, 죽은 사람의 생전 병을 앓는 경우, 죽은 사람 꿈 반복, 가정파탄과 가족환자, 환청, 환각, 급.만성병 등은 반드시 빙의영가 확인 요망
● 교육내용
1.최면이론과 실기: 최면원리, 최면명상유도법, 깊은 최면유도법, 자기최면, 타인최면, 자율훈련(AT), 깊은 참선유도법, 4단계 문답 아상파괴법, 특수기공치유암시법
2.영치유 대화천도법: 빙의 확인법, 영가대화 실기, 빙의영가.환자 영치유법, 해원.업장소멸법, 반항영가제압법, 가족해원법, 최면제령천도법, 천도확인법, 재접신.빙의방비법, 심신관리법
3.전생퇴행 영치유법: 업장소멸, 인과응보의 악순환의 고리단절, 전생흔적으로 인한 심신질환 치유
4.연령퇴행,미래진행: 현생의 심리적 충격과 상처, 문제핵심감정치유, 자신감 강화와 미래비전형성
5.원격.초혼 영치유 천도: 중환자, 의사소통불능자, 사고사, 병사, 돌연사, 자살한 영가를 초혼하고 영치유과정을 거쳐 천도함.
교육시간: 총 30시간(총 6일 각 5시간 실기집중) 개인지도 후 즉시 활용, 책임지도
교 육 비: 200만원(기본교재, 핵심자료 제공) 지속적 사례연구와 빙의상담 자문
개강일시: 2004. 9. 17(금) 오후 1:00~6:00
한국최면심리연구원/ 부설 빙의 영치유 연구회
문의전화: 042-603-7080, 603-7887, 016-406-3639
위 치: 대전 서구 둔산동 법원. 검찰청 후문 앞 아너스빌 1226호
홈페이지: www. TryuCan.com

수련자 모집
골절 탈구, 염좌, 척추, 관절에 대한 응급처치
실기, 실습, 개인지도, 희망자 약간명 모집
전수한 접골시술을 40년간 접골원 임상 경험
연구한 특수비법 무통시술 법
맛사지, 지압, 교정, 운동법, 고정법 도수정복
● 문의전화 : 02)476-4761
050-21-757575
● 오시는길 : 서울 강동구 천호동 신4거리
현대백화점 건너편 민병철 어학원 건물
건강제약국건물 406호
(지하철 5, 8호선 천호역 하차 2번 출구 앞)
원장 접골사 유도 7단 元源福

불기 2549년을 맞이하여 원일카렌다에서는 참신한 기획과 디자인으로 2005년 카렌다를 불자님께 널리 보급하고자 제작 하였습니다.
카 렌 다
2005년 불교카렌다 출시
15년 전통 최고의시설 최상의제품
후회없는 선택! 원일카렌다!
* 1.000부이상 주문시 표지그림으로 귀 사찰을 넣어서 인쇄를 원하시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사진 또는 필름사용 가능)
* 각 사찰카렌다 독판을 저렴하게 제작하여 드립니다.
* 문의사항 전화주시면 카다록을 보내드립니다.
원일문화사
FINARTTREE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38-8
TEL:02)2277-0304
FAX:02)2268-6732
Homepage:www.wonil-c.co.kr



정태혁 교수에게 듣는 종교별 명상법

명상 알면 이웃종교 보여요

"명상은 불교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기독교의 묵상기도도 명상이라고 하나요?"

최근 인터넷 검색사이트 지식정보 찾기 코너에 올라온 질문들이다. '명상'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 가부좌와 꼭 감은 눈만으로도 '명상'을 논하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종교의 핵심은 명상에 녹아있다"며 그 방법과 과정을 상세하게 풀어내고 있다. 정태혁 동국대 명예교수가 최근 다시 펴낸 〈명상의 세계〉(정신세계사)를 통해 종교별 명상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유교

본래 성품 되찾아가기

"수산이라는 산에는 나무가 아름답게 우거져 있었다. 그런데 마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마구 베어갔다… 그래서 벌거숭이산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산에 처음부터 나무나 숲이 없었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그 산의 본래 모습이랴. 사람도 이와 같으니, 사람에게는 본래 인과 의가 있어 이것이 본성이 되었는데, 기질에 얽매어 자꾸 베고 뜯으니 그대로 보존될 수 있겠는가." (〈맹자〉 '先子章')

유교에서는 본래 산의 모습을 되찾는 노력, 즉 본래 성품을 되찾는 과정을 '명상'이라고 보고 있다. 흔히 유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겨내라고 하여 '극기(克己)'를 강조한다. 이때 이겨야 할 대상은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이며 이를 극복하는 것은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유학자들은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본성'이란 어떤 것일까. 퇴계 선생은 "거울 앞에서 사물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춰지듯이, 마음의 본성역시 이와 같아 사물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게 된다. 마음이 항상 맑고 비어있으면 때가 묻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요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음을 비우는 노력이 곧 유교의 명상이다. 정태혁 교수는 "그저 고요히 앉아 있는 것을 넘어서 지극히 착한 마음을 갖는 것도 유교의 명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도교

'마음'과 '숨' 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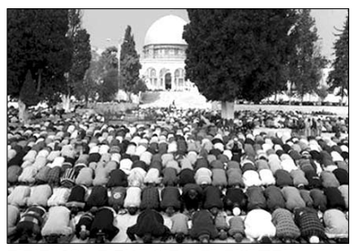
〈장자〉의 심제법(心齊法)에는 마음을 고르게 하는 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가 실려 있다.

"만약 뜻을 한결같이 가지려면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으며, 마음으로 듣지 않고 기(氣)로 들으며, 듣는 것이 귀에서 그치며, 마음이 신령에서 그쳐야 한다. 기라는 것은 텅 빈 것이나 사물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오직 기를 텅 비우는 것이 도(道)이니, 비우는 것이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니라."

장자는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으로 도교 명상을 시작하고 있다. 마음을 한결같이 통일한 후에는 마음으로 숨을 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마음으로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로 들을 것'까지 권하는 것이 도교의 명상이다.

즉,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 '마음'과 '숨'은 구별할 수 없는 하나가 되고, 숨은 마음의 듣는 대상이라 부를 수 없게 된다.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어 대립이 끊어진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 역시 최상이 될 수 없다.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명상이 깊어지면 완전한 무감각의 세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 세계가 곧 기로 듣는 세계이자 자연 그대로의 상태, 즉 道이다. 정태혁 교수는 "텅빈 상태, 道 그대로의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음이 한결같이 고르게 된다"며 "이것은 도교가 지향하는 명상법의 하나"라고 말한다.



라마단(9월) 기간에 알라신께 경배드리는 무슬림들.

기독교

신에게 모든 것 맡기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세계의 창조주이자 궁극적 신앙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명상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의 집중과 관련이 깊다. 즉, 완전한 존재인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은총 아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상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무엇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 주님이 주는 영원한 사랑, 관용과 용서의 마음 등이 그 예다. 두 번째로는 호흡에 대하여 의식을 집중하도록 한다. 대상자는 날숨에 불안을 떨치고 들숨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들이마실 것을 간절히 기도한다.

이로써 마음이 편안해지면 마음 속 의식을 하나님께 집중한다. 잡념이 생긴다면 그 잡념까지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얻은 집중력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명상으로 접어든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어 오감을 모두 동원하여 성서에 대한 명상에 집중한다.

또한 꿈에 나타나는 무의식의 세계도 명상해 본다. 꿈 역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는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기독교 명상에서 말하는 궁극의 단계는 역시 '신과 합일되는 단계'다. 정태혁 교수는 "나라는 인간이 무로 돌아가서 비로소 신의 경륜으로 이루어야 가장 높은 단계의 참된 명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슬람교

죽음 상상하고 떠나기

이라크의 나크샤반디는 그의 저서에서 수피즘의 명상을 다음과 같이 간략한 시로 기록하고 이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

"앉는다, 눈을 감는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네가 죽고 고인(故人)을 추모하는 조문객과 심판에 직면하여 홀로 떠나는 너의 모습을 그린다/ 너의 모든 감각에 집중한다/ 마음속의 일시적인 충동과 잡념들을 내쫓는다/ 그리고 너의 감지력을 신을 향해 돌린다."

타고르에 필적하는 시인으로 알려진 신비가인 무하마드 이크발 역시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네 가지 단계를 가르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신과의 합일을 추구한다.

첫 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요, 둘 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탐구요, 셋 째는 자기 영혼의 깊을 곳을 들여다 보면서 얻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한 지식이요, 넷 째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의 현실화, 곧 깨달음이다. '현실화'는 명상을 통해 신과 합일하는 경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 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선의 세계 ⑲

돈오(頓悟)-2

돈오, 즉 단박에 깨친다는 얘기는 선종 이전에도 이미 있었다. 그러나 돈오를 핵심 교의로 들고 나온 것은 선종이었다. 선종에서는 돈오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배지로 삼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종에서는 점오지만 선종은 돈오라고 내세웠던 것이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떤 일에나 점진적인 과정이 없을 수 없겠건만, 아무튼 선종에서는 단박에 깨치는 것을 강조한다. 선사들의 어록을 보면 단박에 깨쳤다는 일화가 무수히 나온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도 당사자의 수행이 쌓여서 그럴 만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기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비유컨대, 풍선이 터지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터지기까지는 바람을 불어넣는 과정이 생략될 수 없다. 석가모니의 대각(大覺)도 긴 수행, 심지어는 무수한 전생(前生)에 걸친 수행의 결과라고 하지 않느냐 말이다.

하지만, 선사들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 점차 수행하는 과정을 밟아가서 마침내 깨달음이 터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깨달음이란 뜬금없이 터지는 것이란 말인가? 선의 문헌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다분히 그런 인상을 받곤 한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그야말로 뜬금없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선종에서 그토록 힘주어 말하는 것을 보면 뭔가 연유가 있기는 있을 터이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단박에 깨친다는 교의의 바탕 가운데 하나는 본각(本覺) 사상이다. 실상은 중생이 모두 이미 깨달아 있는데, 다만 어리석어서 자기가 이미 깨달음을 지니고 있음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음만 떨쳐버리면 된다. 특별히 새로 깨닫고 말고 할 것이 없다. 하지만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진상을 알아차리는 데에도 어떤 과정이 있을 터인데 어찌 단박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그런데 불교, 특히 대승불교, 더 특히 선불교에서는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고 본다. 관념으로 지어낸 허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실은 떨쳐버리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 어리석음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이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것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나누는 분별이다.

자기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을 귀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그걸 채우려고 살아가는 모든 행태가 어리석음이지만, 그런 행태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와 너를 구분하는 분별 때문이다. 그 분별 또한 불이법(不二法)이라는 진상의 터전에서 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환상일 뿐이다.

그래서 전에도 말했듯이 이에 대해 불교의 가르침에서 흔히 등장하는 것이 꿈의 비유이다. 사바세계에서 제 한 몸 보존하고 영달하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다 꿈같이 허망하다. 그리고, 꿈속에서는 그게 꿈인 줄 모른다. 물론 간혹 꿈속에서도 이게 꿈인데 하는 의식이 아련하게 들 때가 있다. 그래도 꿈속의 상황에서 허우적거리기는 마찬가지이다. 〈구운몽(九雲夢)〉을 비롯해서 꿈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많다.

중생은 이미 깨닫고도 몰라 헤매 어리석음만 벗어나면 진상 보여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꿈속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깨보면 그 모두가 허망하고 자기는 원래 제자리에 있더라는 얘기이다. 현실에서 보자면 그 제 자리에서 벗어난 적도 없고 그러므로 되돌아 길을 밟아오는 과정도 없다.

꿈은 현실이 아니니까, 현실을 말할 때에는 끼어들 데가 없다. 본각이라는 것도 그런 얘기를 하는 개념이다. 그런 본각의 입장을 바탕으로 하는 돈오라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깨친다는 게 본래 없다는 뜻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영양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가막힌 복이틀어와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출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단기속성반 3개월 과정 (제19기)
● 교육방법 : ① 출강 … 매주 화요일 · 금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교육내용
① 송주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제출 (현재 접수중)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 개강일시 : 10월 5일 (화) 오후 2시, 본대학 강의실(목탁, 필기구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지도와 편의 제공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12) 불교와 주자학, 혹은 발견이냐 성취냐

미안합니다. 제 강의는 본래 두서가 없습니다. 독자들 가운데는 제가 <금강경> 강의를 하겠다고 간판을 걸고선, 정작 경전 본문에는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나 늘어놓는다고 핀잔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변명을 좀 해볼까요. 이 참에 이 강의의 성격을 한 번 더 분명히 해 둘 겸해서 말입니다.

길거리의 잡담으로 불교를 말한다

1)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금강경>은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새삼 보여줄 뿐이지요. 수많은 선지식들과 만해 스님이 일러 주듯이 "<금강경>은 먹으로 씌어진, 펼쳐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2) '마음'에 관한 이야기이기에 무슨 얘기도 적절치 않지만, 또 반대로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불교는 전자에 초점을 맞춥니다마는, 저는 후자에 더 신나합니다. 원효 스님은 <대승기신론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면 수많은 교설로 펼쳐지고, 닫으면 한 마음으로 모인다. 열고 닫음에 자재하고, 세우고 부숨에 걸림이 없다. 펼쳐도 엉키지 아니하고, 닫아도 협착하지 않다. 세워도 얻는 것이 없고, 부수어도 잃는 것이 없다."

그런데 제 강의가 이 펼치고 조이는 사이 어디쯤에 있기는 한건가요. 3) 그렇다고 무슨 얘기나 다 금강경이 될 수는 없겠지요. 서가에는 <금강경>의 구절들을 주석하고 의미를 풀이해준 수많은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지요.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금강경>을 말하고 싶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강의 맨 첫머리에 인용한 경허 대사의 말씀을. "그 뜻을 얻으면 거리의 잡담도 다 진리의 가르침이요, 말에서 헤매면 용궁의 보배곳간도 한바탕 잠꼬대일 뿐이다(得其志也, 街中閑談 常轉法輪, 失於言也, 龍宮寶藏 一場寐語)." 바라건대는 제가 소옥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거기 낭군을 그리워하는 양귀비의 마음이 담겨있음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래도 우리가 어디메쯤 있는지는 알아야겠지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손바닥 안입니다. 우리는 아직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제목 속에 있습니다. 아직, '반야'를 더듬고 있는 중이지요. "반야는 무엇을 깨고자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번뇌와 무지이다. 그럼, 이 번뇌와 무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강화되는가." 저는 이 물음이 <금강경>뿐만 아니라 불교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오랫동안 이 문제를 설파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금강경> 본문은 더듬을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글쎄요. 불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선이 바로 그러자는 것 아닙니까.

아프리카에도 불법의 바퀴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배짱을 내밀고 나서, 또 엉뚱한 얘기 한 자락을 늘어놓을까 합니다.

성운 대사의 불광사 탐방

지난 주에는 대만의 학회에 다녀왔습니다. "동아시아 근세 세계관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불교와 노장, 그리고 주자학을 한 자리에서 논하는 세계 학자들의 학문적 친교적 잔치였습니다. 처음 해 보는 엉터리 중국어 발음이 청중들을 심하게 고문(?)했을 것입니다. 제가 다룬 주제는 노장과 불교, 그리고 주자학 사이의 삼각관계였습니다. 셋을 비교한 다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래는 주자학의 유위(有爲)의 길보다, 노장과 불교의 비역압적이고 다문화적이고 관용적인 무위(無爲)의 기획에 편들지 모른다. 당신은 어느쪽인가."

이틀간의 학회를 마치고, 그 곳 절을 두군데 들렀습니다. 처음 간 곳이 승천선사(承天禪寺)였는데, 일요일 아침 수많은 신도들이 산사로 향하는 골목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안내자는 혼잡해서 분실의 우려가 있으니 신발을 들고 들어가라 하고, 제 옆의 교수는 "누가 갖고 가겠소. 그냥 두고 갑시다"라고 해서, 저는 잠시 갈등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 신발을 들고 들어가다가, 다시 나와서 신발장 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인간사, 마음 내려놓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천정에는 '지장법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들 소리를 모아 독송하고 있는 중인데, 소리는 좀 다르지만, 그건 틀림없는 '천수경'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주지 스님과의 점심 약속은 너무 혼잡하고 경황이 없어서 두고 나와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이 불광사(佛光寺)였습니다. 현대식이 가미된 웅장한 가람이었는데, 저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성운 스님의 법문을 직접 들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지만, 스님께서는 세계를 누비며 포교하고 계시느라 지금 아니 계시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법의 바퀴 소리가

실망한 얼굴로 대웅전의 옥부처님께 참배하고 법당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검은 얼굴로 승복을 입은 청년 둘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도인들 같지는 않고, 동남아시아에서 온 스님들치고는 너무 얼굴색이 검었습니다. 말을 붙여 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며, 짐바브웨였던가요, 거기서 불법을 배우러 왔다고 했습니다. 아니, 아프리카까지?

저는 물었습니다. "그곳의 종교는 기독교 아니면, 이슬람이라고 들었는데, 어째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소?." "평화의 복음! 처음, 포교사들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 기이한 예배와 낯선 독송 소리를 웃고 놀렸지만, 조금씩 불교의 비폭력과 공존, 관용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그 가르침을 더욱 깊이 알고, 또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은 아프리카에서 불교가 아직 미미한 소수이지만, 전쟁과 혼란, 그리고 종교간 대립이 일상화된 그곳에서 불교의 목소리가 점점 크게 울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사람을 만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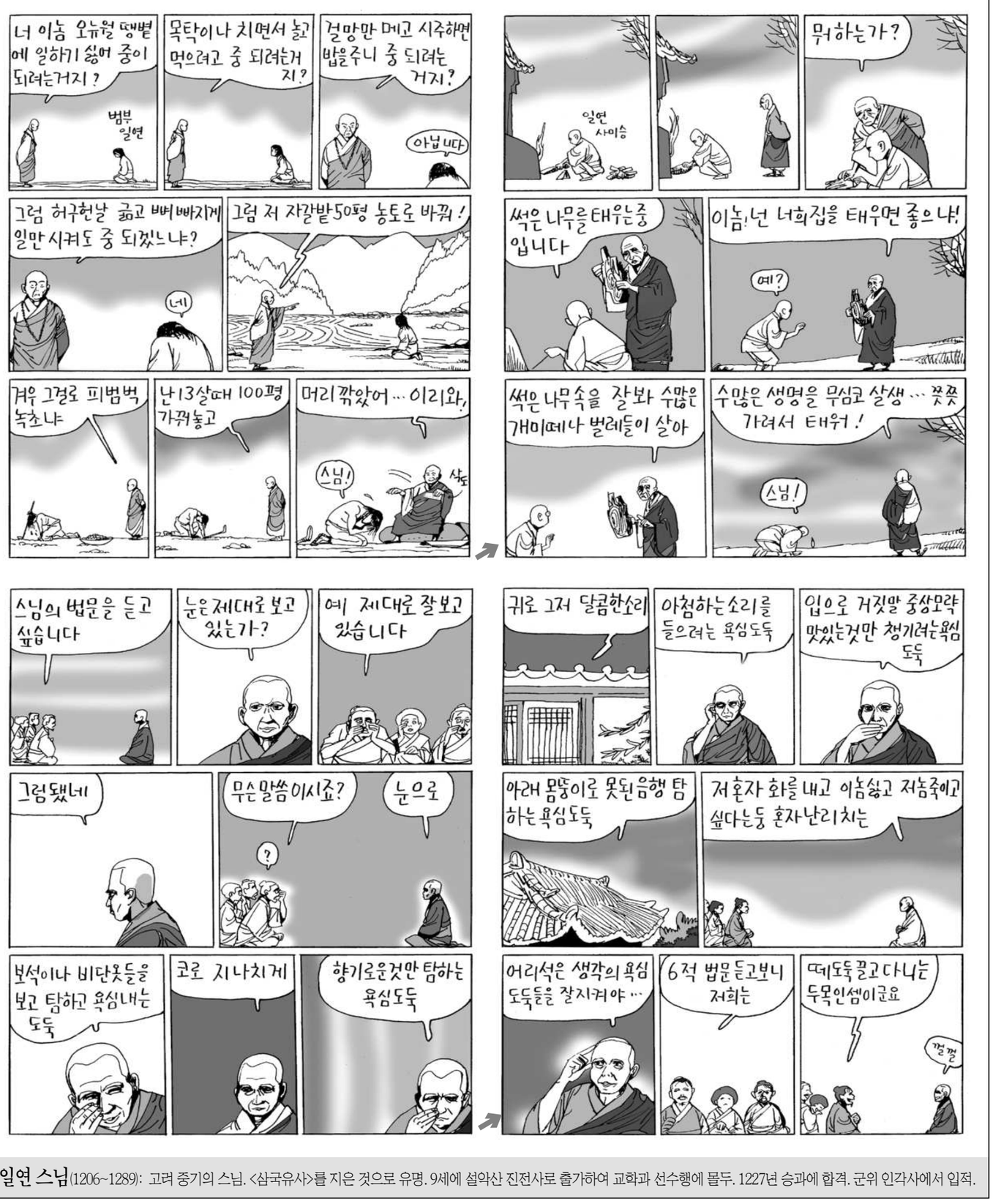
역시 불교는 그 무규정적 접근으로 하여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인종과 종교, 계급과 문화의 차이를 건너 뛰어, 사람들의 마음 깊이 스며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는 우리는 '최소한'만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나 유교는 너무 '많이' 공통 기반을 가져줄 것을 전제합니다. 이 요구량이 클수록 대화는 어렵습니다. 주자학이 좀 그렇지요. 저는 주자학의 근본 가치를 아끼는 사람이지만, 거기 설정된 관계의 시맨틱스(semantics · 의미론)는 대폭 뜯어고쳐야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광사를 나오며, 그곳 서점에서 중국어 번역판 <대승기신론>과 법장의 <화엄금사자장>, 그리고 규봉의 <화엄원인론>을 골랐습니다. 무엇보다 성운대사의 회갑기념으로 출간된 불광대사전 CD를 집어들고 뿌듯해 했습니다. 들인 공력에 비해, 유용성에 비해, 그 디지털 사전은 너무 쌌던 것이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주장자따라… ㉟ 일연 스님의 '떼도둑'

조태호



일연 스님(1206~1289): 고려 중기의 스님. <삼국유사>를 지은 것으로 유명. 9세에 설악산 진전사로 출가하여 교학과 선수행에 몰두. 1227년 승과에 합격. 군위 인각사에서 입적.

네티즌 교리문답

아공(我空)과 법공(法空)의 차이는?

문 남방불교에서는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의 삼법인을 강조하고, 대승불교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아공(我空)과 법공(法空)을 말하는 것으로 압니다. 아공과 법공이 다른 것 같으면서 둘이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ID '구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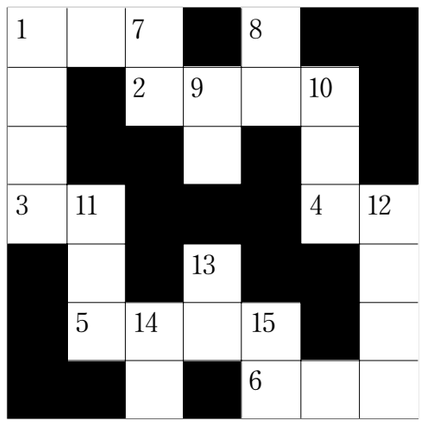
답1 : 법공은 외부의 경계가 공함을 아는 것을 뜻하고, 아공은 자성이 공함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 경계를 아는 것이 곧 자성의 작용이기 때문에 아공을 체득하면 법공도 동시에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성의 작용으로 외부경계가 공한 것을 알고 그 작용하는 자성이 공한 것을 체득하면 법공과 아공이 둘이 아닌 것을 체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공부를 하다 보면 제법(諸法)이 공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내가 공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공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공을 체험하여 법공과 아공이 둘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 실생활에서 여합부절하게 살아가는 것이 해탈한 이의 삶인 것입니다. ('도덕산')

답2 :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공(人空)과 법공(法空)을 주장합니다. 인공은 생공(生空) 또는 아공(我空)이라고도 하며, 자아가 실재하고 자아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망상(妄想)이라 하여 물리치는 것입니다. 법공은 이 현상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사물(법)이 모두 연기(緣起 : 상호적 의존관계)의 법칙에 의해 생기고 소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물이 실재하고 그것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부정되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소승불교는 인공을 설명하고, 대승불교는 인공과 법공의 2공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

답3 : 보통 소승(小乘)은 인공을, 대승은 인공, 법공을 설한다고 하나 소승에도 법공설이 있습니다. 즉 <사리불아비담론>에는 6공설이, <대비파사론>에는 10공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체개공을 강조한 것은 대승 경전의 선구인 반야계통의 여러 경전 및 그 입장을 취하는 용수(龍樹)를 위시한 중관파(中觀派)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공은 중도(中道), 제법실상(諸法實相), 열반 등과 같은 뜻으로 해석되며, 널리 주체적 실천적 시야를 개척합니다. 공은 본래 집착을 떼어버리는 것이니 공에 집착함은 우스운 일이며, 단견(斷見)에 빠지는 허무론은 전혀 들어올 여지가없습니다. ('주변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한국에서 최초로 생산된 전투기 2.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 남가지몽 3. 지느러미가 발달하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민첩하고 사나운 물고기 4. 병으로 말미암아 얻는 휴가 5.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일 6. 인공으로 만든 호수.

세로 1. 우주의 모든 사물은 늘 돌고 변하여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로 삼법인의 하나, 제법무아 · 열반적정 · ○○○○ 7. 전라남 · 북도를 아울러 일컫는 말 8. 해마다 돌아오는 제삿날 9. 강(江)의 옛 우리말 10. 잠을 자다가 무엇에 이끌린 듯 일어나 멀쩡하게 행동을 하며 돌아다니다 다시 잠이 드는 병 11. 생선, 김, 미역 따위의 어물을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 이곳 망신은 꼴뚜기가 시킴 12. '집집마다'를 뜻하는 한자어 13. 대열(隊列)의 맨 뒤를 뜻하는 한자어 14. 큰 길 15. 무인(武人)의 상대어.

불안에 떨지 말고 힘을내!

인생엔 2막이 있잖아



사진 앞줄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황인규, 윤해정, 유재선, 김진관, 윤홍근, 정동학, 신경옥, 지승룡, 성광영.



재출발로 성공한 9인
임채영 · 오승현 지음 | 황소자리 | 1만원

서로 다른 분야에서 재출발에 성공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한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다.' (스미스)

계속되는 경제 한파로 가계빚과 실직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98년 퇴출당한 동화은행 직원 4명중 1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실직자들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박차고 나가 화려하게 재출발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꿈꾸고 다짐하지만 생각에만 그칠뿐이다. 앞뒤로 꽉꽉 막힌 장애물들이 더 이상의 유쾌한 상상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출발로 성공한 9인>에 등장하는 9명의 평범한 전사(戰士)들은 이러한 장애물을 뛰어넘어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마주서며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져 견디기 힘든 위기를 단 한번뿐인 기회로 발상 전환을 한다면 세상은 당당하게 정면 승부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간파했다. 그들의 드라마틱한 삶의 이야기를 한 데 묶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코 성형 전문 성형외과 의사 정동학 씨, 황인규 프랜드리베이비 사장, 윤해정 샤브샤브전문점 '길조성' 사장, BBQ 신화의 주인공 윤홍근 제네시스 회장, 지승룡 민들레영토 카페 사장, 인테리어 스타일리스트로 거듭난 주부 신경옥 씨, 유재선 E & C 사장, 재고조사 전문업체 코인트서비스 성광영 대표, 인라인스케이트 개발자로 변신한 김진관 한미레포츠 개발이사 등이 바로 주인공들이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만들며 재출발에 성공했지만 이들이 들려주는 성공의 키워드는 의외로 간결하다. '자신에게 정직할 것', '자신의 일에 치밀할 것', '필요할 때 과감하고 용감할 것',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재출발의 터전이라는 생각을 가질 것'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 것' 등이다.

이혼과 난소암이란 잇단 좌절 앞에서도 오뚝이처럼 일어선 윤해정 사장은 특히 꾸준한 분투끝에 재기에 성공한 경우다. '동그라미'라는 부부듀엣으로 활동하다 이혼해 전국의 밤무대를 누비며 근근히 살아갔지만 난소암까지 발병해 가수 생활도 접어야 했다. 이런 그녀가 위기속에서 첫 도전 대상으로 삼은 것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완주를 통해 체력과 정신력의 극한을 경험한 윤 사장은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샤브샤브 전문점 '길조성'을 창업해 대박 성공의 신화를 만들었다.

학생운동으로 제적당하고 노동운동으로 징역살이 까지 했던 유재선 사장은 직장 생활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방황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판촉물 회사를 차려 재기에 성공하더니 지금은 주물업계에 뛰어들어 각 가정에서 소장하고 싶은 대중화된 예술품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그는 실패의 길 99개를 알면 1개의 큰 성공의 길이 보인다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을 표방하며 토종 브랜드 BBQ를 만든 윤홍근 제네시스 회장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성공한 인물이다. 잇달은 사업실패로 어렵게 마련한 집을 처분하고 두 번씩이나 아이들을 친지에게 맡기는 가족 해체의 수모를 이겨내고 프랜차이즈 'BBQ'를 창립해 일어선 입지전적인 기업인이다.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 속의 갈등을 잠재우지 못한채 서성이는 수많은 직장인들, 떨리는 손길로 신발 끈을 동여매며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선 사람들, 갈 곳 없는 세상에 울분만 쌓이는 실업자들, 아니 지금 현재 용기와 좌절에 빠져 표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더없이 좋은 등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에 등장하는 9명의 주인공들도 바로 얼마전까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말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9인이 말하는 성공 키워드

- 자신에게 정직할것
- 일에 치밀할것
- 필요할 때 과감하고 용감할것
-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재출발의 터전이라고 생각할것
-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것

책속의 밑줄긋기

▲"무엇이든 시작할 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둔다면 불안은 점점 증폭되어 실패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시작할 때 보았던 가능성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실패는 찾아오지 않습니다."(황인규 사장)

▲"월급쟁이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월급쟁이 습성은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월급쟁이 습성을 버리려면 월급쟁이로 일할 때 자신의 회사를 경영 하듯 일해야만 한다. 재출발의 자세와 덕복은 바로 직장에서 배우기 때문이다. (윤홍근 회장)

▲"실패하는 걸 두려워 해서는, 망하는 게 무서워 몸을 사려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지름길입니다. 뭐든지 부딪쳐봐야 알게 됩니다. 겁내지 말고 뛰어 드세요. 경험은 많이 해볼수록 좋습니다. 진정한 재출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김진관 이사)

전문가 서평



여행의 기술
알랭 드 보통 지음 | 이레 | 1만2천원

가을은 여행의 계절. 따스한 햇살로 온통 금빛 세상이 되는 요즘은 정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픈 생각이 든다. 목적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어떤 형태로든 여행은 우리 삶에 신선한 궤적 하나를 추가해 주기 때문이다. 결국 여행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호기심의 문제다. 스위스 출신 청년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이 쓴 에세이 <여행의 기술>은 여행이 주는 매력을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에서 찾고 있다. '어디로라도 이 세상 바깥이기만 하다면 ' 을 외친 영국 시인 보들레르의 말처럼 여행은 훌쩍 떠나는 것이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 속에서 여행을 사랑한 문인 화가 학자들과 함께 가상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여정의 발끝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장점을 말하고자 한다. 책은 고만고만한 여행지에 심드렁해진 여행자들의 내면을 파헤친다. 그들에게 꼭꼭 묻힌 호기심과 열정을 되살리기 위해 프랑스 소설가 플로베르의 여행기를 들춘다.

'루앙을 떠나 이집트로 가서 낙타를 모는 사람이 되는 것 하렘에서 코밑에 솜털 자국이 있는 올리브빛 피부의 여자에게 동정을 잃는 것' 이 꿈이었던 플로베르는 이집트 카이로의 열기와 당나귀 그리고 낙타가 풍기는 이국 정서에 흠뻑 취했다. 이국적인 요소들이 끌어당기는 강렬한 반응이란 결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자기 정체성에 관한 혼란을 느낄 때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때 …

호기심만 있다면 누구나 시인이고 예술가

이 책의 백미에 해당하는 부분은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다. 저자는 고흐가 1888년부터 2년 간 머물렀다는 프랑스 남동부의 옛 도시인 프로방스로 찾아간다. 거기서 만난 원추형 교목 '사이프러스' . 저자는 그 나무에 대해 고흐는 보았지만 다른 화가들은 보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을 여행자 입장에서 알려준다. 고흐의 수많은 사이프러스 그림들에서 유난히 묘목이 휘어 보이는 이유 말이다. 그것은 나무 줄기가 유난히 짧아 심지어 위 3분의 1이 아예 가지로만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떡갈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가지는 흔들리지만 줄기는 꼼짝도 않는데 반해 사이프러스는 줄기 자체가 바람에 구부러지는 것이다. 저자는 화가가 어떤 장소에 대한 특징을 매우 예리하게 선별했다면 여행자는 거기서 그 위대한 화가가 본 것을 똑같이 포착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여행의 힘이란 바로 그런 예술가의 눈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자연을 음미하고 예술을 사랑하고자 하는 호기심만 있다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도 되고 화가도 된다.

젊은 날 수없이 예술의 궤적을 좇아 배낭을 꾸려 본 경험이 있는 나는 하나의 기술을 더 제기하고 싶다. 아는 만큼 느끼는 법이므로 사전에 많은 예술가의 정보를 알고 간다면 현장에서 더욱더 생생하게 그 예술세계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다.

다가오는 가을 이 책을 읽고 멋진 여행을 설계해 보자. 분명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남겨진 정신적 성숙은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것이다.

■**홍수연** (TIP여행사 대표)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홍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엽산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법요집 · 기초교리 集 괘도 재발간

공부하기 좋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本, 괘도집은 법당에 걸어 비치만 해두셔도 교리 공부를 필요로 하시는 불자님들의 불교 기초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보시를 하조자 원하는 불자님들께서 전화 주시면 원찰 주소지로 택배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정근
- 찬양합니다
- 발원 및 축원
- 반야심경
- 사홍서원
- 입정
- 산회가
- 청법가
- 기타찬불가
-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 **기획** : 예맥불교문화원 ■ **제작** : 불교포교자료원
■ **전화** : 02-772-9052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마하가섭은 8일 만에 지혜의 눈이 열리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였으며, 오늘날 중국 백림사와 보봉사에서는 찰나에 깨치는 3일간의 충격적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각에 대한 열의와 소망만 있으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해도 얻기 힘든 무심과 깨침을 5일간 체험해 보십시오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 수련내용 : 無心, 無分別智, 無分別後得智, 스스로 업장소멸과 영적문제 해결 확인

이론없는 수행은 위험하고 수련없는 이론은 공허합니다.

빈마음수련원 (구, 대광사)
033)435-8166 / master@binmaum.org
www.binmaum.org / 한글인터넷주소 : 생각기술교육원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김종렬	051)632-0064
대구지사	손문철	053)768-8008
호남지사	이준엽	062)375-9986
전북지사	조기식	063)255-2274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경남 서부지사	보성스님	055)547-3469
영주지국	박영애	054)634-3429
충북지사	일봉스님	043)258-3282
대전지사	류재희	042)534-6523
옥천지국	혜철스님	043)732-5560

※ 9월 1일부로 옥천지국이 신규개설 되었습니다.

금강경 해독 열쇠 우주서 찾다

▮이시우 박사 '천문학자가 풀어낸 금강경의 비밀' 펴내



"<금강경>은 인간뿐만 아니라 별을 포함한 우주 내 만유(萬有)를 위한 으뜸의 경전입니다."

그동안 <천문학자와 붓다의 대화>(종이거울) 등의 책을 통해 '불교와 천문학의 만남'을 시도해 온 이시우(66) 박사가 이번엔 천문학자의 눈으로 <금강경>의 비밀을 밝혀내는 <천문학자가 풀이한 금강경의 비밀>을 펴냈다.

우리나라 천문학자 1세대라 할 수 있는 이 박사는 서울대 천문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이론물리학을 공부한 후 미국 웨슬리안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호주 국립대학교에서 관측천문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경북대와 서울대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은이가 밝혀낸 '<금강경>의 비밀'은 무엇일까?

지은이는 "지금까지의 <금강경> 해설은 경에 나오는 자구(字句) 해석에 치중하거나 수보리와 부처님의 문답을 해석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금강경>의 제1분의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사 대비구중(大比丘衆) 천이백오십 인과 더불어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에 주목한다. 이 구절에서 보이듯 <금강경>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대중 집단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연기사상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대중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은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강경>의 가르침이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 만유에 적용되는 법임을 밝히고자 한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지구의 황폐화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긴밀한 연기관계를 망각하고, 범우주적인 불법의 깊고 넓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입니다. 불법은 생명체와 무생명체를 두루 포함한 우주 만유를 위한 것이지 결코 인간 중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책은 각 분절마다 한역 원본과 이를 우리말로 번역한 '국역', 지은이의 해설을 담은 '신강(新講)', 각 분절의 의미를 자세히 풀어낸 '해설'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의 끝에서는 '별의 세계'라는 코너를 두어 경의 가르침과 유사한 천문학의 지식을 전한다. 지은이의 전작 <천문학자와 붓다의 대화>를 읽은 독자라면 '별의 세계'에서 전하는 천문학과 불교의 유사성을 쉽게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금강경>의 가르침에서 우주 법계의 질서를 읽어내려는 그의 노력은 자신이 펴낸 시집 <똥막대기>의 한 구절인 "눈에 보이지 않으니 허공이나/ 만유가 들어 있으니/ 빈 것은 아니로다/ 이 속에서 만물은 모였다가 흩어지며/ 또 흩어졌다가 모이면서/ 생멸을 이어 가고/ 우주를 밝히는/ 불법이 세워진다"를 떠올리게 한다.

"만유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근본으로 하고 중도사상과 선(禪)이 강조되는 불법이 바로 <금강경>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은 개인이 아닌 대중의 집단, 더 나아가 우주의 법계에서 더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피안사, 1만3천원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이시우 박사는 "<금강경>의 가르침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만유에 적용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중심이라고 믿었던 게 어느날…



불교방송의 '차 한잔의 선율'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문태준(34 · 사진) 씨가 두 번째 시집 <맨발>을 펴냈다. 표제작 '맨발'은 전문가 115명이 지난해 문예지에 발표된 시 가운데 가장 좋은 작품으로 선정한 시이기도 하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존재론적인 문제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특히 3부에 실린 20여 편의 시는 모든 사물이 변화하며 결국은 소멸해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과 그 변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관찰해가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시 '중심이라고 믿었던 게 어느날'에서는 시인의 이러한 탐구의 한 경지를 엿볼 수 있다. 시인은 봄나무에 "저 수많고 작고 여린 순들" 하나하나가 중심인 것처럼, 인간의 그리움도 "누구 하나를 그리워하는 그리움이 아닌지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 같은 깨달음은 "나 아닌 것, 그러면서 동시에 나인 것들을 잘 섬기며 살아야겠다"는 '시인의 말'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와 함께 "물을 달여 햇차를 끓이다"가 "마르고 뒤틀린 찻잎들이 차나무의 햇잎으로 막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만났을 때 그들의 "간곡한 사연"을 들으려 노력하는 시인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다.('햇차를 끓이다가' 일부)



맨발 문태준 시집 | 창비 | 6천원

화엄의 그윽한 세계로…

'화엄경현담' 개정판 나와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화랑)는 지난해 발간한 <화엄경현담>의 개정판을 최근 선보였다. 강원의 전통교재이자 <화엄경> 이해의 필수 지침서인 <화엄경현담>은 청량 징관 스님이 화엄의 핵심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개론서다.

교육원은 1997년 조계종 역경위원회가 실상사 화엄학림에 역경을 위임해 번역을 시작한 이래 7년여 만인 지난 2003년 <화엄경현담>과 현담의 해설서를 모은 <화엄경현담 주해집>을 각 2권 1질로 발간했다. 봉은사판 목판본 <화엄경소초회본> 가운데 <현담>에 해당하는 제1권부터 8권까지를 저본으로 삼은 이 책은 그동안 부분적인 번역에 그쳤던 <화엄경현담>을 처음으로 완역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들 책은 전통적인 역경 방식에 따라 여러 대중이 함께 읽고 토론하며 번역했다는 데서도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화엄학림 학장이었던 연관 스님과 도법 스님의 지도 아래 1~3기 화엄학림 졸업생 스님들이 초역과 판본 대조, 교정 등을 나누어 맡아 번역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발간된 번역본은 적은 발매부수로 인해 금세 절판됐고 이번에 화엄학림 강사 해강 스님이 오탈자와 번역의 오류를 바로 잡아 새롭게 펴내게 됐다. 화랑 스님은 "지난해 예산 확보 상의 어려움으로 한정된 부수로 발간할 수밖에 없었던 <화엄경현담>과 <주해집>을 화엄학림 번역대중 스님들과 승가대학 강사 스님의 의견에 따라 오탈자와 오역을 바로 잡아 다시 펴내게 됐다"며 "이 책을 통해 화엄의 그윽한 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편집 후기를 밝혔다.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엮음, 조계종출판사, 14만원 (02)2011-1880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오체투지	한경혜	반디미디어
2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3	텐진빠모의 마음공부	텐진 빠모	열림원
4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른아침
5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림
6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김성철	불교시대사
7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달라이라마	김영사
8	선방 가는 길	정찬주	열림원
9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10	불교란 무엇인가	고영섭	정우서적

도서 안내:(02)737-0695

집착 버리니 불국토 세상



그대, 마음의 고향을 보았는가
현해 스님 지음 | 이른아침 | 1만원

"슬픔과 기쁨, 좋음과 나쁨의 감정은 잠시 스치는 바람과 같아서 '마음'이라는 나무의 잔가지를 조금 흔들리게 할뿐, 마음의 깊은 뿌리까지 흔들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집착을 버리고 무상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불국토의 문을 여는 황금열쇠를 얻는 길입니다."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월정사 회주)이 첫 법문집을 펴냈다. 월정사 주지 소임을 맡은 동안 각종 법회에서 행한 법문과 격월간지 <오대법보>에 기고했던 법문을 가려 모았다.

전도사를 지낼만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스님이 불가에 귀의하게 된 사연과 월정사와의 인연, 수행담을 엿볼 수 있다.

스님을 법문을 통해 "부처는 바로 네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끊임 없이 수행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

'삶과 앎' 소통의 길 찾기



불교란 무엇인가
고영섭 지음 | 정우서적 | 1만원

동국대 고영섭 교수가 <불교신문>에 연재한 글을 묶은 불교 해설서 <불교란 무엇인가>를 출간했다.

'앎의 교리 삶의 관찰'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지은이는 '앎'과 '삶'의 기호를 통해 불교를 읽어내고 있다. 지은이는 "앎과 삶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앎에 대한 관찰과 삶에 대한 관찰을 통해 두 기호의 소통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곧 불교의 지향이 앎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 즉 '앎의 해방'과 '삶의 해탈'에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책은 한 주에 한 가지씩 불교의 주교 교리를 배워 나가는 것을 1년(52주) 동안 계속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은이는 '형성된 것은 모두 변화한다' '수행의 준비단계' 등의 주제를 이야기 하듯 쉽게 설명함으로써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한가닥 거미줄에 건 욕심



거미줄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글 | 후지카와 히데유키 그림 | 길지연 옮김 | 미래M&B | 9천원

근대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천재작가로 일컬어지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동화 <거미줄>이 번역되어 나왔다.

책에 담긴 이야기는 단순하다. 지옥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칸다타를 본 부처님은 생전에 거미를 살려준 적이 있는 칸다타를 지옥에서 꺼내주려 한다. 바로 거미줄 한 가닥을 지옥으로 내려 보내 칸다타를 극락으로 갈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칸다타는 자기만 살겠다는 욕심을 부리다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부처님의 얼굴엔 슬픔이 어린다.

이 책은 짧은 이야기와 절제된 문장, 부처님과 칸다타의 다양한 얼굴 표정을 담고 있는 그림을 통해 불교의 교리를 쉽게 전달한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히지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단고기.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문재현 선사님께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로보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천하제일의 운명의 등대 천신의 안내서



육경신을 통한 저자 74세

八卦 秘傳 팔괘비전

閱易神書 열역신서

增補版 증보판

도서출판 새로운문화사

天醫仙道 太宗仙師 楠宮 金永生 編著

제1편 운명의 예언

人生은 배우
운명은 각본
생활은 연출

당신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시각각의 변화 양상이 수록되어 있다. 어떠한 난관에 처해도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처신 방향을 정확히 설파해 놓았다. 그래서 神書이다.

저자는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 터인데,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인명을 구하고 구천에 방황하다 후손의 몸에 빙의되어 사욕편정을 조성하는 영혼에게 사면령을 내려 연화장세계로 보내라는 천명을 받고 전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 팔괘비젼 열역신서 증보판을 낸다. 미구에 닥칠 대 예언서다.

제2편 四象醫學 八象分類秘法

太陽人 Ⅰ, Ⅱ型
太陰人 Ⅰ, Ⅱ型
少陽人 Ⅰ, Ⅱ型
少陰人 Ⅰ, Ⅱ型

사상의학의 숙원인 팔상분류법을 완성공개.
체질에 맞는 이로운 식품과 해로운 식품을 분류했다.
같은 체질이라도 열 체질과 한 체질이 있고 장부가 다르기에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제3편 生老病死와 사후영혼의 실상을 밝혔다

업장을 풀고
숙명을 뛰어 넘어라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평생회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천문이 열리면 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유입되면서 손과 손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고 천상 신명계로 떠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거뜬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려갑니다. 건강과 행복을 찾는 천상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책값 30,000원
직접 오셔서 책을 구입하는 분에게는 운명상담은 물론 8상체질 분류도 무료로 해 드립니다.

주문 ☎ : 02)2216-6278 HP : 011-9803-4600
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창단 6년만에 비로소 자기집이 생겨 기쁜 것일까. 9월 7일 음악당 개원식에서 12명의 LMB 싱어즈 단원들은 행사에 참석한 1백여 불자들에게 신명나는 음성공양을 펼쳤다.

아름다운 法音으로 세상 신명나게…

불교계 유일한 중창단 'LMB 싱어즈'
창단 6년만에 메인홀 갖춘 음악당 마련
5월 첫 불교음악모음집 내고 인기몰이



2000년 5월 63빌딩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 JTS후원의 밤' 공연.



2000년 12월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펼쳐진 고려대장경 시연회 및 봉정식 공연.



2001년 1월 서울 관문사에서 열린 '제7회 천태예술제' 초청 공연.

불교계 유일의 혼성 4부 성악 중창단 LMB싱어즈가 마음놓고 연습할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9월 7일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LMB 싱어즈 음악당에서는 용화사 주지 지관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월광사 주지 반성 스님 등 1백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창단 6년만이다. 그동안 정기적인 연습실이 없어 수도방위사령부 법당과 진각종 밀각심인당 등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다. 그래서 일까, 12명의 단원들은 자기집(?)이 생긴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음악당은 지하 40여평 규모에 피아노가 놓여진 3개의 연습실과 1백명 정도가 앉을 만한 메인홀 등을 갖추고 있다.

LMB싱어즈는 'Lovers of Music, Beacons of light'의 약자로 불교음악을 사랑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의미. 99년 3월 초대 단장인 박성규 씨와 현 단장인 황영선 씨가 의기 투합해 만든 LMB싱어즈는 그동안 창단 취지를 충분히 실천에 옮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년에 30~40회에 육박하는 공연 활동이 그 증거다.

LMB는 사실 불교계에서 열리는 공연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거의 단골로 초대된다. 불교계의 유일한 중창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초대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군부대, 병원, 교도소, 고아원 등 불음포교를 위해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간다. 특히 3군사관학교 법당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불자가 아닌 병사들에게 찬불가 지도와 공연을 통해 불교로 개종시키고, LMB의 고정팬으로 만들어 버린 일화는 큰 보람으로 꼽는다. 또한 올해 5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괴테하우스에서 부처님오신날 연등음악회를 열어 21곡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현지인들에게 음성공양 하기도 했다.



9월 7일 LMB 싱어즈 음악당 개원식에서 1백여 불자들이 '삼귀의'를 부르고 있다.

단원 규모도 커졌다. 출범 당시 3명이던 단원이 창단 6년만에 황영선 단장을 비롯해 석동령 이승민(이상 피아노), 유현주 김미영 강여정(이상 알토), 김양희 유희제 박소림(소프라노), 한정일(테너), 김지해 문지환(베이스)등 12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다보니 항상 재정적인 문제가 큰 걸림돌이었다. 부정기적인 적은 출연료로는 12명의 단원이 움직이는 교통비도 안됐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각 사찰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보시금을 모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단원들 중에는 레슨과 노동일까지도 마다 않고 음성포교의 원력을 위해 헌신하는 이도 있다고 황 단장은 귀띔해준다.

이런 각고의 노력끝에 지난 5월에는 창단 6주년을 기념해 명상과 마인드콘트롤에 도움을 주는 불교창작곡과 의식곡을 한데 모아 첫 번째 불교음악모음집을 내놓았다. 이 음반에는 '깨달음의 노래'와 '어디로 가야하나' 등 창작곡과 각 사찰 및 불교행사장에서 가장 많이 애창되고 있는 불교합창곡들이 수록돼 있어 인기가 높다. 올해도 가을을 맞아 LMB는 벌써 예약이 줄을 잇고 있다. 10월 9일에는 천태종 관문사에서 열리는 천태예술제, 10월 10일에는 강화 연등 국제선원의 초청으로 음성공양을 펼칠 예정이다. (02)873-3676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인 터 뷰

황영선 단장



"찬불가 지도 등 불음 전파에 앞장 설것"

"이번 음악당 개원은 그동안 LMB를 꾸준히 지켜봐준 한 재가불자 부부의 원력과 보시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시자가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밝힐 순 없지만 군법당에서 저희 공연을 보고 감동 받고 보시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LMB싱어즈 황영선 단장은 이번 음악당 개원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음악당을 보시한 부부는 군법당 공연 이후 LMB 앨범을 열심히 듣기 시작했고, 이후 불음 포교의 중요성을 깨달아 계속 도울 방법을 모색했다고 한다. 그러던중 단원들이 정기적으로 연습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이곳 저곳을 전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내주었다.

"이렇게 큰 뜻이 담겨 있는 만큼 음악당은 불음 포교 발전을 위한 장으로 의미있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LMB의 연습실로서 뿐만 아니라 불자들을 위한 찬불가 지도와 작은 음악회를 열어 찬불가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고 황 단장은 다부진 각오를 피력한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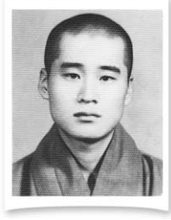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현대인의 성인병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빕니다.
현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해나, 환경오염, 밤낮이 뒤바뀐 생활, 불절제등 각종 환경적 요인과 내적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질환과 각종 알수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출가 이후 오래도록 수행에 정진해 오다가 개인의 지중한 인연으로 의학에 관심을 버릴수가 없어 오랫동안 **민속의학**을 연구하였고 한의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그후 그동안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여러가지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던중 **本草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전수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효한 치료법**을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과 환자분들의 성원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았으며 **고혈압, 당뇨, 중풍, 축농증, 소아알러지, 신장질환, 부인병, 간질환**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미 임상에서 치료력이 탁월한 처방을 개발하여 환제나 탕제로 만들어 전국의 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인연없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타 질환이나 각종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해온 불자님께서는 그간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시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꼭 한번 래원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면상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글을 올립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서울약령시장(경동시장) 내
효성약초 사암침연구소

TEL. 02) 965-2724 / H.P. 011-9104-0037

약수암 포교원 원장 석지장 합장

당 하(茶)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청암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정기회의)

청암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총동문회 스님께서는
무루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다 음

▣ 날 짜 : (음력 8월 20일)
양력 10월 3일 오후 5시

▣ 장 소 : 청암사

문 의: (054) 437-0038 (청암사)
(052) 262-8555~6 (법왕사)
(011) 9501-8556

총동문회장 혜경합장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37>



인욕의 달인-리마 선수와 부루나

아일랜드 정부가 지난 3일, 오는 10월에 열리는 더블린시티 마라톤 대회에 브라질의 마라톤 선수인 리마를 국빈자격으로 초청했다는 즐거운 소식이 들린다.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의 한 광신도가 저지른 죄에 유감과 반성을 표시하고자 한 것이다. 리마는 지난 아테네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다 결승선을 불과 5km 남짓 앞두고 갑자기 코스에 뛰어든 괴한에게 떠밀려 레이스를 망치고서도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리마의 경주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 리마가 불상사가 없었더라면 우승하였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브라질 선수단은 즉각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항의하고 금메달 공동 수여를 요구했지만 정작 리마는 "사고가 없었다 해도 내가 우승할 수 있었는지 장담할 수 없다. 나는 3위 이내 입상을 목표로 했고 영광스러운 동메달을 받았다"고 의연히 말했다.

보통 선수였더라면 갑작스런 괴한의 방해에 직면하여 분노에 못이겨 경주를 포기하거나 괴한에게 욕설을 퍼부었을 것이다. 그러나 리마는 달랐다. 부당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인욕(忍辱)하며 최선을 다하여 달렸다. 그는 어느 누구도 거칠고 모질며 가볍고 성급하며 못되고 사나워서 너를 비난하고 욕하기만 한다면 너는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손이나 돌로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손이나 돌로 저를 때린다면, 저는 '수로나 사람들은 어질고 착하며 지혜롭다. 비록 손이나 돌로 나를 때리지만 칼이나 몽둥이를 쓰지는 않는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혹 칼이나 몽둥이로 너에게 해를 입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 사람들이 혹 칼이나 몽둥이로 저에게 해를 입힌다면, 저는 '저 수로나 사람들은 어질고 착하며 지혜롭다. 비록 칼이나 몽둥이로 내게 해를 입혔지만 죽이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루나에게 말씀하셨다. "가령 그 사람들이 혹 너를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수로나 사람들이 혹 저를 죽인다면, 저는 '모든 세존의 제자들은 몸을 싫어하여 혹 칼로 자살하기도 하고 독약을 먹기도 하며 노끈으로 스스로 목을 매기도 하고 깊은 구덩이에 몸을 던지기도 한다. 서방 수로나 사람들은 어질고 착하며 지혜롭다. 썩어 무너질 나의 몸을 조그마한 방편으로써 곧 해탈하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부루나야, 너는 인욕을 잘 배웠구나. 너는 이제 수로나 사람들 틀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이제 떠나 건지지 못한 사람을 건네주고, 편안하게 하지 못한 사람을 편안하게 하며, 열반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열반을 얻게 하라."

리마 선수, 선두에서 괴한 공격받고도 의연
작은분노 버릴줄 알아야 지혜 찾을수 있어

비난하지 않았고 누구도 비난 받아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하였다.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는 전혀 악한 감정이 없다고 강조하며 만나면 포옹을 해 주고 싶다고 한다. 리마는 인욕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루나경(富樓那經)>에 부처님의 제자인 부루나가 인욕의 좋은 본보기로 묘사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부루나를 위해 간략히 법을 설한 후 그에게 말씀하셨다. " 너는 어디에 머무르고자 하느냐?" "서방 수로나(輸盧那)로 가서 세상에서 유행하고자 합니다."

"수로나 사람들은 거칠고 모질며 가볍고 성급하며 못되고 사나우며 비난하기를 좋아한다. 부루나야, 네가 만일 그들의 거칠고 모질며 가볍고 성급하며 못되고 사나우며 비난하기를 좋아하며 헐뜯고 욕하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세존이시여, 만일 수로나 사람들이 면전에서 거칠고 모질며 심한 말로 비난하고 헐뜯고 욕한다면, 저는 '저 서방의 수로나 사람들은 어질고 착하며 지혜롭다. 비록 내 앞에서 거칠고 모질며 못되고 사나우며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나를 헐뜯고 욕하지만, 그래도 손이나 돌로 나를 때리지는 않는구나'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수로나 사람들이야, 너는 인욕을 잘 배웠구나. 너는 이제 수로나 사람들 틀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이제 떠나 건지지 못한 사람을 건네주고, 편안하게 하지 못한 사람을 편안하게 하며, 열반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열반을 얻게 하라."

선의를 가지고 대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말로 모함하고 비방하면 더 참기 어렵다. 부루나는 아직 욕설에 머물고 손이나 돌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착하다고 생각하며 참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며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감사해 한다고 인욕의 완성을 말하고 있다. 상대방이 어떠한 해로운 행동을 하더라도, 심지어 죽일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라는 가르침은 너무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다. 다만 바라건대 지극히 사소한 일에 분노하거나 스스로 잘못 생각하여 화를 내는 일만이라도 일상생활에서 고칠수 있다면 좋겠다. 리마 선수의 아름다운 행동이 부루나 존자의 인욕행과 더불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

■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호흡이 살아야 내가 산다"

지상 백고좌

천룡 스님

(법주사 총지선원 한주)



법주사 총지선원에 주석하는 천룡 스님은 잘못된 생각들을 놔 버려야 청정무구한 본 마음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삼불(三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삼불이란 무엇이냐. 불안 불신 불확실이 바로 그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모든 게 '불안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불안'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중생심에서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놀라거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붙잡고 있으니 불안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봅시다. 문밖에만 나가도 사람들이 허덕이는 게 보이죠? 나도 허덕이고 남도 허덕입니다. 모두가 허덕거리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삽니다. 물질에 마음을 빼앗겨, 물질의 노예가 돼 모두 자신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죠.

늘 변하는 세상, 불안에 시달려

그러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사는 겁니다. 그 가운데 쫓고 쫓기는 우리 삶이 반복됩니다. 딴 게 우리 삶이 아닙니다.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대를 핑계 삼아 자꾸 달려갑니다.

지금 사회를 한번 봅시다. 사회에는 엄청난 불신이 있어요. 그 불신은 뭐냐. 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남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제 가족이 남이 되고, 친구가 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립이 싹트고 분쟁이 터져 나오겠죠. 그래서 힘의 논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방법은 딱 하나, 패거리를 모아 힘을 길러서 사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힘으로 상대를 정복하는, 끝없는 제로 게임을 하는 겁니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 끝없는 거짓만 난무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끝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협상이나 타협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신뢰 대신 '너 얼마 줄 테니 나 얼마 달라'는 식의 야합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순식간에 부서져버립니다. 이런 세태 하에서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라 '최고로 불안한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미국은 만만한 놈, 약한 나라를 내려치고 있습니다. 내부가 안정된 나라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전쟁에 물질을 쏟아 붓는 셈입니다.

바르게 봐야 바른 생각·행동 나와

그 큰 나라가, 그 많은 물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면 오늘날 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청량제와 에너지가 돼야 하는 불교가 오히려 세태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비극 중의 비극이죠. 불가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옛 고인들이 '야광투인선불안검(夜光投人鮮不按劍)'이란 말을 했습니다. '밤에 어두워서 도와주려 불을 주려는데 도리어 칼을 잡는다'는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도와주려는 사람을 날 해치려는 사람으로 잘못 알고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마음은 곧 허공과 같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앞이 훤히 보입니다. 자신있게 왔다 갈 수 있고 불편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꽉 찼습니다. 어

육법등(六法燈)




용암사(서울·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출고정가 15만 12만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74.8%할인)

단!
"500분"께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觀·仙·華嚴 특강(CD18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 매
책 방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 하 몰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현대인들에게 천룡 스님은 수식관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릴 것을 당부했다.

떻게 하겠습니까? 한발자국 앞으로 가기도 힘들 것입니다. 불편을 느끼고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자신을 확연히 보지 못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正見)입니다. 바르게 봐야(正見) 바른 생각(正思)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해야 바른 행동(正行)이 나오는 것입니다. 팔정도는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는 마음, 바른 안목을 잃어버려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행동이 불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시 하고 이슬람의 빈 라덴은 서로 하느님이 자기를 축복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들 자기를 정의라고 생각하고 남은 악마라고 믿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 맞는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둘 다 사탄입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제대로 된 신념에서 나왔겠습니까?

본 마음 잃으면 망념만 들끓어

예루살렘 통곡의 벽만 봐도 그렇습니다. '삼교(三敎)'가 서로 자기들의 성지(聖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 벽은 이름 그대로 통곡의 벽이 될 뿐입니다.

자기의 종교를 놔 버리고 '통곡의 벽'이란 생각을 놔 버리면 그 자리에서 환해집니다. 잘못된 이념과 사고를 싹 놓아버리면 그대로 '환희의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발단은 잘못 본 것에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름 그대로 불성입니다. 이미 깨달아 있습니다. 청정무구합니다. 명경지수와 같습니다. 마음이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주체로서 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놈이 그렇습니다. 만약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송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잊고 삽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소위 물질만을 사실인양 매달려 삽니다. 부처님은 '전도몽상'이란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물질에 매달려 사니 물질에 부림을 당하지 물질을 부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노예가 된지 오랩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산물이라고 하니까 안 그런 척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업으로 해서 이미 망아화(忘我化)된 마음입니다. 참마음이 아닙니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나오는 물이 모두 오수(汚水)인 것처럼, 마음이 미혹해서 본연을 잃어버리면, 생각 하나 하나가 모두가 망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오염된 망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이 진실한 줄 착각하며 삽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네가 하는 것은 다 그르다'는 요런 착각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새 국회의원들이 '망상 시합'을 하고 있더군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문제겠어요. 그 사람 뽑은 것은 국민입니다. 동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이 삼독응체(三毒凝體)입니다. 우리는 자아를 잃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도 결국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 자아가 삼독응체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무명이 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현대인에겐 수식관 수행이 최고

그렇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문제는 아닙니다. 알았으면 그것을 근거로 잃었던 우리 본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으로서 하나하나 극복해 가야 합니다.

재가자들은 근기 따라 수행법을 택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식관, 호흡법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말썽이 나고 사고가 터지는 것은 성질이 급해서입니다. 수식관 수행을 한달만이라도 차분히 하다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돈버는 법을 아는 사람이 돈 안 벌겠어요?

"호흡이 살아야 내가 산다, 호흡이 죽으면 나도 죽은 것이다"란 명심하세요. 호흡이 짧아지면 생각도 짧아집니다. 빙빙 돌아가는 세상에서 속지 않고 살기 위해 정신 집중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리=강유신 기자 · 사진=박재완기자

제방선원서 수행하며 선지식과 법거량

천룡 스님은 법주사 총지선원에서 주석하는 천룡(天龍) 스님(70)은 유독 큰스님들과의 일화를 밝히기를 꺼려한다. 쓸데없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세상을 어지럽히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천룡 스님은 "한때 동화사 금당 등에서 수행을 하며 선지식들과 법거량을 했지만 다만 서로가 알면 될 뿐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1963년 각화사에서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천룡 스님은 30대 초반 비슬산 도성암에서 수행을 하던 중 삼매에 빠졌다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문득 게송을 읊었다.

고요 고요/ 마음 길 다한 곳에는/ 너도, 나도, 산하(山河)도, 세계(世界)도 없다/ 다만 노을 빛 가득 메운 공허(空虛)/ 어디선가 아련히 소리가 들린다/ 문득 눈 들어 바라보니/ 이랴 이랴/ 농부가 축대(築臺) 밑 밭을 갈고 있다.

스님은 그 후 제방선원을 돌며 참선 정진했고, 현재 법주사 한주(閑主)로 있다.



법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철 스님 (下)

천중사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명한 신여성중의 한분이었던 선암 이충실(李忠實)보살이 징병에 끌려간 아들의 무사귀환을 천지신명께 빌다가 부처님의 계시(?)를 받고 천주교에서 불교로 개종하여 창건한 사찰이다. 보통 사찰에서는 대웅전이나 천불전으로 불렀을 석가모니 부처님과 천불을 모시고 있는 전각을 천중전(天中殿)이라 이름하고 아미타불을 모신 곳은 자웅전(慈雄殿)이라 불렀다. 계시 받은 이름이라 하는데 경전의 어느 구절이 굴절되어서 나온 게 아닌가 싶다. <법화경>에 나오는 '하늘 가운데 하늘, 성인 가운데 성인'의 표현 등이 재료로 쓰인 것이리라. 예불을 모시고 나면 기도와 참선 및 간경 등의 시간을 갖고 날이 밝으면 도량청소 등의



그림 · 문병성

울력을 하게 마련인데 법철 스님은 항상 자웅전에서 혼자 뭘 중얼거렸다. 어느 날 내가 물었다.

"무슨 기도 하셨나?"

"<금강경>이 좋아서 매일 아침에 1~2독, 밤에 1~2독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공도리(空道理)라도 얻으려고?"

"뭘요. 그것보다는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무언데?"

"사실은 제가 삭발한 머리로 학교에 다니는데 머리 기르라는 사람이 나오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럴 사람은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뿐인데 그분들이 지나 가다가라도 저를 쳐다보지 말라고 원을 하면서 독송하지요. 우습지요?"

그 때나 지금이나 손때가 까맣게 탄 독송용 <금강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침저녁으로 2~3독씩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저런 사람이 학교생활은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어느 날 동료 교사들에게 물었더니 하나같이 "저희도 처음에는 느낌이 이상했어요. 웃은 어울리지도 않게 헐렁하지요, 머리는 빡빡 깎아서 어디 갔다온 분 같지요. 그랬는데 하루하루 겪으면서 한줄기 솔바람이 시원하게 우리 학교로 불어온 느낌이 들었어요. 법철 스님이 바로 솔바람이예요. 저희 교사들 모두가 순수한 심성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짝 귀띔을 해 주는데 명절이나 휴가철에 당직, 숙직을 부탁하면 군말 없이 대신 맡아주기도 하고, 축구, 족구,테니스나 등산 등 5쳑 단구지만 못하는 것이 없어서 누구나 친구가 된다는 것이다.

하루는 내가 종단 일로 지방 사찰에 다녀왔더니 온통 방을 어질러 놓았다가 치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도 있고, 만화책 찢어진 것도 있고… 별 것이 다 있어서 정신이 없을 지경인데 아무 표정도 없이 "우리 학교 아이들이 놀러왔는데 절에 오니 참 좋아하네요. 이틀 밤 자면서 잘 놀다 갔어요."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절에 왔을때 물어 보았다.

"너희 선생님 어디가 좋으냐?"

"다 좋아요." "간섭도 일체 안하시고… 항상 웃으시며 수업하세요…"

법철 스님은 어려서 중이염을 앓아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별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스스로 곱씹는 경향이 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사람을 피하

월급 대부분을 인재양성과 시민·복지단체 후원금으로

는 것 같기도 하여서 오해를 사기도 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는 출가한지 두어 해 지나서였다.

날이 저물거나 밤 또는 새벽을 가리지 않고 법당에 올라가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목소리가 잠겨서 꽥꽥거리는데 참 보기 딱하였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아서 그냥 두었는데 열흘가량이 지나고 나서야 포근한 표정이 보여서 감감하여서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세상을 영악하게 살아가는 데는 힘이 들지 모르지만 별로 좋은 것도 많지 않은데 다 들리지 않아서 좋아요. 사형은 들리는 것마다 다 좋나요? <육조단경>의 말씀대로 남의 허물을 보거나 말하지 말고 내 허물을 보라고 하신 가르침을 실천하기 좋은 몸이지요" 하였다.

교사생활을 하니 월급을 받는다. 지나가는 말로 쓰임새를 물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참 가진 것이 많아요. 부처님은 삼의일발로 늘 얻어 자셨는데 우리는 한 끼니도 얻어 먹지 않잖아요?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급료를 받으면 세 등분으로 나눈단다. 삼분의 일은 생활비로 쓰고, 삼분의 일은 고아원이나 북한 돕기, 시민단체 후원금 등 복지기금으로 보내고, 삼분의 일은 불교인재양성에 보탬을 주기 위해 대학생불교연합회 활동을 같이 한 후배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금으로 보낸다고 했다. 스님은 늘 허름한 승복을 걸치고 다닌다. 쓰레기통에서 만난것 같은 낡은 옷이나 잘 맞지도 않는 신발을 아무렇지도 않게 신고 다닌다.

■관악산 자운암 상임법사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건강정보 수험생에게최고 은행석온열복대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70℃이상의 강한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가볍게 두들겨 주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및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결림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베게속에 넣고 평생 사용으로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건강을 나누는 (주)금강닥터에서 북한 3대명산품으로 소량만 생산되며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는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은행석 베개불, 은행석 목걸이를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판매되어 사용자들에게 좋은 반응과 기적같은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은행석을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예방되며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또한 하얀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다섯시간만 주무셔도 여덟시간 잔것과 같은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늘~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24시간 착용하는 은행석 목걸이와 같이 사용하시면 어깨, 목의 뻐근함을 부드럽게 하며 그 효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는 분이나 의자에 장시간동안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허리교정, 디스크 치료 및 부족한 기력회복 ※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 수면이부족한 수험생 (특히 여학생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문의전화(주)금강닥터(02)3210-3170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합격기원 디지털불경 룸비니

2000만 불자님의 필수품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계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룸비니와 함께 기도정진시 부처님의 자비로 합격의 영광을

최고의불경! 선물로도 최고!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도 하여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규격 8.5×5.2×2.0cm) 가격 58.000원



독경 :효동선각스님
테이프 : 8ea set
가 격 : 20.000원



C D : 2ea set
가 격 : 10.000원

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다. 불자라면 누구나 사찰,높은 산 등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께서는 합격기원을 위하여 기도 정진시 디지털 불경 룸비니와 함께 기도정진 하시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로 수험생에게 합격의 영광을, 불자님에게 대광명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의 심금을 울린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합격기원 3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 패키지1: 디지털불경 룸비니, CD2개 테이프 8개, 특별가 58.000원 (패키지1에서 테이프 3개시 50.000원)
- 패키지2: 디지털불경 룸비니 CD 1개 특별가 39.000원
- 문의전화: 02)3210-3178
- 입금계좌: 농협(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수험생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와 靈驗의 金剛念珠

합격의 영광을 금강 필승 염주

합격척척



▲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이다. 시험준비를 하는 동안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금강필승염주를 수험생방 또는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氣로 신기하리만큼 마음의 안정을 주며 필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필승염주입니다. 북한의 세계희귀 금강야석이 주성분이며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3%의 높은 원적외선, 강한음이온 등이 발산되어 건강에 최고이며, 북한3대 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금강염주입니다.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 수험기간에 금강염주 1set를 구입한 분에게는 은행석 베개불 1인용을 증정합니다.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 12단주,108, 손목염주 225.000원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또한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며 가피를 입을 수 있습니다.

108염주,12단주 195.000원
12단주,손목염주 110.000원
※ 별도 구입시 가격표
108염주 135.000원
12단주 85.000원
손목염주 38.000원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 건강(氣)이 약하신 분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금강염주는 사용할 본인이 점안식후 사용하세요.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가능 합니다.
농협:743-02-563237 정해철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전국대리점모집 사찰매장,불교용품점,개인사업자

가을 산사엔 축제가 '풍성'


2001년 열린 통도사 개산대재에서 통도사 개산조인 자장율사 부도에 차를 올리는 모습.

개산대재 등 불교행사, 지역민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사진전 · 음악회 · 인경체험 · 백일장 등 프로그램 다채

산이 가장 화려한 옷을 갈아입는 가을. 명승지에 위치한 고찰들이 가을 산을 찾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심어주는 각종 문화 행사를 마련한다. 특히 이들 사찰들은 오랜 전통을 가진 개산대재 등 불교행사를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탈바꿈해 선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개산대재를 여는 사찰들은 합천 해인사, 부산 범어사, 양산 통도사 등. 해인사는 10월 8일, 범어사는 10월 14~17일 각각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개산 1359년을 맞는 통도사는 10월 21일 개산대재에 이어 22일 제6회 부도헌다제를 비롯, 유치부 재롱잔치, 합창, 제12회 괘불 특별전 등을 마련했다. 은해사는 10월 24일 개산대재와 보살계 법회를 함께 봉행하고 같은 날 저녁 산사음악회를 열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무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영규대사를 기리는 행사도 열린다. 옥천불교사암연합회는 9월 17일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음악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주 갑사는 10월 24일 개산대재를 봉행한 후 '영규대사 추모제'와 산사음악회를 마련한다.

가을밤을 수놓는 문화 축제를 여는 사찰들도 많다. 강원도 월정사는 10월 8~10일 3일간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 만등 밝히기, 탑돌이 등 불교 전통문화행사와 오대산 사진 공모전, 청소년 사생 및 백일장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특히 지난 6월 체결된 한중 오대산간 불교교류 협정에 따라 열리는 '중국 오대산 사진전', '유물로 보는 문수신앙 특별전' 등도 관심을 끄는 행사다.

순천 송광사도 10월 23, 24일 양일간 '송광사 불교문화축제'를 연다. 송광사 옛날 사진전, 선사유물전, 인경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삼랑성역사문화축제는 10월 15~17일 강화 전등사, 양평 은행나무 축제의 산사음악회는 10월 11일 상원사에서 각각 열리며, 고창 선운사는 9월 18일까지 전제우 씨의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제주 관음사는 9월 18일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이밖에 봉화 청량사(9월 18일), 공주 영평사(10월 9일), 단양 광덕사선원(9일), 천안 성불사(16일), 해남 미황사(23일), 서울 심곡암(31일) 등 사찰도 산사음악회와 결합한 다양한 가을맞이 프로그램들을 마련, 관람객들에게 멋진 '가을'을 선사한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사찰 문화행사 일정

사찰	날짜	연락처	내용
고창 선운사	9월 11~18일	(063)561-1422	전제우 사진전
강릉 록유사	9월 16일 오후 2시	(033)647-1392	영산대재
옥천불교사암련	9월 17일	(043)732-5560	영규대사 추모음악제
봉화 청량사	9월 18일 오후 7시	(054)672-1446	산사음악회
제주 관음사	9월 18일	(064)722-2829	영산대재
공주 영평사	10월 2~17일	(041)857-1854	산사음악회, 구절초축제
합천 해인사	10월 8일	(055)931-1001	개산대재
서울 삼보사	10월 8일	(02)352-6406	가을소리 은평축제
평창 월정사	10월 8~10일	(033)332-6661	오대산 불교문화제
단양 광덕사선원	10월 9일 오후 5시	(043)421-6900	산사음악회
양평 상원사	10월 11일	(031)773-4634	산사음악회
부산 범어사	10월 14~17일	(051)508-3122	개산대재
강화 전등사	10월 15~17일	(032)937-0125	삼랑성역사문화축제
천안 성불사	10월 16일 오후 7시	(041)565-4567	산사음악회
광주 증심사	10월 18일	(062)226-0107	산사음악회
양산 통도사	10월 21, 22일	(055)382-7182	개산대재, 괘불특별전
해남 미황사	10월 23일 오후 1시	(061)533-3521	작은음악회, 괘불재
순천 송광사	10월 23, 24일	(063)243-8091	송광사 불교문화제
영천 은해사	10월 24일	(054)335-1369	개산대재, 산사음악회
공주 갑사	10월 24일	(041)857-8981	개산대재
서울 심곡암	10월 31일 오후 1시	(02)914-8860	산사음악회

전시

광주비엔날레 보러가자

40여개국 작가 200여명 참가…11월 13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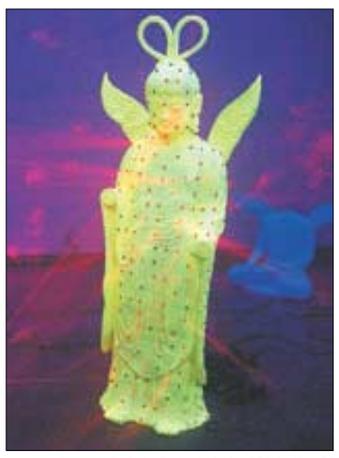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미술문화축제의 화려한 막이 오른다.

창설 10주년을 맞는 광주 비엔날레가 세계 40여국 200여명의 작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13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물 한 방울 먼지 한 톨.' 급격한 산업화 때문에 파괴된 자연환경과 인간 삶의 변화 양상 등을 그림, 조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먼지', '물', '물+먼지', '클럽'이란 이름을 가진 전시실 역시 이번 광주 비엔날레의 친환경적 특징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부처님 그림' 3천여 개를 쌓아올린 강익중 씨의 '삼라만상 2004' 등 불교적 내용을 다룬 작품들도 다수 전시된다.

관객 참여가 가능한 '현장 전시회'는 '즐거운 발자국 흥겨운 축제마당', 한국 미술의 역동적인 힘을 보여주는 '한국특급', 산업화 속에 밀려나고 있는 전통 가치를 돌아보는 '그 밖의 어떤 것들' 등 주제로 진행된다.


2004 광주 비엔날레에서 전시된 이한수 作 '천개의 눈을 가진 선녀'.

앵글에 포착된 현대사의 현장

세계보도사진전
9월 2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이라크 전쟁에서 포로가 된 아버지와 아들 사진.


2003년 라이베리아 내전으로 살해된 흑인들 모습.

전 세계 사진 기자들이 발로 뛰며 찍은 사진들을 모은 전시회 '세계보도사진전'이 9월 21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에서 열린다. 이라크 전쟁, 이란 밤시 대지진,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내전 등 현대사의 한 장면을 담은 사진 192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격동의 현장을 뛰어다니는 사진 기자들은 삶과 죽음의 모습을 때로 격렬하면서도 때로는 냉정한 시선으로 포착하고 있다. 성인 7천원, 대학생 5천원 등.(02)736-2260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합격기원 붓다순금 카드세트



순금은 영원불변의 상징으로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다. '합격기원 붓다 순금카드'는 수험생들에게 선물용으로 아주 적당하며 각종 시험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다. 크기는 가로 세로 5.5cm 8.5cm, 무게는 3.75g(1돈), 가격은 19800원.(02)732-1520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05:45 고승열전
09:05 차 한잔의 선율
02:05 네트워크 연결, 전국은 오늘
17:10 무명을 밝히고
18:00 저녁예불
21:30 BBS 초대석
00:00 살며 생각하며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15일 09:20 혜거 스님의 선특강
16일 16:10 팡팡 룸비니 동산
17일 08:20 정병조 교수의 불교와 현대사회
18일 12:00 충서 성불하십시오
19일 17:30 불교TV 스페셜-삼광사 칠석제
20일 14:30 불교TV 메디칼
21일 15:10 성운대사 불경강좌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사찰순례(9월 12일 일요일 오전 6:30~7:00) 전국 각지의 사찰 역사와 성보 문화재, 설화와 주석하셨던 스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이다. 사찰문화 연구원 신대현 박사가 출연한다.

■불교텔레비전: 정세채 교수의 선식건강법 '밥상에 도가 있다'(9월 16일 08:20~09:10) 이번 주는 '먹는 산소'라 불리는 게르마늄의 효능에 대한 시간을 마련했다.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등을 통해 혈액을 정화하여 혈행을 개선하는 게르마늄에 대해 알아본다.

극장가



80일간의 세계일주 / 어드벤쳐, 액션 / 90분
개봉예정일: 9월 17일
감독: 프랭크 코라치
출연: 성룡, 스티브 쿠간, 세실 드 프랑스 등
등급: 연소자 관람가

성룡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주인공의 조언자이자 친구인 파스포트로 분했다. 런던은행에서 훔친 불상을 고향인 중국으로 가져가야 하는 파스포트, 그가 80일간의 세계일주를 하는 괴짜 발명가 필로스 포그 백작과 함께 다니는 세계 여행은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아놀드 슈워제너거, 캐시 베이츠, 홍금보 등이 카메오로 출연한다.



슈퍼스타 감사용 / 드라마 / 113분
개봉예정일: 9월 17일
감독: 김종현
출연: 이범수, 윤진서, 공유 등
등급: 연소자관람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영화. 프로야구 원년 인천을 연고로 결성된 '삼미 슈퍼스타즈'의 유일한 좌완투수 감사용 선수가 주인공이다. 1승 15패 1세이브라는 초라한 전적을 남겼던 그에게 주목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영웅이 아닌 자신만의 1승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이다.



귀신이 산다 / 코미디 / 123분
개봉예정일: 9월 17일
감독: 김상진
출연: 차승원, 장서희, 장항선 등
등급: 12세 이상

웃음보따리를 풀러 차승원이 돌아왔다. 이번엔 3대를 이어온 셋방살이 설움에 '네 집을 가져'라는 아버지 유언을 인생목표로 악착같이 내집마련에 나선 박필기로 분했다. 낮에는 조선소 기사로 밤엔 대리운전으로 투잡스, 쓰리잡스로 사회생활 10년만에 대출에 융자끼고 거제도 바닷가 이층집을 샀다. 과연 그집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게시판

공부합시다

불교법회교사대학 대구 영남불교대학은 11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불교법회교사대학' 강좌를 마련했다. 불교 근본교리를 비롯, 레크레이션 등 어린이 법회 지도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다.(053) 474-8228

음악교실 대구 관오사 불교사회교육원은 9월 21일부터 3개월간 서연스님과 함께하는 음악교실을 개최한다. 선착순 20명,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수강료 7만원 (053)475-2588

공개강좌 한옥문화원은 9월 18일 오후 3시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한옥의 빛과 조명' 주제의 여덟 번째 공개강좌를 진행한다. 강사는 신영훈 한옥문화원장과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 김대벽 씨.(02)741-7441

상담교육생 모집 한국여성불교연합회는 9월 16일~11월 3일 서울 인사동 연꽃교육장에서 제3기 이혼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가 교육생을 모집한다. 선착순 30명.(02)738-5586

전통사찰음식강좌 동국대는 9월 15일~12월 1일 수요일마다 총10회에 걸쳐 '제9기 전통사찰음식조리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02)2260-3058

실버호스텔 수강생 모집 서울 상명대 평생교육원은 10월 4~22일 진행되는 인터넷 강좌와 문화유산 답사를 결합한 '실버호스텔 프로그램'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02)2287-5210

함께 해요

불교영화 상영회 참여불교재가연대는 9월 1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안국동 불교경영정보교육센터에서 독일 도리스 도리 감독의 불교영화 'Enlightenment Guaranteed'를 상연한다. 참가신청.(02)2278-3417

우룡 스님 초청법회 대전 불교문화회관은 9월 15일 오후 7시 개관 13주년 기념 우룡 스님을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042)624-6555

고승대덕 초청법회 서울 삼각산 도선사는 9월 15일부터 여러 큰스님들을 초청한 법회를 열고 있다. 9월 15일 현성 스님, 18일 무진장 스님, 20일 지관 스님, 22일 고산 스님 등.(02)993-3161

연잎차 만들기 체험 남양주 봉선사(주지 철안)와 한국차인연합회 다예랑다도원은 9월 22일 봉선사에서 연잎차 만들기 체험행사(사진)를 연다. 오전 9시~오후 4시 이어지는 이번 체험행사에서는 경기도 박물관 다도강좌 수강생들이 참가자에게 차를 공양한다.(031)527-1956



불우이웃돕기 행사 서울 본동복지관은 9월 15~17일 진행되는 불우이웃돕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5일 서울 흑석동 해태마트 앞 '쌀 한 줌 나누기', 16일 본동 쌍용아파트 상가 앞 '바자회', 17일 복지관 주차장 '일일카페' 등.(02)817-8052

사회복지 실습 희망자 모집 서울 관악노인복지관은 2004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사회복지실습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기간은 12월 28일까지.(02)888-6144

추석 귀향차 무료점검 서울 마포구청은 9월 15일 오전 10시~오후 4시 구청 주차장에서 추석 귀향차 무료 점검 및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02)330-2881

즐겁게 떠나요

역사 문화 답사 답사단체 터사랑은 추석을 앞둔 9월 26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강화 역사박물관 찾아가기' '정조의 계획도시 수원화성과 융·건릉' '인왕산과 서울 성곽을 따라서' 등 문화답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02)725-1284

문화 답사 답사단체 옛돌은 9월 18일 봉화 청량사, 부석사 등을 둘러보는 문화답사를 실시한다. 출발은 오전 7시 30분,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차장.(02)2009-3477

20면 상식 퍼즐 정답

제	공	호		기		
행		남	가	일	몽	
무			람		유	
상	어				병	가
	물		후			가
	전	대	미	문		호
		로		인	공	호

신행수기

새 인생 주신 부처님 〈상〉

이묘노 (고양시 탄현동)



그림 · 김흥인

어머니 장례 치르다 군대간 아들 죽음 통보받아
가슴에 자식 묻고 울부짖으며 10년간 방황
우연히 찾은 향일암서 발심 '금강경' 읽기 시작

오늘은 날이 매우 흐립니다. 그리고 비가 조금씩 뿌립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일지화는 비를 맞으며 친정 아버지를 뵙고 오는 길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마음으로 친정아버지께 한끼 식사를 공양드리고 왔기에 마음이 참으로 흐뭇합니다. 그리고 봉사라는 단어도 살짝 되뇌어 봅니다.

불자가 된 지 어언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나온 세월 살아온 세월,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과거이건만 지금 이렇게 마음과 가슴이 따뜻해지고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은 아마도 부처님께 가피력을 입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효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화투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 집안이 가난했고 아버지께 좋은 생각과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 인연으로 일지화는 효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게 됐고, 아버지가 사시는 동안 잘 해야겠다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부처님 경도 모르고 부처님 행도 모르고 부처님이란 뜻도 모른 채 살았지만 부처님 은혜로 다시 태어났고 부처님께 법명도 받았습니다. 일지화라는 법명을 말입니다. 이묘노란 이름은 땅 속에 묻고 일지화라는 이름을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일지화는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좌절에 빠진 채로 오로지 술에 젖어 가랑잎처럼 오늘도 어제도 10년이란 세월을 울며불며 통곡하며 보냈습니다. 아들을 돌아올 수 없는 세상으로 떠나보내면서 사는 것이 무의미한 그 마음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가슴에 묻은 자식을 그리며 울부짖으며 살아온 세월. 부처님 가피력을 입은 전 남은 여생 좋은 일 좀 하다 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능력만 된다면 불자들에게 할 수 있는 그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야 할 부처님법의 실천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부처님만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 부처님만 믿겠다고 합니다. 참선이나 염불이나 나에게 맞는 기도를 하면 마음의 양식이 됩니다. 이렇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처님 가피력을 입은 일지화, 항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시고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날 되시라 발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처님 부처님 하는지 아시는지요.

전 10년 전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어느날 군대에서 온 연락은 아들이 죽었다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어머니 상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쌍초상을 치르면서 기구한 운명의 일지화,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도 가봤지만, 내게 일어나는 장애로 교회도 그만뒀습니다. 그때 절에 오래 다닌 사촌 올케의 권유로 절에 한두 번 건성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이 때에는 알코올 중독자와 다름없었고 식구들도 다 흩어져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원사, 연주암, 봉정암, 법흥사, 여러 절을 따라다닐 때는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술을 가방에 가지고 다니며 절안에서도 마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올케언니와 함께 향일암에 갔습니다. 향일암을 다니기 전에는 불교에 대한 것을 아무 것도 몰랐고 사찰 예절도 몰랐습니다. 부처님 말씀도 스님의 법문도 뭐가 뭔지 모른 채로 그냥 다니기만 했습니다.

향일암에 도착한 그 때도 올케 언니는 대웅전에 들어가서 절을 열심히 했지만, 나는 그 와중에 하늘을 올려다보고 신도들 오고 가는 모습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데 한 거사님께서 여러 불자들을 모시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때 저는 거사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기가 오염되게 촛불은 왜 켰는지 모르겠군요"하고 말입니다. 합성을 지르며 울분섞은 목소리로 마구 외쳤습니다. 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촛불은 온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추기 위해 켜는 것입니다"라고 하시며 <금강경>의 말씀이라 하시더군요. "그럼 <금강경>은 무엇인데요"했습니다. <금강경>은 부처님 생의 살이라 하셨습니다. "전 너무너무 괴롭고 울분만 남은 존재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거사님께서는 <금강경> 읽기를 백날하면 자기의 소원이 이뤄진다고 하시더군요. "전 술을 많이 먹습니다. 술을 먹으며 읽어도 되나"고 물었더니, "술을 잡수고도 읽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대신 하루도 빠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경책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읽지 않은 것으로 알고, 경책이 옆으로 옮겨졌으면 읽은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맘껏 먹고 밤 12시가 되기 전에 술에 취해 <금강경>을 읽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술을 먹고 경을 읽으면 효과가 없어, 술을 먹지 않고 해야지 말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사님께서 술을 먹고 해도 된다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일의 일주일을 앞두고 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가게가 나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가게 계약자가 나타났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 열심히 <법화경> 사경, 능인불교대학 기초교리 4개월 과정도 마쳤습니다.

이제는 조계사 법사 2년 과정을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양로원 어르신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의정부 선재동자원에 매달 마지막 일요일 도넛 봉사도 갑니다. 도넛을 만들 때 마음이 뿌듯합니다. 우리 아기 부처님, 선재동자원 부처님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하〉



김장호
하나은행 차장

마음자리 이해한 뒤 화두풀기 몰두
공부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길 열려

종성 스님(임제선원 조실)께서는 '신심(信心)'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마음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떠나서 마음을 밝힐 수 없음을 간명적절하게 일러 주시니 밖을 향해 더 이상 탓을 하거나 헤맬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에 초탈하시면서 격식을 떠나신 분이 종성 스님입니다. 입전수수(入廛垂手: 중생구제를 위해 저자에 들어와 세상에 손을 드리우다)하시는 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화두 참선을 한다며 좌선할 때 호흡과 자세 등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저는 그 동안의 가르침이나 책에서 봤던 내용을 다 놓아 버리고 종성 스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에 믿음을 내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본래 빈 마음자리만이 모든 모순이 사라진 여여한 자리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시작하니 이전에는 오락가락하던 화두 참구에 훨씬 탄력이 붙었습니다.

참선 공부라 하여 문자적인 알음알이를 큰 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는 마음자리에 대한 이해는 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마음이 허공과 같은 본래 빈 마음자리임을 이해한 다음 화두를 들고 성성적적하게 나아감을 제일 먼저 화두 참선의 가르침으로 삼으면, 공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많은 이들이 화두 참선을 하고 싶어 하지만 화두 공부의 난해함과 주위의 형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접하기도 전에 겁을 먹거나 팔자 탓으로 돌리곤 하는데, 마음을 내면 공부 지도를 받을 길이 생김을 확신합니다. 한 번 부딪쳐 보기를 권합니다.

근래에 종성 스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법현 스님이 시봉하실 일이 더 많아지셨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독 법현 스님께 까랑까랑하게 대하시던 스님께서 한 순간 법현 스님께 법상(法床)을 물려주시어 몇 년 전부터 법현 스님이 법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야 큰스님께서 법현 스님을 까랑까랑하게 대하셨던 심심(深深)하신 뜻을 대롱 같은 소견으로나마 조금은 알 것 같고, 법상을 물려받으시기까지 법현 스님께서 지난(至難)한 어려움을 항복 받으시고 불자들에게 법문을 들려주실 수 있게 됨은 우리 불자들의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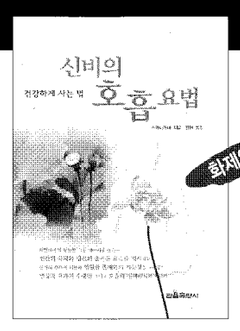
법현 스님은 은사스님과 같이 계시면서 법문 한 구절 따로 배운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재가불자 법회 때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곤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물 긷고 나무하고 밥하는 일을 하며 은사스님을 모시고 십 수 년을 서울 도심의 선원에서 공부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공부 성취를 위해 일체를 희생하시는 스님의 모습, 그 자체로 선가의 귀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법현 스님 법문의 요지는 화두 참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살님, 젊은이들, 직장불자회 등의 법문 청을 받으시고는 불자들의 높이에 맞춰 법문하시는데 화두 참선에 들도록 권하기도 하시고 몇 마디 송구(頌句)로 천만 마디 말과 생각을 끊어버리기도 하시는 스님의 간절한 마음을 대할 때마다 흐트러졌던 신심을 다시 다잡을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법현 스님께서 법문을 하신 이래로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을 자청하면서 재차 삼차 보고 또 보면서 공부길이 희미하던 것이 차츰 밝아짐을 느낄 때면 스님의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종성 스님께서 제 공부의 큰 대요를 잡아 주셨다면 법현 스님께서는 구체적인 공부길을 일러 주시기에 두 분의 고마움에 깊이깊이 감사드립니다.

히말라야의 영원한 스승 바바지를 통하여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올바른 호흡을 제시하고 인간의 우주적 역할과 영원한 존재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명상과 요가의 수행법 그리고 호흡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

건강하게 사는 법
신비의 호흡 요법



■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화가 나면 순조롭고 편안한 호흡을 할 수 없다. 다른 호흡방식과 마찬가지로 호흡의 흐름이 불규칙하면 육체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명상은 한 곳으로 정신집중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깊은 명상에 있어서는 한 곳으로 정신집중된 마음이 무의식과 의식의 층을 뚫고 초의식의 경지로 돌파해 나가는 것이다.

스와미라마 지음 · 길연 옮김 · 신국판
240쪽 · 값 10,000원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초기공법
건강을 부르는 氣 부를 부르는 氣
몸과 정신건강의 혁명
현대병 치료의 한계를 기공으로 간단하게
이영일 편저 · 사륙판 · 212쪽 · 양장본 · 값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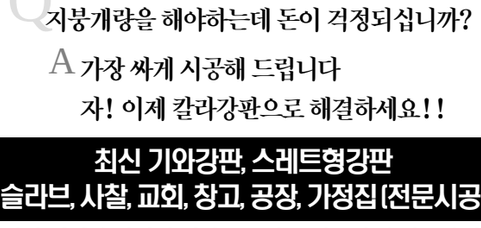
생명의 원천을 활성화시키는 21세기의 새로운 건강법
핵산! 암을 이기다
『앞으로 1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죽음의 선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암 환자의 기쁨의 소리! 이제 병원에서도 상용하기 시작한 핵산의 경이로운 효과를 알기 쉽게 해설한, 바로 그 책.
히로아키 감수, 미야나가 요시아키 지음 · 사륙판 · 190쪽
양장본 · 값 12,000원

신비의 건강요가 아유르베다
오천년의 역사를 지닌 인도 전통의 예방의학 체계로써, 아유르베다는 생활과학이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과 장수(長壽)를 원하는 모든사람들에게 수십세기에 걸쳐 확인하고 다듬어진 지침들을 제시한다.
바산트 레드 지음 · 신국판 · 206쪽 · 값 7,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譯註望溪/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우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백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金允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실풀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흥가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김용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길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上)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3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국판/우영재 지음/정가 18,000원
24 21C 천문만세력 4×6배판/정수홍 지음/정가 35,000원
25 실전 명리학 첫걸음 신국판/정수홍 지음/정가 15,000원
26 적천수 형의(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7 정설 사주공부 신국판/양장본/일현스님 지음/정가 20,000원
28 新 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정가 9,000원
29 풍수학논법 신국판/양장본/성재권 지음/정가 25,000원
30 易學, 더 이상의 학문은 없다 신국판/녹현 이세진 지음/정가 20,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통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27) 팔공산 은해사

온갖 식생으로 이뤄진 '화엄숲'


10여m 높이의 퇴적층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맑은 계류가 흐르는 은해사 계곡.

계곡에 쌓은 堡 영향으로 석암반 잠기고 수질 떨어져
자연성 간직한 운부암, 성철·향곡 스님 수행하던 곳

풍수하는 사람들은 팔공산을 한반도의 단전(丹田)이라고 한다. 신라가 오악(五岳)을 정할 때, 팔공산을 중악(中岳)으로 모시고 국운을 기원했다는 내용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온다.

팔공산은 최고봉인 해발 1192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봉(1155m)과 서봉(1041m)이 삼존불처럼 나란히 솟아있다. 하늘에서 본 팔공산은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두 날개를 활짝 펼친 형태이다.

부인사를 가운데 앉히면 동화사와 파계사는 양쪽 날개에 해당하고, 은해사와 송림사는 양쪽 날개깃에 해당한다.

은해사(銀海寺) 일주문을 들어서면서 팔공산 절골이 시작된다. 늘씬한 소나무와 활엽수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절골'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이 솔숲은 은해사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산 증인이다.

은해사는 조선 12대 인종(仁宗)의 태실(胎室) 수호사찰로 지정된 후 숙종 때인 1712년에 왕실의 종친부에 귀속된 적이 있었다. 지금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그때 심어진 것들이다.

숲을 지나다보면 길 오른쪽에 늙은 참나무와 느티나무가 서로 엉켜 붙어 연리목(連理木)으로 자라고 있다. 연리목이란 글자 그대로 서로 이웃한 다른 나무끼리 몸이 맞붙어 한 나무가 된 것을 말한다. 은해사 사중에서는 남북통일을 점쳐주는 상서로운 현상이라고 좋아들 하고 있다.

숲길을 지나면 계곡을 만난다. 왼쪽으로 10여 미터 높이의 퇴적층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절벽에는 이끼류와 풀들이 드문드문 돋아서 마치 수반 위에 올려놓은 큰 수석(壽石) 같다. 그 수석 아래로 맑은 계류가 흐르고 있지만, 수량은 적은 편이다.

그래서 절에서 오래 전에 아래쪽에다 보를 쌓고 계곡물을 가두었다. 그 바람에 아름다운 청석암반들이 물속에 잠겨버렸다. 보를 막으면 오니(汚泥)들이 쌓여 수질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계류가 연못처럼 바뀌자 물총새들만 신이 났다. 물총새 한 쌍이 관광객들이 오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사냥하느라 정신이 없다.

물총새는 파란 코발트색과 녹색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여름철새이다. 몸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고 부리가 길어서 가분수꼴을 하고 있다. 물고기를 사냥하는 솜씨는 신기에 가깝다.

물가를 좋아하는 노랑할미새 몇 마리도 여기저기 포르르 날아다닌다. 주변 숲과 계곡에는 직박구리, 딱다구리, 휘파람새, 딱새, 박새류 등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대숲을 병풍으로 두른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심검당과 설선당이 자리해 있다. 지장전은 욕심이 들어간 전각이다. 우리 건축의 아름다움은 정면과 측면의 길이의 비에서 나온다. 즉 정면 길이는, 측면의 길이를 1로 보았을 때 $\sqrt{2}$에 해당한다. 지장전의 비율은 1:1에 가깝다. 사람으로 치면 비만(肥滿)에 걸린 셈이다.

종무소 앞에는 우람한 향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이 향나무 역시 은해사가 종친부 사찰이었을 당시에 심어진 것으로 보인다. 은해사 주변에서는 가장 나이 많은 노장나무다.

서운암으로 가는 숲길은 포장길이다. 길섶과 초지와 묵밭에는 개망초, 거북꼬리, 금낭화, 기린초, 꼭두서니, 담쟁이, 박주가리 등이 눈에 띈다. 습한 곳에는 고마리, 노란물봉선화, 석잠풀, 달뿌리풀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노랑물봉선은 우리나라의 산과 들의 습한 지역에 야생하는 물봉선화 가운데 노란색을 띤 종류이다. 개체수에 있어서는 붉은물봉선보다 뜸하다. 꽃은 줄기와 잎의 겨드랑이에 고깔 모양으로 매달려 피는 통꽃이다.

석잠풀은 30cm 가량의 키에 4각으로 모가 난 줄기에 잎과 꽃이 사방으로 둘러 핀다. 꽃은 여름에 피며, 연자주색에 붉은 점들이 나있다. 꽃잎 끝이 입술을 닮았다.

등산로를 따라 참나리들이 보인다. 자생한 것이 아니라 스님들이 심어놓은 것인데도 주위의 다른 야생화들과 능청스럽도록 잘 어울려서 절로 난 것처럼 보인다. 꽃은 거의 떨어지고 염소똥 같은 주아(珠芽)만 잎겨드랑이에 탐스럽게 남았다.

백련암 삼거리에서 운부암과 백흥암으로 가는 길은 군데군데 비포장 오솔길이다. 한 20분쯤 올라가다보면 저수지께에 이르러 삼거리가 나온다. 운부암에는 한말 개화사상가 박규수가 쓴 '雲浮蘭若(운부난야)'란 글씨가 남아있고, 백흥암에는 추사가 쓴 '十笏方丈(십홀방장)'이라는 글씨가 남아있다.

저수지까지 올라오는 동안 길섶엔 갈퀴나물, 인동덩굴, 부처꽃, 광대싸리, 기린초, 석잠풀, 사상자, 꼭두서니, 박주가리, 엉겅퀴, 애기똥풀, 하눌타리, 애기나리군락 등이 관찰된다. 묵밭엔 개망초꽃이 군락을 이루며 흐드러지게 피었고, 같은 귀화식물인 환삼덩굴, 달맞이꽃 등도 함께 피었다. 그 풀밭 사이로 여기저기 밤나들이를 다녀간 너구리 발자국도 눈에 띈다.

길섶 숲자락과 풀밭에 밀들이메뚜기들이 보인다. 날개가 퇴화되어 배와 엉덩이를 다 드러내놓고 있다고 해서 밀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전체적으로 짙은 녹색을 띠며 머리와 앞가슴 양쪽 가장자리를 따라 굵은 흑색 무늬가 존재한다.

길고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유리창떠들석팔랑나비 몇 마리도 눈에 띈다. 몇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며 세력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떠들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주로 고삼, 갈퀴나물, 타래난초, 개망초, 엉겅퀴 등에서 꿀을 즐겨 빤다. 수컷은 때때로 동물의 배설물에도 잘 모인다. 1년에 1회 여름철에만 나타난다.

목본류로는 개옻나무, 국수나무, 느티나무, 다래, 때죽나무, 머루, 붉나무, 산벚나무, 산초나무 등이 멀리 또는 가까이서 숲을 이루고 있다. 나무들은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큰 화엄(華嚴) 숲을 이루고 있다.

백흥암을 지나 묘봉암과 중암암으로 가는 숲은 자연성이 높다. 키 큰 소나무와 참나무류들이 사이좋게 숲을 이루고 있다. 참나무숲은 곤충들의 숲이다. 사슴벌레 한 마리가 훤한 대낮인데도 어슬렁거리며 내려왔다. 사슴벌레는 환경파괴로 인해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대형 딱정벌레이다. 사슴벌레는 은해사의 지표종으로 이의가 없다.

저수지에서 오른쪽 오솔길로 30분가량 올라가면 산중에 운부암이 있다. 향곡 스님과 성철 스님이 이 암자에서 함께 수행할 때의 일이다. 큰 절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성철 스님이 장난을 걸었다.

"누가 저 잣나무 위에 먼저 올라가는지 내기하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향곡 스님이 청설모처럼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자, 성철 스님이 "저기 자네 마누라와 새끼들이 자네를 붙잡으러 올라오고 있네!"라며 소리쳤다. 그리고는 향곡을 나무 꼭대기에 놔두고 줄행랑쳤다.

두 사람 모두 처자식을 속세에 두고 출가한 몸이었다. 그들의 고뇌를 엿보게 하는 일화이다.

향곡 스님이 올랐을 법한 늙은 잣나무가 간간이 눈에 들어온다. 날이 저물고 있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은해사에서 가장 나이 많은 향나무(오른쪽).


은해사 계곡 보(堡).


유리창떠들썩팔랑나비.


사슴벌레.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모두 나 아님 없어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야로 한자리 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근기가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또 나로 인해서 내 근본이 우주와 더불어 같이 상응이 되고 직결돼서 모든 게 전달되고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되겠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때는 참 감사함을 느끼고 그럽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왔든지 온 거는 사실이고, 어떠한 문제를 가져왔든지 그것은 공부하는 데 전부 재료니깐 말입니다. 하여튼 장합니다.

우리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를 해야 마지막에 내가 성불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모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영혼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거기에 부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몸속에 있는 의식들이 잘나잘나에 여러분을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분을 병고로 휘달리게도 하고, 애고도 나오고, 유전성도 나오고,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까지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롭히는 것을 녹여야 된다 하는 것은 모든 거를 나오는 데다가 되놓을 수 있다면, 안되는 거는 되게 마음을 내서 말겨 놓고 또 되는 것은 감사하게 말겨 놓고, 이렇게 해야만이 일체가 다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참으로 근기가 약하면 산란해져서 바깥으로 끄달리고 일일이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말겨 놓는다면 신경을 쓸 일이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정신적인 보살의 행은 모두가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부터 제도해야 마지막에 자기가 성불을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몸뚱이 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의 중생도 자기 아님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은 잘되게끔 다스리고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자유자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몸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한데로 한마음으로 모아서 내가 마음 쓰는 대로 그것이 법이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화신, 보신, 보현신입니다. 그 법신, 보신 이런 것으로 모든 중생들이 화해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응신이 돼야, 마지막에 가서 내가 성불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양면의 모든 거를 한군데서 나온다고 믿지 않는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허공을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와 같습니다. 땅에서 엎드러졌으면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허공을 허우적거린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자기의 업식이지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고를 딴 데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 지금 나오는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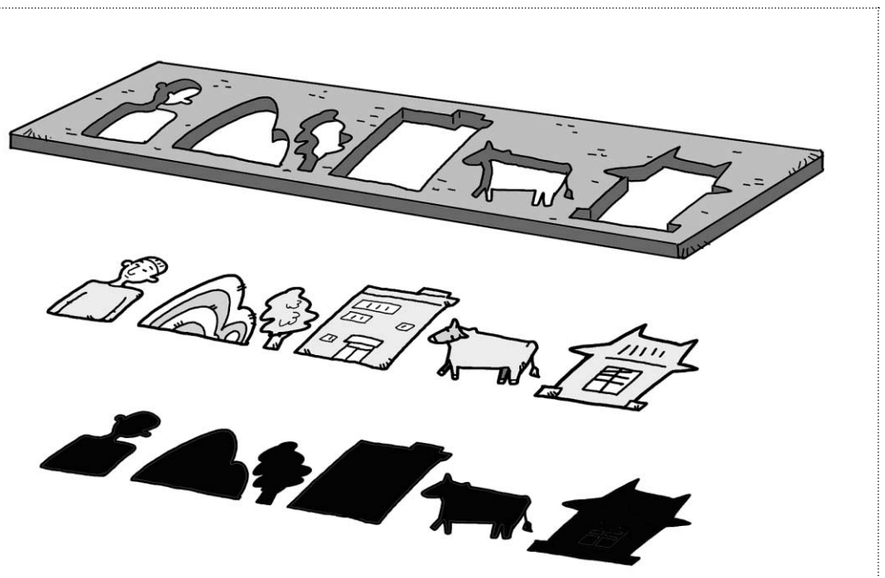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런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침착하게 잘 들으셔야 하고, 듣는 것도 귀로 들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모든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뒤죽박죽 사는 것 같지만 질서정연하고 조금도 에누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어디를 갔다 오는지 그걸 몸속의 중생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깐 내 마음이 내 육체 속에 있는 의식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또 지구 자체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인 이 조그마한 혹성과 같이 지구의 혹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죽박죽 돌아가는 거 같지만, 그래서 순서도 없고 뭐 아무 질서도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질서정연하게 에누리 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한 세상 "아휴,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래?" 하지만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한 대로 받게 돼 있고, 한 대로 주어지게 돼 있고, 자기가 마음 쓰는 씀씀이에 의해서 주어지고,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자동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남을 때리면 맞아야 하고 사기를 쳤으면 은 사기를 당해야 하는 것이 분명코 있습니다.

우리 살림살이가 이렇듯이, 지구의 혹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혼란스러운 정맥 동맥이 인간에게 그저 쉴 사이 없이 돌아가듯이, 지구도 역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질서정연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해야만이 우리의 생각대로 지구도 멋진 지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생각을 잘하고, 작용을 잘하고, 행을 잘하고, 모든 것에 겉으로 허황되게 논란을 부리지 말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렇게 해야만이 지구에 어떠한 일이 생긴대도, 흠집이 났다고 병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씻은 듯이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뚱이와 같습니다.

지구에서 붙어 사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 몸속에 붙어서 사는 중생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작용을 해줘야만이 지구의 수명이 길어지고 더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우주 천하 모두가 다 그렇게 연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죠.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그 간단한 말이 실은 간단치는 않습니다. 내 몸 하나도 주체를 못하고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도 제도 못하고 돌아가는 이런 판국인데 어찌 지구의 뜻을 알겠습니까?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한다면 똑 맞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과학자와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박쥐가 촉각을 일으켜서 오는 음파를 잘 통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를 가만히 보십시오. 물 한 방울이 때로는 정말 독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선약이 될 수도 있고, 물 한방울이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짐승도 될 수 있고 저 짐승도 될 수 있고, 이 꽃도 될 수 있고 저 나무도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될 수 있고, 물 하나가 그렇게 변해서 화하여 돌아갑니다.

그렇게 물이 변해서 나무가 됐다가 꽃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흙이 됐다가 허공이 됐다가 이렇게 조화를 부리는데 어떤 게 됐을 때에 이게 과학자가 지어놓은 이름이라고 하겠습니까? 약만 하더라도 물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 만물이 물 안 먹는 게 하나도 없고, 만생이 물 안 먹는 게 하나도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사람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모두가 변동이 된다 이겁니다. 지구도 물의 일종이죠. 흙과 물, 불, 바람의 일종이죠. 사람만 그렇게 바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구도 그렇게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천지조화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모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체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될 때에 과학자들이 "아버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또 아들이 될 때에 과학자가 "그건 아들이다" 이럴 수가 있나, 그럼 남편이 될 때에 과학자가 "남편이다" 이럴 수가 있나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과학자들도 생각하는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말로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무(無)의 세계의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이치를 어찌 말로 써놓을 수 있으며 어찌 말로 할 수 있으며, 어찌 이거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비유한 것이 아버지, 남편, 아들, 사위 이런 걸로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걸 아시겠죠.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마음으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제각기 벌어진다면, 즉 말하자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제가끔 논다면 운명 팔자를 못 면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다스려서 그걸 하나로 뭉쳐서 한마음으로 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한군데로 모아서 내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문제가 따르죠. 옆구리가 아프다 그러면 옆구리에 작용하는 그놈들에게, 바로 한마음이 되어 주고, 둘이 아닌 까닭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소요소를 진행해나가면서 모두를 하나로만 들어줄 수 있는 리드하는 마음의 주인이 있어야, 모든 중생들도 다 리드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리드해나갈 수 있어야만이 그 말 자체가 법이 되고, 행 자체가 그대로 법이 된단 얘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중생들의 마음이 내 마음을 따라 배우고 나가는데 모든 것이 흡수돼서, 팔자 운명이라든가 그런 걸 떠나게 되는데 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본래부터 잘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오다보니까 물질에 끄달리고 먹고 사는 데 끄달리고 애착에 끄달리고 욕심에 끄달리고 모두 그러다보니깐 잘못된 거지 애초부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 부처님도 자기가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어떻게 굴러왔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두가 얕은 것도 높고, 높은 것도 높고 평등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모두 잘못되는 거를, 고통을 알아야 고통이 고통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춥고 떨릴 때 뜨거운 엽차를 한 잔 마셔 보십시오. 춥고 떨릴 때 말입니다. 엽차를 마실 때에 뜨겁고 시원하고 그렇죠? 뜨거운 걸 알기 때문에 시원한 겁니다. 뜨거운 걸 모르면 시원한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어떠한 고(苦)가 닥치고, 애고가 닥치고, 병고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걸 재료로 삼아야지 허공을 허우적거리듯 "나는 인제 죽었다." 하고 신경질을 내고 온통 이 야단들을 치면 몸 상하고 집안 망하고, 식구들이 전부 제각기 헤어집니다, 마음들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마음이 잘못됨으로써 식구가 다 망가진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병든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가난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름에 끄달리지 맙시다. 모두가 이름에 끄달리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정말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허, 나도 예전에 저렇게 몰랐었지? 허허, 내 모습 갈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진정코 애닯고 애처롭고 그렇게 되지, '저걸 몰라서, 저거 저렇다.'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요. 여러분이 지혜가 풍부해야 조건 없는 자비도 나오지 지혜가 풍부하지 못하면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하고 부모를 위한다 하더라도 자유스럽게 살 수 있도록 행해야지, 말로나 행동으로 억압하고 이렇게 한다면 마음이 넓어질래야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만 내버려두세요. 저 산천초목의 모든 푸르름도 가만히 보세요. 제 이파리가 져서 떨어지고 져서 떨어지는 것이 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망가뜨려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것도 망가뜨린다고 할 수도 없죠. 잘못되고 잘되는 것은 물 흐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니까요. 말하자면 마음들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마음 떠나서 계발할 수 없고 마음 떠나서는 원력을 세울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나로 인해서 내 근본이 우주와 더불어 같이 상응이 되고 직결돼서 모든 게 전달하고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마음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내버려두면은 자동적으로 계발이 될 수가 없고, 창조력을 이룰 수가 없고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금을 장농 안에 가만히 넣어두고 있으면 이것이 발전이 될 수가 없어서 늘지 못한다, 금이 말이에요! 그러니깐 장롱 속에서 금을 꺼내서 자꾸 굴리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는 금이 많아져서 모두 나누어주게끔 되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안에서 상대를 보고 일어나는 마음도 다 내 마음 가운데서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다스려서 놓을 줄 알아야만이 정식으로 참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앉아서 좌선하는 것만이 참선이 아니다. 모두가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됐을 때 아버지라고만 고집하면 아들 노릇은 어떡하며 친구 노릇은 어떡하며 남편 노릇은 어떡하느냐 이 소립니다. 그와 같이 꼭이 마음 자체가 천차만별로 보고 듣고 행하고, 모든 거를 들이고 내고 하는 것을 그냥 마음 가운데다 쳐 놨을 때에 마음이 편안

☞30면으로 계속

어떤 苦가 닥치더라도 그걸 재료 삼아야

☞29면에서 계속

해야, 일하면서도 편안하고 서서 가다가도 편안하고 앉았는데도 편안하고 똥을 눠도 편안하고 이래야 좌선입니다. 이게 좌선이자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고통이 오는 것을 그 고통만 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그 고통이 어디서 온 거를 안다면, 아까 뜨거운 것을 알아야 시원한 것을 안다 이랬죠. 그와 같이 그냥 시원하게 대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 걸 모르니까 허우적거릴 수밖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관법을 말한 건데, 관하는 거는 그냥 '주인공이 잘 해주시오!' 하고 말로만 이럭하고는 거기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진짜로 인간이 어디서 오고, 어떡해서 이렇게 끌려서 돌아가는지, 운명 팔자가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안다면 대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는 것을 일러줘도 대치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거를 삼천대천세계의 근본과 사람의 마음 근본을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다' 이랬는데도 주인공을 믿고 놓을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그냥 '너 알아서, 너밖엔 할 수 없다.'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놔야 되는데, '해주시오' 해놓고는 그냥 바깥으로 막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난장판이 되니까 속에서도 의식들이 난장판이 될 수밖에요. 나뭇가지를 갖다 여러 개를 모아서 놓으면 부러뜨릴래야 부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거든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헤어지면 그냥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도 구분이 있듯이, 구분 없는 도리를 알아서 구분을 적절하게 정해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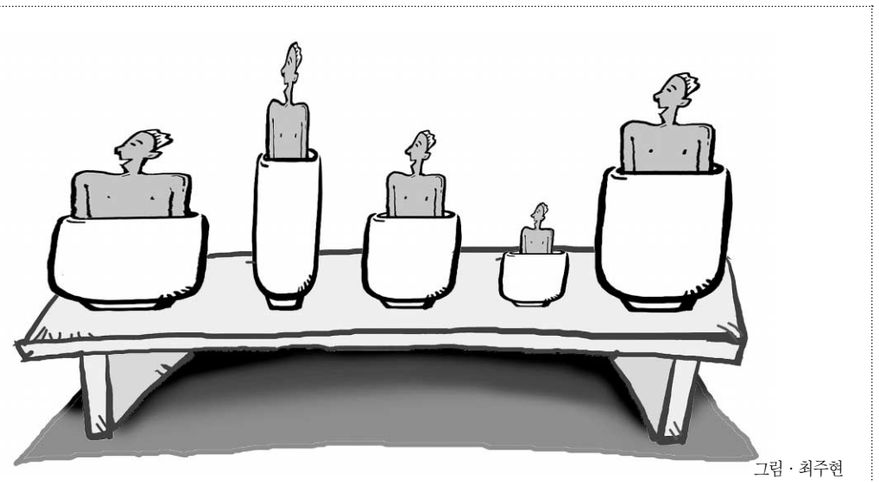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험이 없이 책을 읽어서 말로만 "남이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는 말은 한데 떨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책에 있는 것이라도 이것이 쓸 만하다 하면 그냥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기 것을 만들려면 얼만큼은 말없이 묵언하면서 그것을 굴려서 진짜로 법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겠죠. 남한테서 듣고서 홀랑, 아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말을 마구 해버리면 그거는 말 자체도 떨어질 뿐 아니라 그건 오히려 남한테 이익을 주지 못하고 나한테도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 채 이건 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혜로워야 한다.'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동서끼리 말을 전했을 때, 이 말을 전해서 좋을까 나쁠까를 잘 생각해서 이익이 되게끔 다스려서 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남한테 이익하게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거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어도 "칭찬을 하시더라." 하고 이렇게 말끝에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아하, 나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회개를 하면서 다시 그와 똑같은 마음이 돼버린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도 천차만별이죠. 그러니 거짓말도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진짜 거짓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수긍이 간다면 일체를 지혜롭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이지 어떤 땐, 허허, 나야 답답할 게 없습니다마는, 나라고 한다면 답답할 게 없다 이거는 뭐냐? 모두가 나 아님이 없을 때 답답합니다. 나니까, 즉 나니까요! 각각 상대로 본다면 답답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상대성으로 보지를 않고, 즉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모두가 이렇게 나 아님이 없이 살고 있다 할 때는 답답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허허, 모두가 돌이 아닌 까닭에 그러한 좋은 지혜로운 것을 전달을 하려면 돌이 아니게 전달이 되는데." 하고선 싱긋이 웃습니다. 애처로울 때가 많아서 말입니다.

그러니 나라고 생각 안 할 때, 모두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렇고, 한 번 울어보신 분 계시죠? 아주 섧다고 울어도, 그건 자기로 인해서 우는 율이 8, 90%죠. 부모를 위해, 부모 생각을 하면서 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이 좀더 더 살아줬으면, 더욱 고생을 해줬으면 하는 소리지. 하하하. 그저 자기 길러준 것도 생각 못하고 그냥 애까지도 갖다 맡기고 야단법석이죠.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여튼 착은 두고 살지 맙시다. 착을 두면 오히려 거리가 생기고 오히려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착을 두지 않아야 사랑을 할 수 있고 진짜 조건 없는 사랑으로써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오래 살고 늙었다고 해서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두 여러분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판단을 잘하든 잘못하든 그릇이 작든 크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애들을 나무라고 애들을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사랑도 무엇인지 알고, 정말 진짜로 뜨거운 사랑을 자식들도 알 수 있고 부모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번 그랬죠. "진짜 사랑을 하걸랑은 놔줘라. 부부지간에도 진짜 날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사랑한다면 놔줘라. 붙들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말을 해드리는데 이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는 바다가 되어 돌아가는 물속에,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그 물에, 눈물 한 방울이 눈에서 흘러내려서 뚜벅뚜벅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진실로써 내가 모자란다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아, 모자라는 것도 봐야 내가 모자라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바로 그것도 내 스승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다못해 풀 한 포기 보고도 스승이라고 믿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두 스님들도 그렇고, 야만과 아상이 많아서 내가 나라는 거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비구 스님들은 비구니가 알면은 얼마나 아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비구니 비구는 모습입니다. 모습! 화가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놨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주어지죠, 그 그림에 의해서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아주 영원한, 불생불멸할 수 있는 영혼의 근본 그 자체는 우주의 근본과 더불어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물에서 와서 물로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물에서 와서 물을 따라서 물줄기 가는 대로 돌아갑니다, 지금 한 계단 한 계단씩 말입니다. 지금 지구도 물주머니 속에서 살고 있지요? 우리 역시 안 그런가요? 물주머니에서 나와서 물주머니에서 살고 있죠. 공기주머니도 역시 물주머니나 한가지니까요.

이럭하고도 그 영원한 길을 진짜 알지 못하고 가신대서야, 알지 못하고 이 육신 옷을 벗는대서야 어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도 인간으로 진화를 시켜서 이날까지 왔는데, 끌고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죠. 칼을 뺐으면은 뺀 대로 뺀 그 칼이 모두 나 아님이 없는 그 자체를 살리고 건지고 모두 둘이 아니게 하늘을 받칠 수 있는 그러한 도리를 행해야만이 되겠지요. 여자 남자를 따지지 맙시다. 근본은 둘이 아닌 까닭이죠. 하다못해 풀 한 포기, 지렁이 하나도 스승 아닌 게 없는 걸로 알아야 할지언대 비구 비구니 따지고, 속인 따지고 이런다면은 어찌 하나도

애고를 딴 데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진 게 지금 나오는 것이다

혜로이 다스려나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만약에 내 몸뚱이도 이끌어갈 수 없다면 내 가정도 이끌어갈 수 없고, 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면 사회도 이끌어나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구도 우리의 집도 다 무너뜨리고 말 겁니다. 지구는 우리의 몸뚱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마음과 생명의 근본, 이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지구의 집도 수명과 더불어 건강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거짓이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64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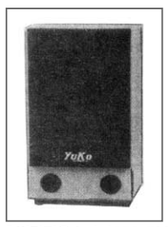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퇴미승

영험 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 갖는사람
용서하는 마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인연기도로 기찌를 받은 사례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천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 원 사
초 하 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우리 춤사위에 건강 있었네

불광사 '우리춤 건강체조 교실' 현장



이상신 단장(사진 앞)이 불광사 반야당에서 우리춤체조 '아리랑'을 지도하고 있다.

"팔을 올리면서 숨을 들이 마십니다. 자~ 업! 척추도 함께 폅니다. 팔을 내리면서 숨을 내쉬고 척추는 뒤로 밉니다.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하나에 올리고 둘에 내려봅시다."

9월 6일 서울 불광사 반야당에 모인 십 여 명의 보살들이 익숙치 않은 몸짓이지만 열심히 따라하고 있다. 전통무용이라 하기에는 뭔가 밋밋하고 체조라고 하기엔 제법 다채로운 동작들.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몸짓마당에 뛰어든 보살들은 낯선 동작을 소화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강사를 쫓는 눈빛만은 형형하다.

이날은 '우리춤 건강체조' 교실을 시작하는 날. 불광사 무용단 단장이자 '우리춤 연구회' 전문강사인 이상신(54) 보살이 지도를 맡아 무기한 무료강좌에 나섰다.

"우리춤체조는 노인들을 위해 개발한 운동이에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우죠. 기존의 운동을 조금씩 변형해서 만든 노인 운동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장은 로봇처럼 손과 발이 따로 움직이는 보살들의 동작을 세밀히 살피면서 간간이 설명도 덧붙인다. '우리춤체조'는 박상철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체력과학노화연구소, 이지영·박인숙 등의 안무·무용가들이 의기투합하면서 만들게 된 노년층을 위한 운동. 무용가들은 전통무용을 원형으로 삼아 춤사위를 고안했고, 건강 전문가들은 이를 꼼꼼이 살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을 엄선했다. 춤사위를 이끄는 전통가락 역시 몸짓에 입각해 새롭게 만들었다. 이에 인간문화재 이매방 선생으로부터 승무와 살풀이를 사사받은 이수향·이상신 선생의 지도가 곁들어지면서 우리춤체조는 한 차례 더 살아났다.

> 전통무용 응용 노년층 위해 고안
> 쉬운 동작에 역동성 최대한 살려
> 호흡·몸짓의 일체화로 활력증진

"전통무용 자체의 '난해함'을 떨어낸 대신, 단순하고 편한 동작에 건강 진흥 효과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특유의 리듬감과 역동성은 그대로 살려내 노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했죠."

이 같은 특성들은 '해맞이', '아리랑', '사군자'로 이름붙인 실제 춤사위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호흡과 몸짓이 일체가 되는 동작에서는 전통무용의 맛과 멋을 전해주고, 농사짓는 모습·나들이 가는 모습 등을 응용해 만든 동작으로 '누구나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워준다. 실제로 우리춤체조에 익숙해진 이들의 경우 '춤은 어렵다'는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자신 안의 적극성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 단장이 덧붙인다. 느리고 정체됐던 삶 속에서 활력과 생동감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노년기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강좌에 참여한 보리심(59) 보살은 "기계적인 운동에만 주력해왔는데 스트레칭과 율동을 적절히 조화시킨 춤체조는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움직임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느낀 운동량은 상당했고, 우리 가락과 우리 무용을 살려낸 동작이 친근하면서도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95년부터 기획 및 개발을 시작한 우리춤체조는 2000년에 이르러 전국의 복지관을 통한 활발한 보급활동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100명 이상의 지도자와 4만명이 넘는 이수자들을 양산했다. 또한 우리춤연구회는 2001년부터 2000명 이상의 노인들이 참여하는 우리춤체조 대회를 치러왔으며, 지난 7월에는 세계 노화대회의 개막전 공연으로 초청될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전주에서 2004 우리춤체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02)3417-2421

강신재 기자

김재덕 역학교육원

역학, 음양오행, 인성컨설팅 강사
주간지 Goodday 365 "미용역학 삼정의 인연법,사주에" 고정연재중
월간뷰티패션 "역학풀이" 연재중

실력있는 역학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모집과정 : 수시모집
-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사주통변이 부족하신 분, 책을 보고 독학하신 분
  사주통변이 자신 없는 분
-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 관상학 (특강 월2회 화요일)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27

일상생활 복귀 촉매 역할

오일 마사지가 좋은 까닭

건강 없이는 행복도, 영적으로 충만한 인생도 얻을 수 없다. 건강한 육체에서만이 건강한 마음과 행복도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면 건강한 육체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그것은 영양소나 혈액, 림프액이 온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조직 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섭취한 음식물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면 운동과 마사지는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을 돕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일조한다.

이렇듯 마사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뿐만 아니라 순환을 도와 독소를 제거해 조직을 새롭게 한다. 다시 말해 몸 속의 청소작업을 돕는 것이다. 이런 청소작업은 인체 내부의 자원을 활성화시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높이 살 만하다.

> 몸·마음 이완시키고, 독소 제거 도움
> 조직 활성화 통한 무기력함 탈피

우리 몸 속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무기질과 같은 영양소 외에도 호르몬, 효소, 엔자임, 기(氣) 등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자원이 있다. 이것이 모두 몸을 위해 쓰여지냐 하면 그렇지 않다. 못 쓰고 사장되는 일도 다반사고 쓰이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가 많다. 그런데 마사지를 해 주면 이런 상황이 서서히 개선된다. 당과 단백질의 화학 변화를 가져와 피로와 무기력함을 쫓아버리는 물론 몸을 활성화시키고 조직을 회춘케 하는 놀라운 힘을 가졌다.

이런 마사지의 위력을 인도 사람들은 일찍부터 깨달아 실행해 왔다. 태어나면서부터 3세 때까지 그들은 매일 규칙적으로 엄마로부터 오일 마사지를 받는다. 그 후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받다가 6세 이후가 되면 어린이 스스로 마사지를 하도록 교육받는다. 여성들의 경우 결혼식 전이나 출산 후 40일 동안은 반드시 약초가 첨가된 오일 마사지를 받는다.

결혼 전 신랑 신부가 마사지를 받으면 피부에 윤기가 나고 결혼 준비로 쌓인 그 동안의 스트레스와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랑은 정력과 생식력이 왕성해지고 정신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 신부는 피부가 고와지고 약초 특유의 효과가 아로마 역할을 해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므로 결혼 전 마사지는 인도의 오랜 전통이다. 또한 출산 후 40일 간의 마사지는 산모의 피를 정화시키고 독소를 제거해 일상 생활로 복귀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현대인들은 복잡한 환경과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근육의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공기, 물, 소리의 오염으로 우리의 모든 신경은 지치고 흥분되어 있으며 방부제, 비료, 살충제, 조미료 등과 같은 화학적 첨가물로 이루어진 인스턴트 식품들은 우리의 신체 분비선을 과용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치고 병든 현대인들에게 마사지야말로 꼭 필요한 건강 증진법이 아닐 수 없다. 단순히 문지르고 주무르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일까 하지만 그 속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 포천 중문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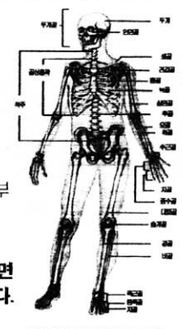


관 절 염
↓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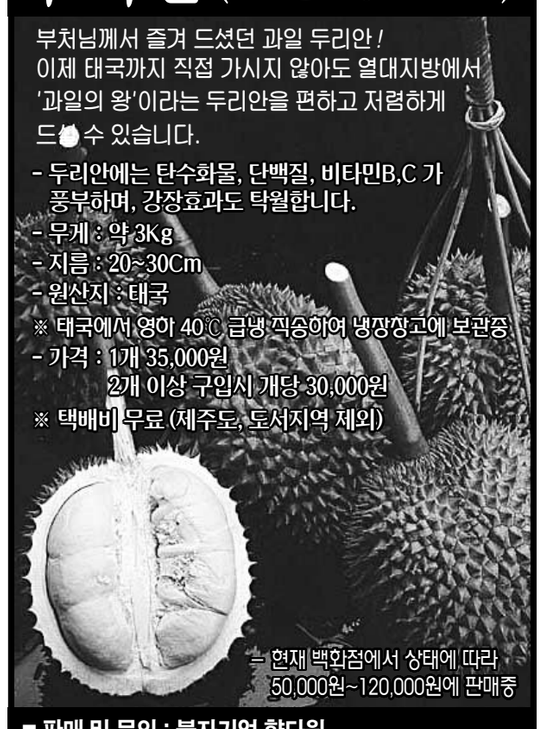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에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 031)882-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 예금주 : 조명숙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불국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정기회의)

불국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총동문회 스님께서는 정기회의에 모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날 짜 : 음력 8월 5일 (양력 9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불국사 심검당
▣ 안 건 : 1. 총동문회 회장 선임의 건
2. 사무실 건립의 건
3. 기타안건
▣ 문 의 : (02) 353-5016 (노적사)
(055) 944-2093 (거창포교당 심우사)
(011) 547-4001 (심우스님)

※ 지난 현대불교신문(제488호, 15면)에 나간 날짜가 변경되었기에 다시 게재하는 것입니다.

총동문회장 박종후 합장

"토르말린, 수정석, 맥반석 등의 **천연광물**이 뿜어내는 그 시원하고 후끈후끈한 열기, 이것이 바로 이열치열!"
원적외선
불가마
형식승인번호(안전인증번호) : HU07305-2001A



5분 충전! ▶▶ 3시간 연속찜질!

딱 한번만 **무료체험**해 보십시오!
후끈후끈한 원적외선 열찜질!
몸 속 깊이 침투하는 그 시원함!
정말 놀랍습니다.

추석효도선물
목초수액시트
30매 증정
특별가 13만원

- 불과 5분 충전으로 3시간동안 연속찜질 OK!
- 전원차단으로 무선찜질, 유해전자파 걱정 NO!
-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는 편리성 YES!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성도 그만!

◎ 제품의 특성
- 최신 특수공법에 의한 견고한 제품
- 수많은 실험으로 안전성, 기능성 확보
- 인체공학적 설계로 몸의 어느부위에도 밀착성 우수
- 내부 발열온도 135℃, 표면온도 60~70℃
- 원적외선과 음이온 다량발생 (원적외선 방사율 약 90% 음이온 182/cc)

◎ 주요 용도
- 노약자 보온용 및 무릎, 어깨, 관절 찜질
- 여성의 아랫배, 손발을 따뜻하게
- 학생이나 직장인의 목, 어깨 찜질 또는 베개대용
- 아픈곳이나 다친 곳의 찜질
- 낚시, 등산, 야영, 야외 작업시 보온용
- 춥고 습기찬 곳에서의 보온용

■ 자매품 : 청즙(3g 30포) 45,000원, 크로렐라 (200ml 1600정) 75,000원
www.bb21.com 상담실 : 02)969-8080

아이디어 라이프 / idea

■신발과학이 탄생시킨 효도신발!!

파동에너지 건강신발 "롱~스마일" 인기최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

인체공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제작된 효도신발의 대명사!!



신는 순간부터 다리에 힘 확 생겨!

롱~스마일은 신는 순간 누구나 2번 놀란다.
첫째는 가볍고 편안함에 이런 신발이 있을까 하고 놀라고, 둘째는 다리에 힘이 확 생기는 것에 놀란다. 신발 가방단 30년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가벼운 신발'**이란 별명까지 붙은 **롱~스마일사** 장균혁(60세)대표가 중, 노년층의 무병장수를 위해 만든 신발로 신발 기능의 결정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이 무병장수하고 평생 못고 사시라는 뜻에서 브랜드를 **롱~스마일**이라 붙인 이 신발은 신어본 아들의 입소문을 통해 신청하던 10일이상 걸려야 신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팔리고 있다.

우리 어른들은 자식을 키우느라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게 숨가쁘게 달려 왔다. 집도 오래되면 벽에 균열이 생기고 기울듯이 몸도 오래된 집과 같이 모든 관절이 편한을 잃고 허리도 구부러져 있다. 오래된 집도 제일 중요한 기초를 보강하면 반듯해 지듯이 사람의 인체구조상 기초는 발이다. 그래서 발은 인체 어느 곳과도 연결되어 있어 사람의 제2심장 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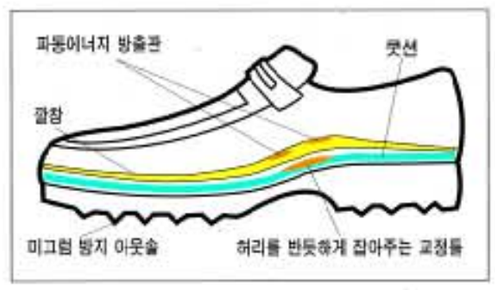
롱~스마일 신발은 사람의 기초인 발을 보강시키는 기능을 접합시켜 일반 신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 있다. 첫째는 어른들 누구나 다리에 힘이 부족하기에 전 WBA주니어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 김환진씨가 발명한 파동에너지를 발산하게 하여 신는 순간부터 다리 힘이 생기게 했으며, 둘째는 몸의 균형과 허리를 반듯하게 하기 위하여 용천을 받쳐주게 제작하고, 셋째는 자주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눈 비올 때도 제일 안전하다는 다이다

30대 건강 80대 까지!

본드형 조각의 고무창을 개발해 부착하고, 넷째는 관절염, 고혈압, 당뇨등을 갖고 있는 노인분이 장시간 보행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음이온과 원조의선을 발산하게 하고, 신발의 무게를 혁기적으로 가볍고, 편안하게 한것이 롱보인다. 최고급 한의소가죽과 최첨단 신소재가 총 동원된 최고급 신발로 여성용 120,000원 남성용 125,000원 전화로 싸이즈를 알려주면 보내준다. 문의080-555-3080
농협 944-12-441157 김현식

롱~스마일 신발 내부설계도

발은 사람의 제2의 심장



삼고 금강저 건강밸트

험한 세상 믿음의 호신용으로 인기

·징도 튼튼!! ·허리도 튼튼!! ·승리의 수호신!!



삼고금강저 (金剛杵)



삼고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필고의식 복 쓰는 무기로 불퇴전의 권은 보리심을 상징한다. 밀고의 인다라에는 금강부의 여러 존심이 모두 금강저를 가지고 있으며 금강역사는 부처님의 불력으로 악귀와 감귀도 물리칠 정도로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를 뜻한다.

국내 불교성구 전문업체인 과음예술원에서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인 삼고 금강저를 밸트에 부착하여 남자분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측원 봉공을 마치고 출시했다. 1분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상인, 간음, 강도, 유괴 사고등 항상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믿음의 수호신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삼고 금강저는 부처님의 법구 등 법구로서 닥쳐올 화를 미리 피하게 하고, 악한 인연을 만나지 않게 하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모든일이 승리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부처님 성구다. 업치 관계자는 금강저 밸트에서 발산되는 氣와 원적외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허리와 장이 약하신 분은 착용하면 튼튼해지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한다. 금강저 자동 밸트는 실용신안 및 건겸밸트로 특허를 획득한 국내 밸트 중 기능성을 가진 최고급 자동 밸트로 평가되고 있다. 출시 기념으로 여성들이 핸드백에 넣어 자신감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도금한 삼고금강저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가격65,000원 문의(080-330-7555)



신발에 넣고 출근과 퇴근 하는것 만으로 3시간 운동효과

▶배나온 고민 걱정 끝

살 빼는 "스타캔" 인기짱

배는 나오고 다리는 힘이 없고, 운동할 시간도 없어 비만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신에 넣고 솝. 퇴근만 하도 다이어트와 운동이 되는 "스타캔"이 남, 여 직장인과 가정주부 및 노년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다이어트 용품 "스타캔"은 착용 자체가 근력 향상과 지압, 스트레칭 효과를 높여 결국 별도의 시간을 내서 운동하지 않아도 신고 생활하는 자체가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시킨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다이어트 용품이다. 스타캔을 넣고 신을 신으면 자연스레 "발중심-발앞끝 보행"만이 가능해 종아리 부분의 근육과 대퇴근이 반복적으로 이완되기 때문에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켜 다이어트의 효과를 얻도록 설계된 것이다. 또한 스타캔이 적용된 기술은 뒤축에 실리는 체중을 발중심에 분산시켜 뇌까지 전달되는 충격을 일반화를 착용했을 때 보다 35% 까지 감소 시켜 주며 걸을때마다 사람의 제2심장이란 발바닥 용천을 지압해 장시간 보행해도 피곤함이 없고, 신는 순간부터 다리 힘이 생겨 넘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스타캔"를 착용해 본 이들은 다이어트 은동효과에 대해 다리에 힘이 생기고 3개월이면 배가 들어가며 허리도 반듯해 지고 있다며 다이어트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스타캔"을 발명한 (주)제이테크는 2년전 부터 일본으로 수출되어 다이어트 용품중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일본에서 8천엔에 판리고 있다. 가격48,000원으로 주문하면 보내준다.
(080)330-7555 농협 944-12-441157 김현식

관세음보살 백연화 향로

네 소망이 성취되고 후손이 영화롭고 번성하리라

'소원성취 향로' 화제집중
99%청동을 만든 국보급 명작



무게2.7kg높이20cm가로17cm

추석 제례시 품위있게 사용!

불경에 입각한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관음예술원에서 불교의 관음 신앙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영험의 손모양과 자물을 향로로 제작해 장인불공과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세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 시켜주는 영험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음 백연화는 큰 스님들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려져 어려움을 겪는 불자들에게 긴급 비방으로 사용해 왔다. 출시한지 10일도 안되어 관세음보살의 성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우기를 넘기고 2년간 매하기만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소원성취 향로다. 특히 감신년에 부처님 공양구를 구정에 모시면 심재도 소멸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화를 좋고 꼬였던 일들이 풀린다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관세음보살백연화 향로는 99%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들어오는 향로는 만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회색꽃이 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음백연화 향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예불시 또는 제례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받고 있다. 가격265,000원 문의(080-330-7555)

산을 좋아하는 등산매니아의 꿈의 신발 …

"아이젠부착 등산화 싼스타"출시

제네바 국제발명대회 국내 최초 특상 수상

신발에 부착된
아이젠 미끄러운 곳에서
레바만 돌리면 안전



(그림1) (그림2)

눈, 비 올 때와 하산할 때 최고

등산화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산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은 배낭속에 아이젠 미끄럼 방지기구을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 그러나 이젠 이런 불편함을 없애는 아이젠이 부착된 '등산화 싼스타'의 발명으로 등산매니아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겨울이 아닌 일반 계절에도 하산할 때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심족하는 경우가 빈번이 일어나고 특히 여름 산행은 갑주스런 소나기로 등산길이 대단히 미끄러워 아이젠은 등산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품이다.
아이젠 등산화 싼스타는 신발 밑창 뒷부분에 간편하게 고정되었 그림1)다가 미끄러운 곳을 지날 때에 간편하게 레바만 돌리면(그림2)눈이 있는곳이나 빙판길 또는 비올 때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아이젠을 간단히 떼었다 붙였다 할수도 있다. 세계적 권위를 가진 제네바 발명대회에서 국내 최초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신발은 기능성도 최고지만 최첨단 신소재가 총동원 된 등산화로, 신는 순간부터 제2심장이란 발바닥 용천을 지압해 장시간 산행에도 피곤함이 없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성 신발 과학의 결정체로 평가하고 있다. 아이젠 등산화 싼스타를 발명하고 개발한 (주)테크제이 관계자는 계절에 관계없이 등산에는 꼭 필요한 안전장비라고 강조한다. 가격 125,300원 (080)566-3083)